

2014년 추진 마을 대상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2015. 11.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I. 연구개요01	III.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61
1. 현장포럼 추진개요	
2.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II. 연구결과15	IV. 부록81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1. 주민 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 분석
2. 종합분석 결과	2. 전문가 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 분석
3.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3. 기타 의견(문제점 및 개선방안)
-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일반주민, 전문가)	
4. 요약 및 총평	

I. 연구개요

1. 현장포럼 추진개요
2.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백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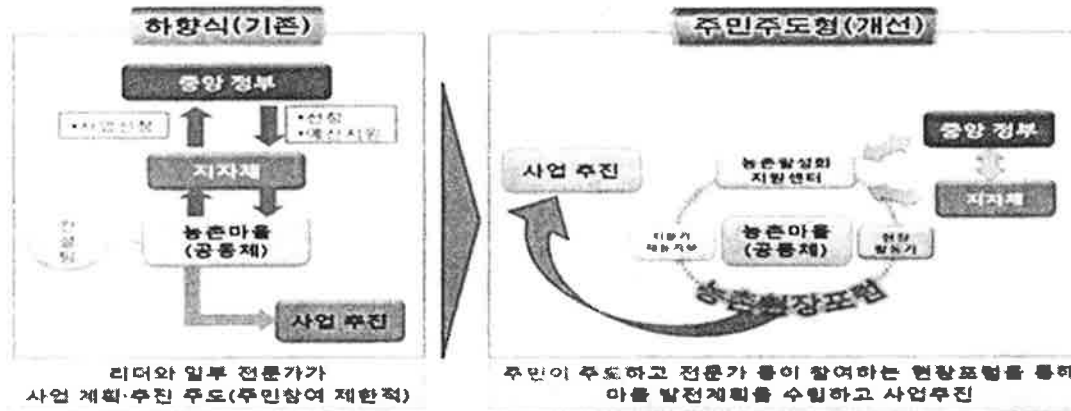
1. 현장포럼 추진개요

- 현장포럼 개념

- 현장포럼은 마을주인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 * 현장포럼은 주민의 아이디어 제시·구체화를 위해 퍼실리테이션기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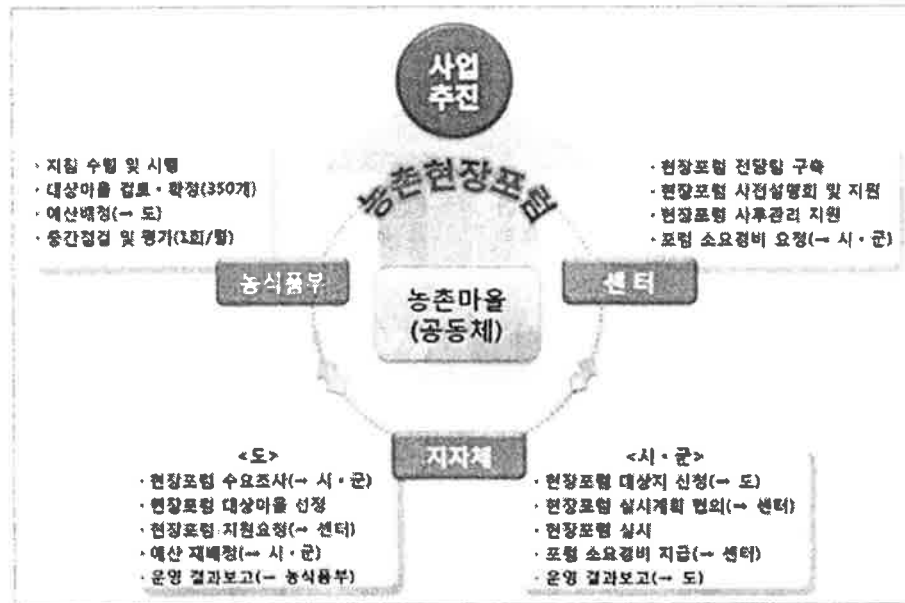
- 현장포럼 추진배경

- 기존 하향식 마을개발사업 방식에서 주민주도 사업추진을 위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 협의 프로그램인 농촌현장포럼 도입.
 - * 주민주도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및 역량강화, 자원 발굴과 창의적 사업화, 사업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등 필요



1. 현장포럼 추진개요

- 2014년 현장포럼 운영의 기본방향
 - 추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마을·지역 특성(수준·규모)에 맞는 탄력적인 현장포럼 실시
 - 현장포럼 사전·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주민참여 확대 및 사업연계
 - * 현장포럼 실시 후 지자체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연계
- 현장포럼의 추진체계 및 절차
 - 농식품부·지자체·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포럼 추진



1. 현장포럼 추진개요

- 현장포럼 운영개요

- 도 및 시·군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현장포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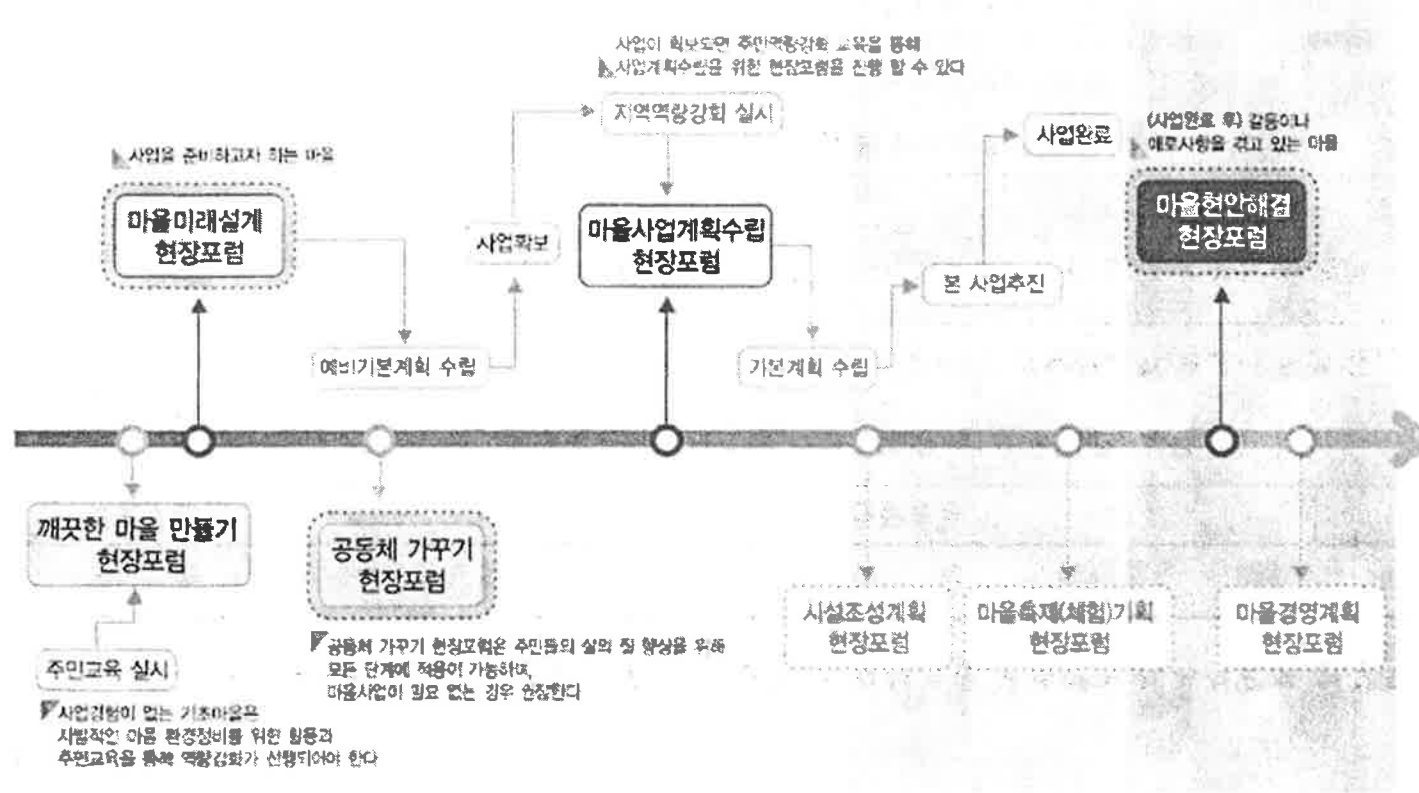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시행주관	시·군(현장활동가)
협조기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사전설명회, 전문가 지원, 교육 등) 전담팀(주민역량 및 자원현황 사전조사 실시, 마을발전계획 보고서 작성 등)
추진방법	마을 또는 권역단위 단계(유형)별 4회차, 퍼실리테이션, 강의, 컨설팅 등 연계 ▶ 마을발전계획 등 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포럼 실시 마을에 정책연계 등 사후관리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홍보방법	지역신문 및 방송협조 등
성과물	설문결과, 회차별 결과보고서, 자원·주민역량조사결과, 마을발전계획 등 보고서
포럼네트워크	각 지역 거버넌스간의 네트워크
마을네트워크	리더-리더-활성화지원센터

1. 현장포럼 추진개요

• 현장포럼 운영절차

- 사업추진 단계를 기준으로 유형에 맞는 현장포럼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현장포럼 유형



* 농촌현장포럼은 농촌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계곡관리 수용가능지역

2.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 현장포럼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마을 선정
 -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350개 마을을 분석대상 마을로 선정

구분	년도	지역										
		전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개소수 (단위:개소)	2013	234	13	26	20	48	26	36	27	34	4	-
	2014	350	18	36	30	55	39	55	55	54	6	2
	2015	418	22	43	36	63	52	62	65	65	7	3
예산 (단위:백만원)	2013	1,567.8	87.1	174.2	134.0	321.6	174.2	241.2	180.9	227.8	26.8	-
	2014	2,331.6	120.6	241.2	201.0	368.5	261.3	368.5	368.5	361.8	40.2	-
	2015	3,034.0	161.0	310.0	263.0	454.0	377.0	452.0	475.0	470.0	51.0	21.0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진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에 관한 1차 효과(만족도) 분석을 위한 설문(6개 문항)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해당하는 설문〉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포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 주민참여도
2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이해도
3	현장포럼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의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주민참여도
4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이해도
5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만의 색깔과 발전방향을 찾았다.	①	②	③	④	⑤	← 마을계획의 만족도
6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마을계획의 만족도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이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과 대응력, 사업추진력 변화에 관한 2차 효과(역량변화) 분석을 위한 설문(8개 문항)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해당하는 설문〉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하여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의사소통능력
2	마을회의를 할 때는 포스트잇 활용 등 현장포럼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의사소통능력
3	현장포럼 이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되 서로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의사소통능력
4	현장포럼 이후 회의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①	②	③	④	⑤	← 갈등예방/대응력
5	현장포럼 이후 회의안건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갈등예방/대응력
6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 있을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추진력
7	마을리더는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추진력
8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추진력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이후 지역에 대한 귀속감,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변화에 관한 3차 효과(공동체변화) 분석을 위한 설문(8개 문항)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 변화에 해당하는 질문〉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에 대한 귀속감
2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에 대한 귀속감
3	마을발전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민 의식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에 대한 귀속감
4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타인과 유대감
5	현장포럼 이후 이웃 간 교류가 증대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타인과 유대감
6	주민들은 마을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 타인과 유대감
7	주민들이 재산이나 재능을 마을 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공동체 만족감
8	현장포럼 이후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공동체 만족감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8개 문항)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현장포럼 효과에 관한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포럼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2	현장포럼은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3	현장포럼은 주민 간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4	현장포럼은 마을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을 높인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5	현장포럼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6	현장포럼은 마을 사업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7	현장포럼은 우리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8	현장포럼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효과성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6개 문항)

-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

〈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장포럼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장포럼은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 프로그램의 필요성

← 프로그램의 효과성

← 프로그램의 효과성

← 프로그램의 효과성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설문(4개 문항)

- 각 문항별 보기 제시 및 주관식으로 구성

1.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몇 회로 운영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회 차 이하 ② 4회 차 ③ 5회 차 이상

← 현장포럼 적정회차

2.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각 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4시간 이내 (현행)	5시간 이내
1회 차(주민교육)	①	②	③	④	⑤
2회 차(테마발굴)	①	②	③	④	⑤
3회 차	현 장 권 학				
4회 차(과제발굴)	①	②	③	④	⑤

← 적정 소요시간

3.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언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관없다 ② ()월 (이유 :)

← 적정 진행시기

4.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몇 시에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오전(9시 ~ 12시 사이 시작) ② 오후(13시 ~ 18시 사이 시작)
③ 저녁(18시 이후 시작) ④ 상관없다

← 적정 개최 시각

3. 현장포럼 효과분석 방법 -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구성

- 향후 현장포럼 발전방향 검토를 위한 설문(3개 문항)
 - 주관식으로 구성

문 제 점	* 현장포럼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자유롭게 기재
개 선 방 안	* 현장포럼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자유롭게 기재
기 타 의 견	* 현장포럼의 기타의견의 있을 시 자유롭게 기재

II. 연구결과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2. 종합분석 결과
3. 기존연구자료와 비교분석
 -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4. 요약 및 총평

여백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마을주민 대상

- 2014년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마을 주민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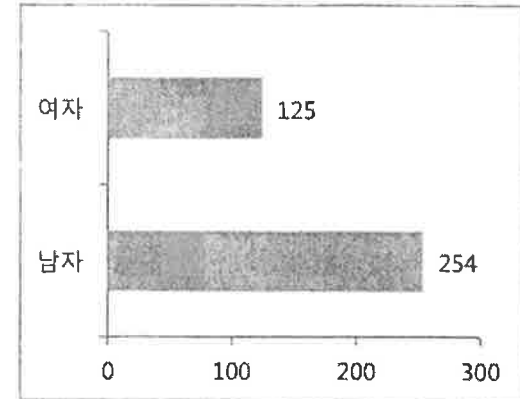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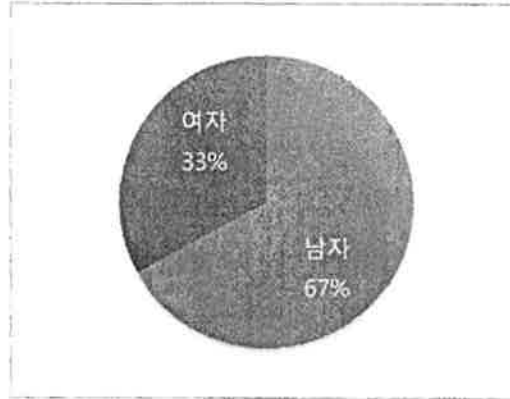
설문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마을주민 대상)
설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현장포럼 추진 3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별 10부씩 총 3,500부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된 설문은 57개 마을 420부 마을 주민 및 마을이장,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통계처리를 위한 8문항 현장포럼 진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및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등 6문항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에 관한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예방과 대응력, 사업추진력 등 8문항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 변화에 관한 지역에 대한 귀속감 및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등 8문항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회차, 소요시간, 진행시기, 개최시각 등 4문항 현행 현장포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의견 등 3문항
설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6. ~ 2015. 8.
설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조사
설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된 420건의 설문지 중 현장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41건의 설문지를 제외한 379건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프로그램 활용 분석(IBM SPSS Statistics 21)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마을주민 대상

• 일반현황 _ 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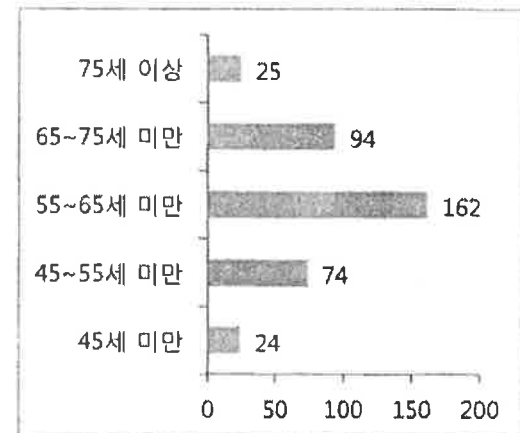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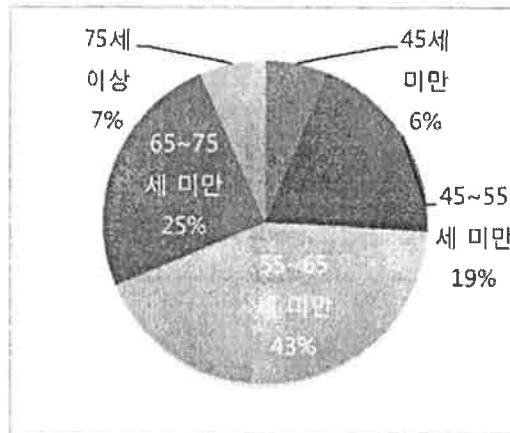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254	67.0
여자	125	33.0
합계	379	100.0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45세 미만	24	6.3
45~55세 미만	74	19.5
55~65세 미만	162	42.7
65~75세 미만	94	24.8
75세 이상	25	6.6
합계	3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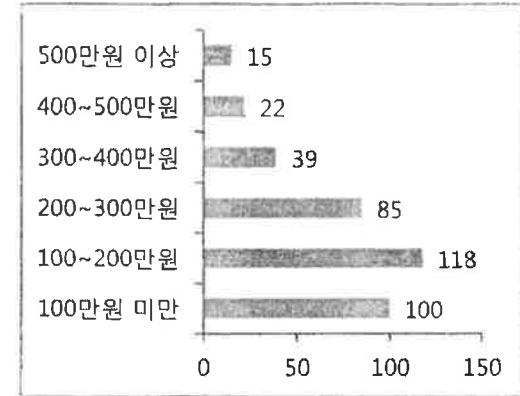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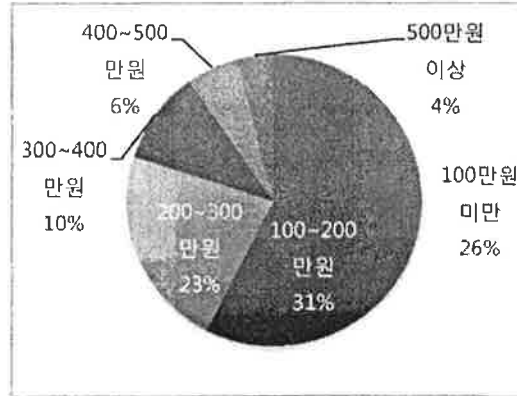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마을주민 대상

• 일반현황 _ 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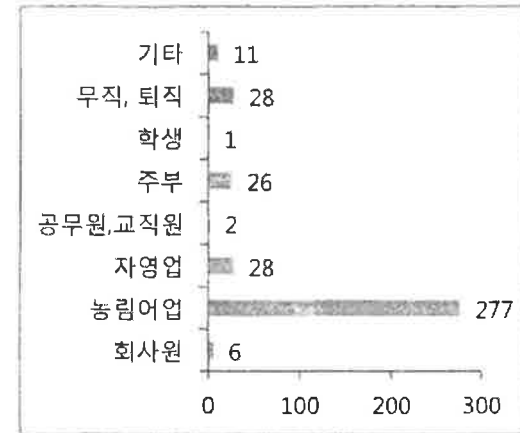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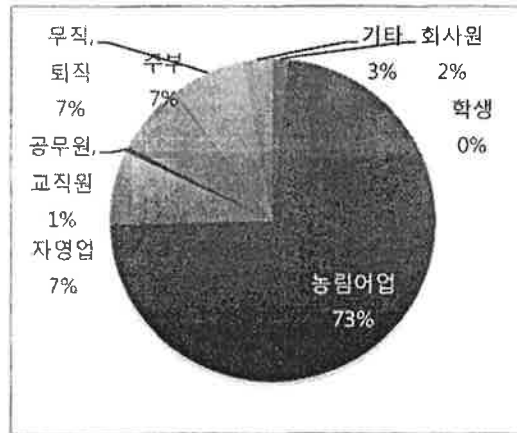
평균소득

구분	빈도	백분율(%)
100만원 미만	100	26.4
100~200만원	118	31.1
200~300만원	85	22.4
300~400만원	39	10.3
400~500만원	22	5.8
500만원 이상	15	4.0
합계	379	100.0



직업

구분	빈도	백분율(%)
회사원	6	1.6
농림어업	277	73.1
자영업	28	7.4
공무원, 교직원	2	.5
주부	26	6.9
학생	1	.3
무직, 퇴직	28	7.4
기타	11	2.9
합계	3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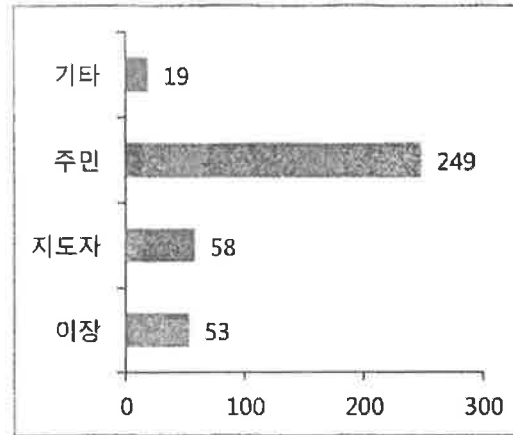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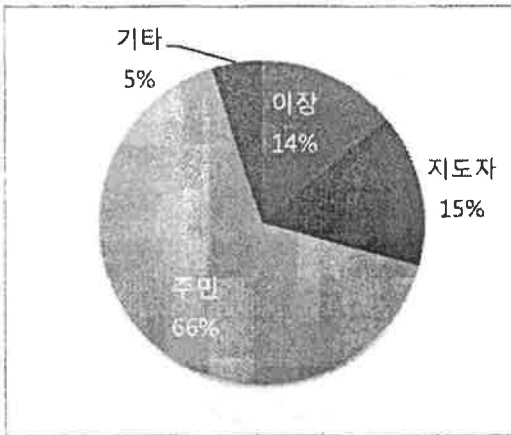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마을주민 대상

• 일반현황 _ 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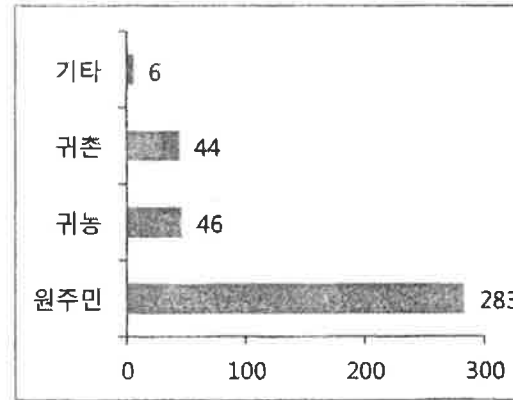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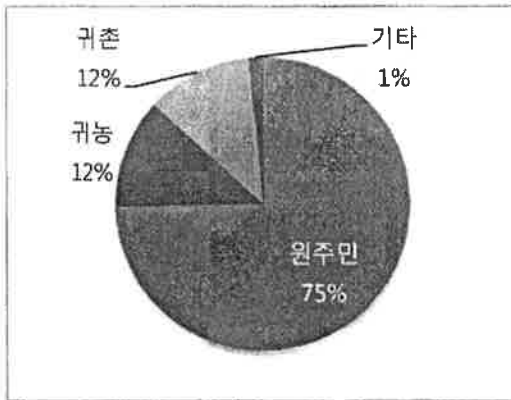
역할

구분	빈도	백분율(%)
이장	53	14.0
지도자	58	15.3
주민	249	65.7
기타	19	5.0
합계	379	100.0



정착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원주민	283	74.7
귀농	46	12.1
귀촌	44	11.6
기타	6	1.6
합계	379	100.0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전문가 대상

- 2014년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활성화지원센터,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및 농어촌컨설턴트 등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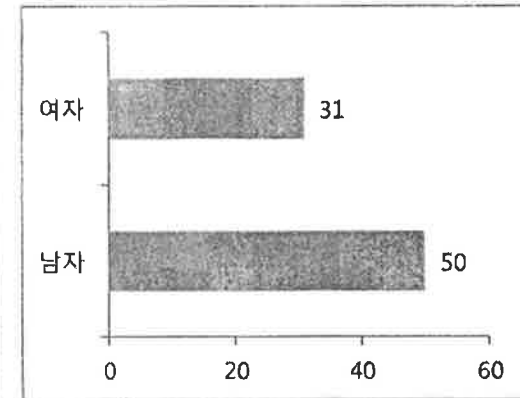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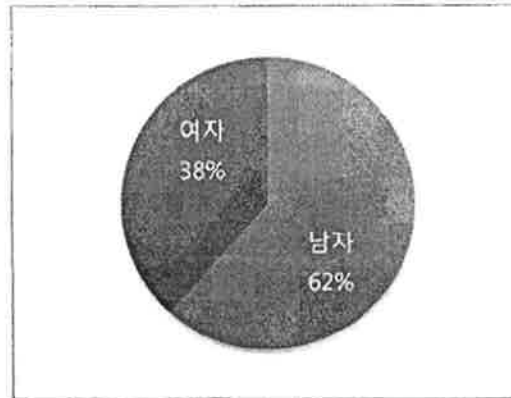
설문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전문가 대상)
설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화지원센터 소속 교수 및 연구원, 현장활동가, 퍼실리테이터 및 농어촌컨설턴트, 현장포럼 참여 컨설팅 업체 대상
설문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일반특성 및 통계처리를 위한 7문항 ▪ 현장포럼 효과성 8문항 ▪ 현장포럼의 필요성 4문항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회차, 소요시간, 진행시기, 개최시각 등 4문항 ▪ 현행 현장포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의견 등 3문항
설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6. ~ 2015. 9.
설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조사 및 인터넷 조사(이메일)
설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된 83건의 설문지 중 현장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2건의 설문지를 제외한 81건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프로그램 활용 분석(IBM SPSS Statistics 21)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전문가 대상

· 일반현황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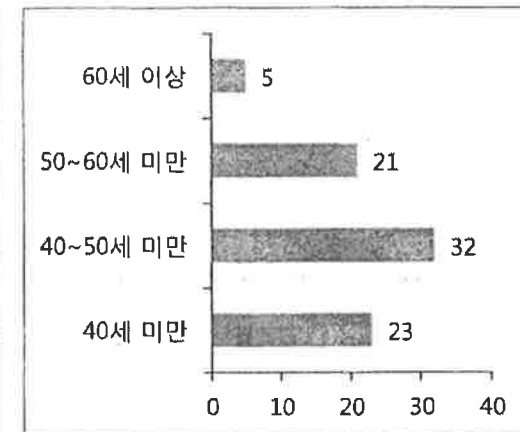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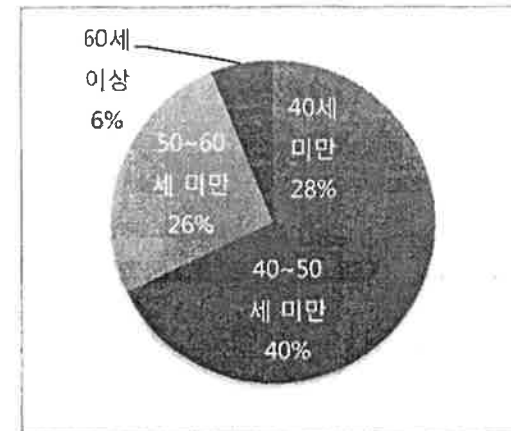
성별

구분	빈도	백분율(%)
남자	50	61.7
여자	31	38.3
합계	81	100.0



연령

구분	빈도	백분율(%)
40세 미만	23	28.4
40~50세 미만	32	39.5
50~60세 미만	21	25.9
60세 이상	5	6.2
합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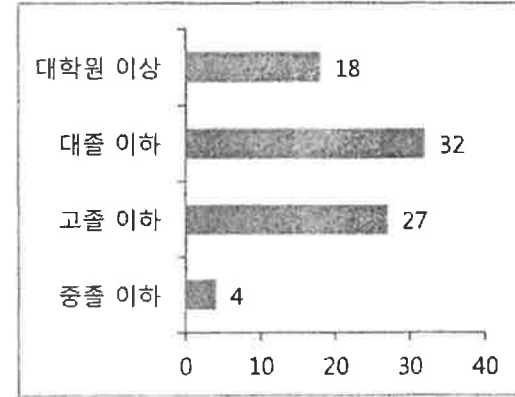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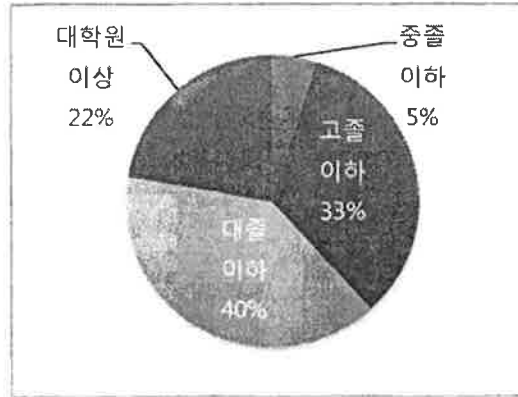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전문가 대상

• 일반현황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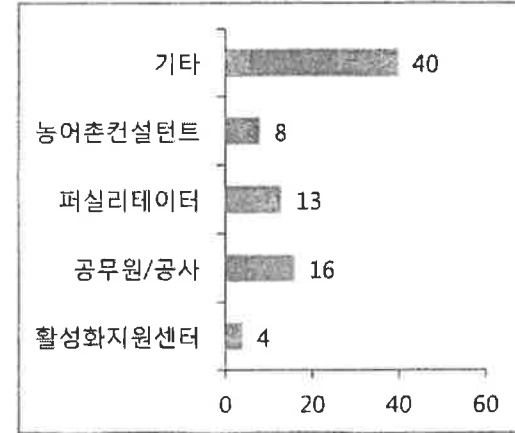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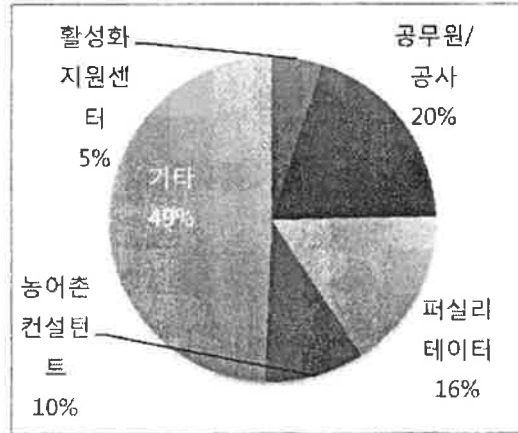
최종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중졸 이하	4	4.9
고졸 이하	27	33.3
대졸 이하	32	39.5
대학원 이상	18	22.2
합계	81	100.0



참여역할

구분	빈도	백분율(%)
활성화지원센터	4	4.9
공무원/공사	16	19.8
퍼실리테이터	13	16.0
농어촌컨설턴트	8	9.9
기타	40	49.4
합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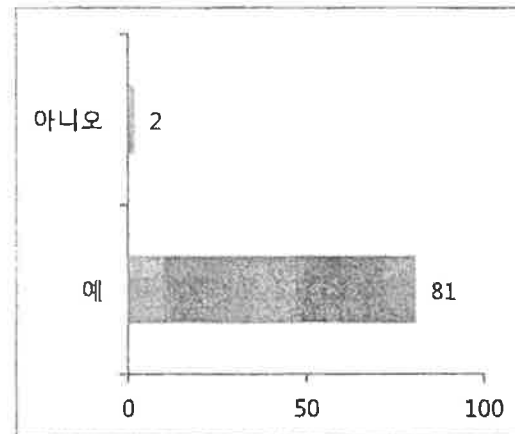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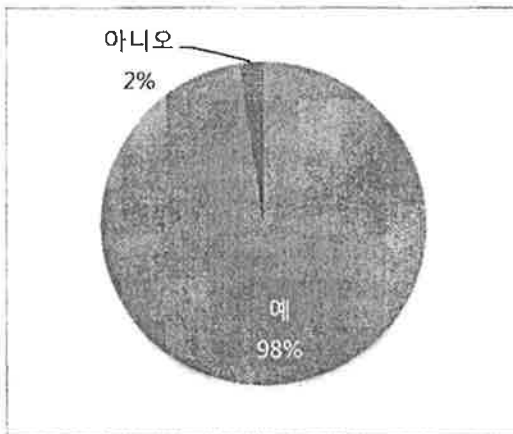


1. 현장포럼 효과분석 개요 - 전문가 대상

• 일반현황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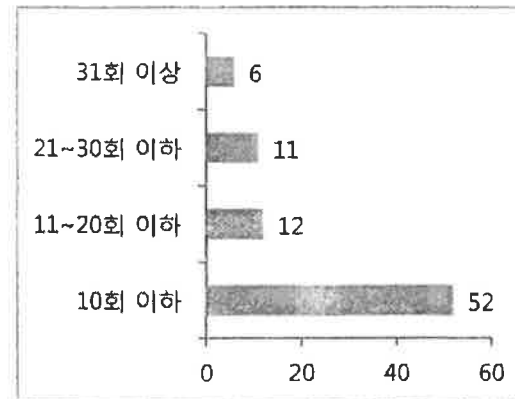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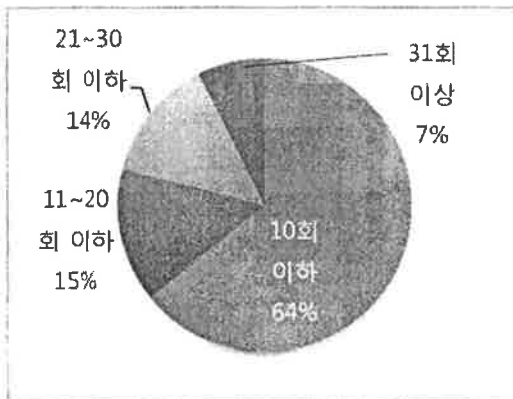
참여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1	96.4
아니오	2	3.6
합계	83	100.0



참여횟수

구분	빈도	백분율(%)
10회 이하	52	64.2
11~20회 이하	12	14.8
21~30회 이하	11	13.6
31회 이상	6	7.4
합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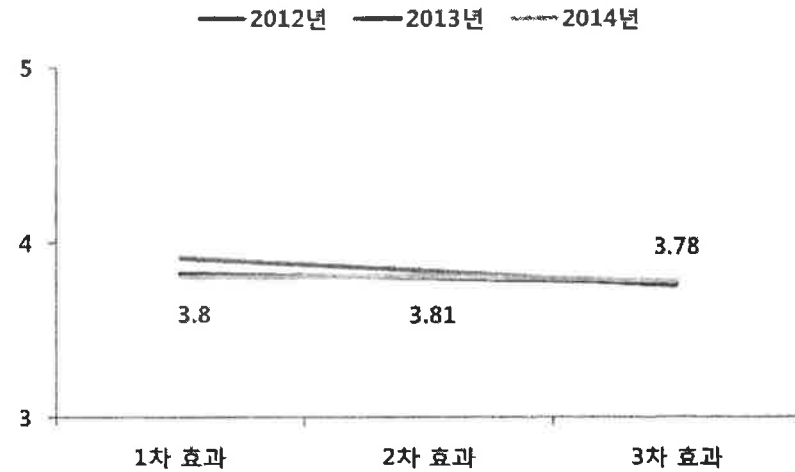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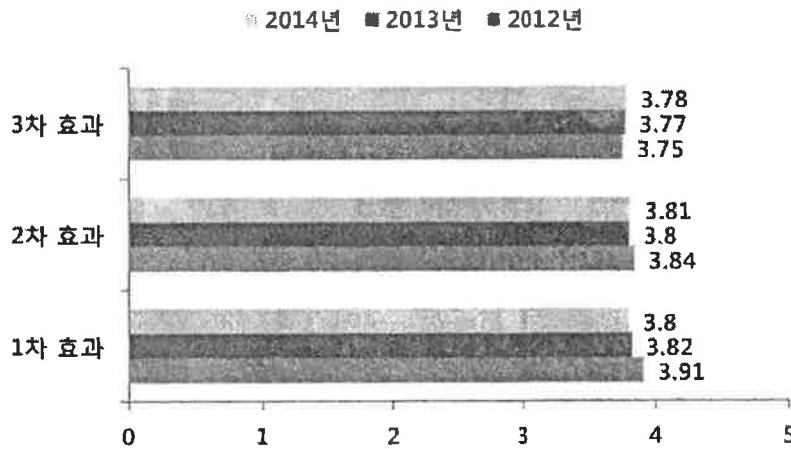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종합

• 현장포럼 단계별 효과

구분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
	현장포럼 진행시 만족도	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 변화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대응력 사업추진력	지역에의 귀속감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2012년 평균	3.91	3.84	3.75
2013년 평균	3.82	3.8	3.77
2014년 평균	3.8	3.81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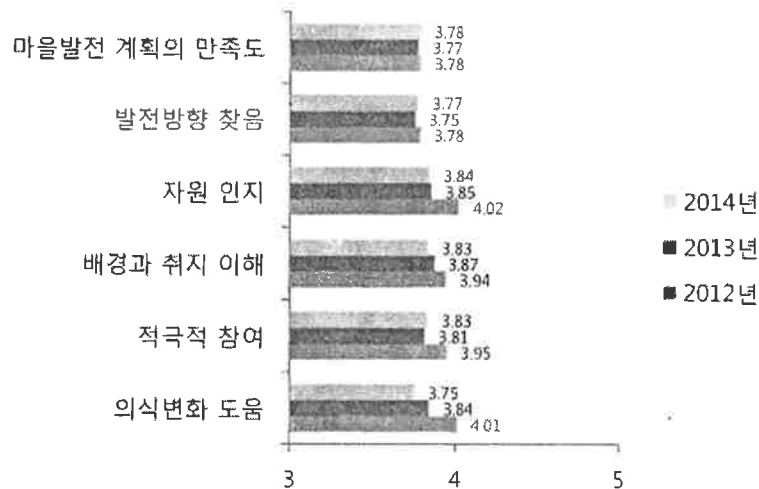
- 2014년의 경우 단계별 효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3개년 동안 현장포럼의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포럼이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1차 효과(현장포럼 만족도) 분석

· 현장포럼 과정에서 나타나는 1차 효과(현장포럼 만족도) 분석

구분	주민참여도(과정)		사업이해도(과정)		마을계획수립의 만족도(산출)		평균
	의식변화 도움	적극적 참여	배경과 취지 이해	자원 인지	발전방향 찾음	마을발전 계획의 만족도	
2012년	4.01	3.95	3.94	4.02	3.78	3.78	3.91
2013년	3.84	3.81	3.87	3.85	3.75	3.77	3.82
2014년	3.75	3.83	3.83	3.84	3.77	3.78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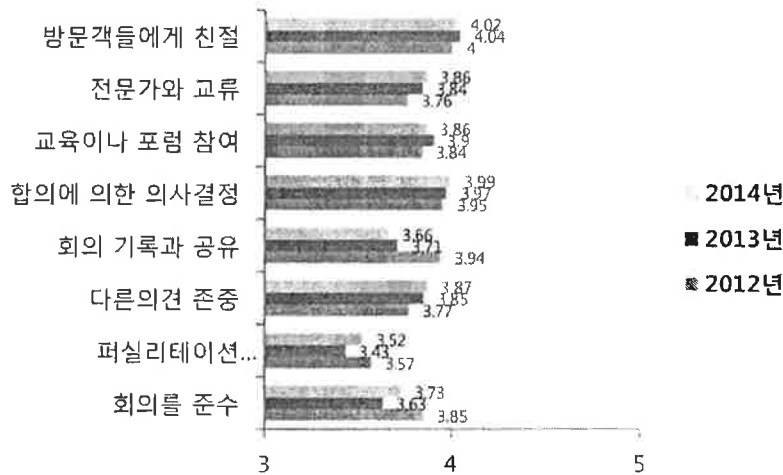


- 1차 효과(만족도)에 대한 전반적 수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3개년 동안 1차 효과(만족도)에 대한 평균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2차 효과(현장포럼 이후 역량변화) 분석

• 현장포럼 이후 2차 효과(역량변화) 분석

구분	의사소통능력			갈등예방 / 대응력		사업추진력			평균
	회의를 준수	퍼실리테이션 기법활용	다른의견 존중	회의 기록과 공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교육이나 포럼 참여	전문가와 교류	방문객들에게 친절	
2012년 평균	3.85	3.57	3.77	3.94	3.95	3.84	3.76	4	3.84
2013년 평균	3.63	3.43	3.85	3.71	3.97	3.9	3.84	4.04	3.8
2014년 평균	3.73	3.52	3.87	3.66	3.99	3.86	3.86	4.02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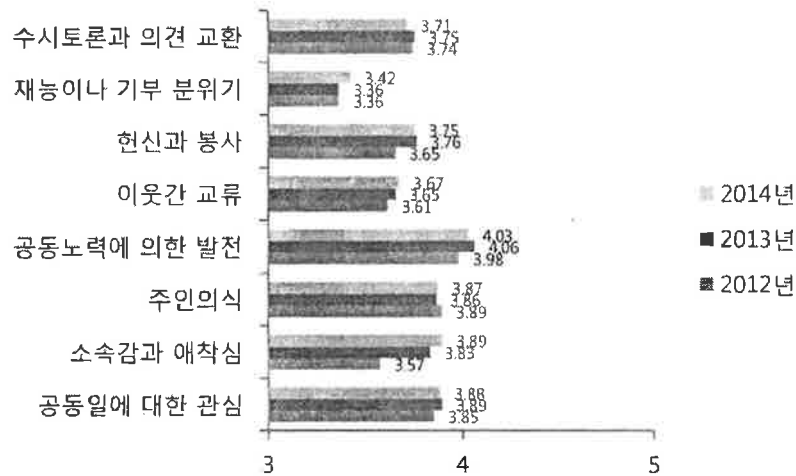


- 2014년의 경우에도 2차적 효과(역량 변화) 중 사업추진력 분야에 대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전문가와 교류, 방문객들에게 친절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 3개년 동안 2차 효과(역량변화)에 대한 수치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3차 효과(현장포럼 이후 공동체변화) 분석

• 현장포럼 이후 3차 효과(공동체변화) 분석

구분	지역에 대한 귀속감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평균
	공동일에 대한 관심	소속감과 애착심	주인의식	공동노력에 의한 발전	이웃간 교류	헌신과 봉사	재능이나 기부 분위기	수시토론과 의견 교환	
2012년	3.85	3.57	3.89	3.98	3.61	3.65	3.36	3.74	3.75
2013년	3.89	3.83	3.86	4.06	3.65	3.76	3.36	3.75	3.77
2014년	3.88	3.89	3.87	4.03	3.67	3.75	3.42	3.71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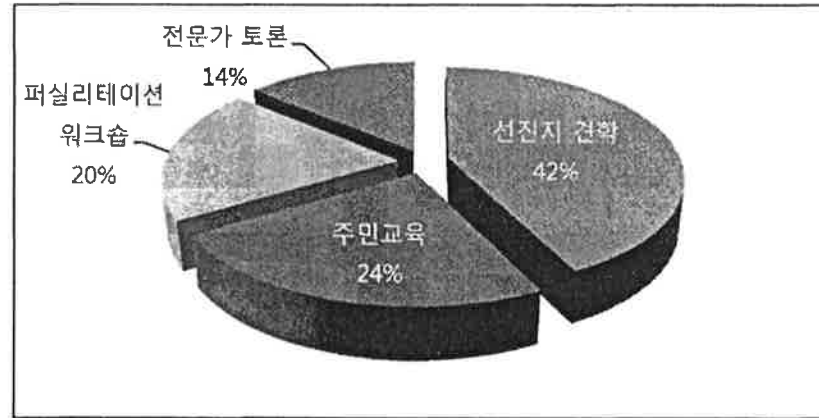


- 3개년 동안 3차 효과(공동체변화)에 대한 수치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미세하게 높아지고 있음
- 현장포럼으로 인해 재능이나 재산의 기부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임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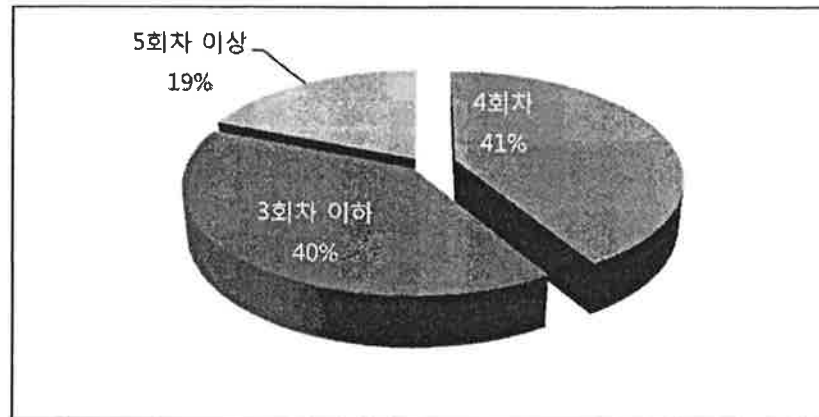
• '2014년 농촌현장포럼'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선진지 견학	162	42.6
주민교육	90	23.7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75	19.7
전문가 토론	53	13.9
합계	380	100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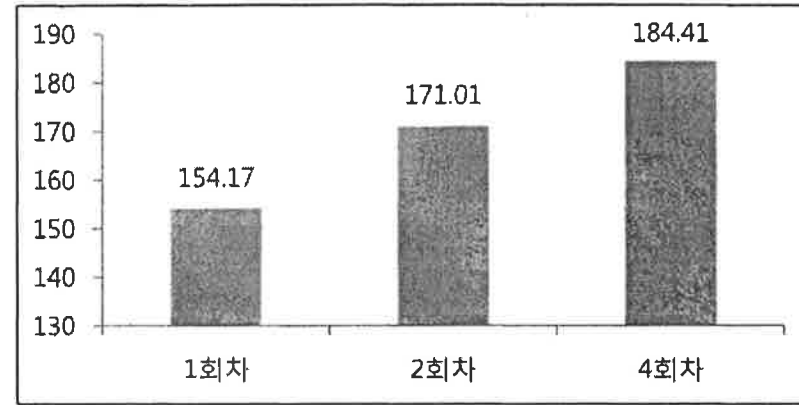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4회차	153	41.5
3회차 이하	146	39.6
5회차 이상	70	19.0
합계	369	100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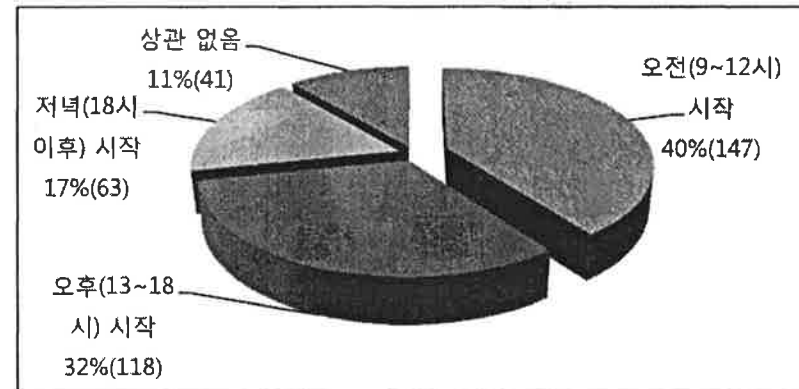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소요시간

구 분	평 균(분)
1회 차	154.17(2.57 시간)
2회 차	171.01(2.85시간)
3회 차	선진지 견학
4회 차	184.41(3.07시간)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시작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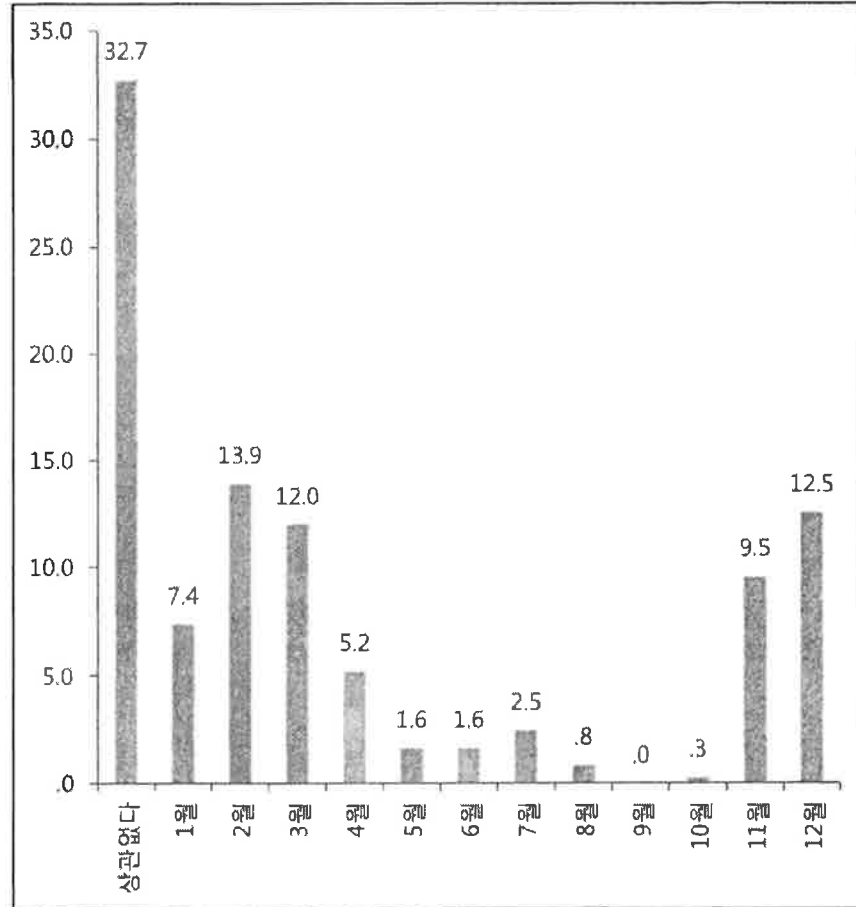
구 분	빈도	퍼센트
오전(9~12시) 시작	150	40.1
오후(13~18시) 시작	119	31.8
저녁(18시 이후) 시작	63	16.8
상관 없음	42	11.2
합계	374	100.0



2. 종합분석 결과 - 마을주민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 농촌현장포럼의 시행의 적정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상관없음	120	32.7
1월	27	7.4
2월	51	13.9
3월	44	12.0
4월	19	5.2
5월	6	1.6
6월	6	1.6
7월	9	2.5
8월	3	.8
9월	0	.0
10월	1	.3
11월	35	9.5
12월	46	12.5
합계	3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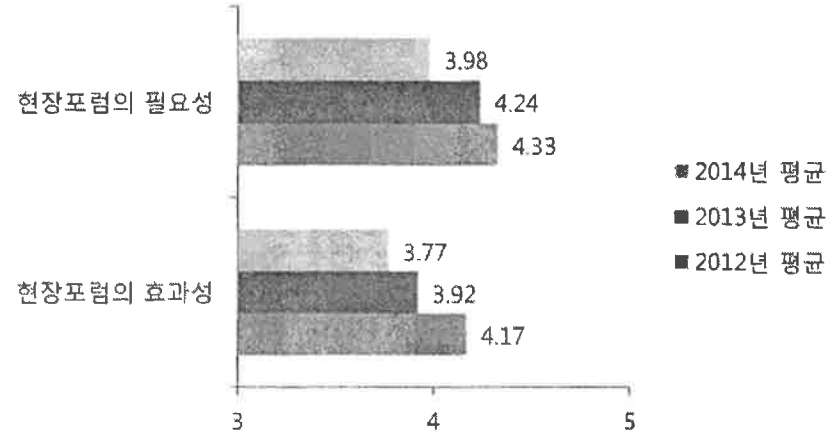
2.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요약 - 마을주민 대상

-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선진지 견학(42.6%)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주민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적정 회차로 4회차(41.5%), 3회차 이하(39.6%)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현재 농촌현장포럼의 개최 회차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회차별 적정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3시간 이내(현행 4시간)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의 주민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너무 오랜 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적정 개최시각은 정오를 중심으로 오전(40.1%), 오후(31.8%)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점심식사 전후로 개최시각을 결정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현장포럼 적정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상관없음(32.7%)이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농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겨울철(11~3월)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55.3%로, 농한기에 개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그러나 공공사업의 특성상 예산집행 시기 등에 있어 현실적인 개최시기와 다소 괴리를 보이고 있음.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종합

• 현장포럼 효과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종합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2012년 평균	4.17	4.33
2013년 평균	3.92	4.24
2014년 평균	3.77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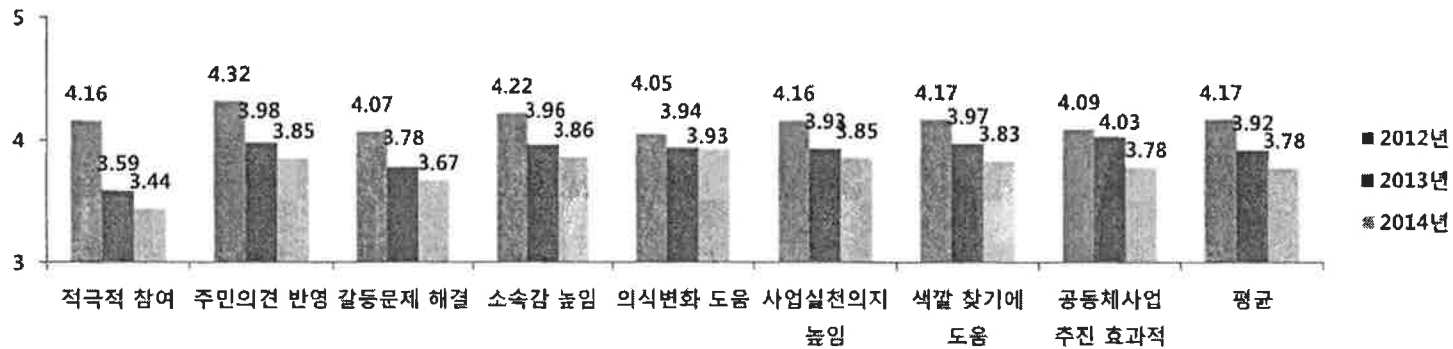
- 3개년 동안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수치와 주관식 문항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종합

•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대상 종합분석

구분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균
	적극적 참여	주민의견 반영	갈등문제 해결	소속감 높임	의식변화 도움	사업실천 의지 높임	색깔 찾기에 도움	공동체사업 추진 효과적	
2012년	4.16	4.32	4.07	4.22	4.05	4.16	4.17	4.09	4.17
2013년	3.59	3.98	3.78	3.96	3.94	3.93	3.97	4.03	3.92
2014년	3.44	3.85	3.67	3.86	3.93	3.85	3.83	3.78	3.78

-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첫 해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보아 현장포럼이 효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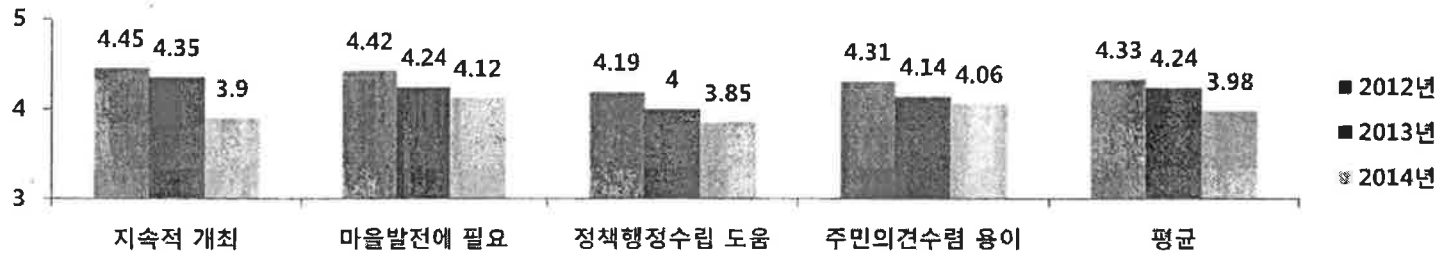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종합

• 현장포럼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대상 종합분석

구분	현장포럼 프로그램의 필요성				
	지속적 개최	마을발전에 필요	정책행정수립 도움	주민의견수렴 용이	평균
2012년 평균	4.45	4.42	4.19	4.31	4.33
2013년 평균	4.35	4.24	4	4.14	4.24
2014년 평균	3.9	4.12	3.85	4.06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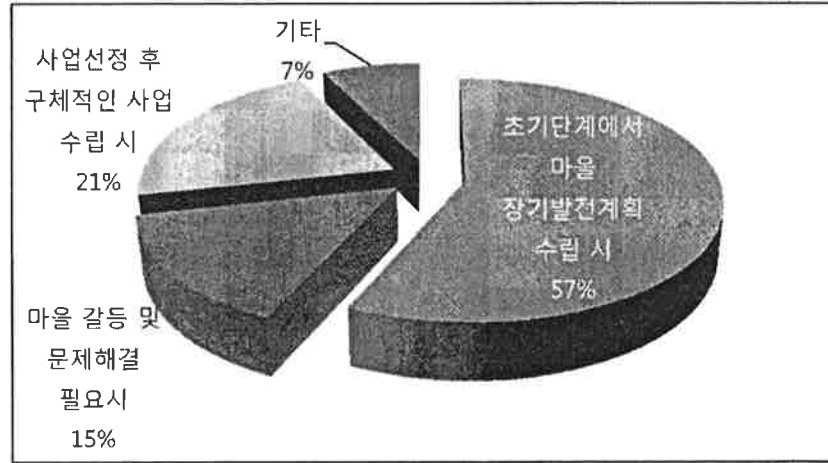
- 현장포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속적 개최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 구성이 상당히 변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컨설팅 업체 응답자 대폭 증가)
- 현장포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전문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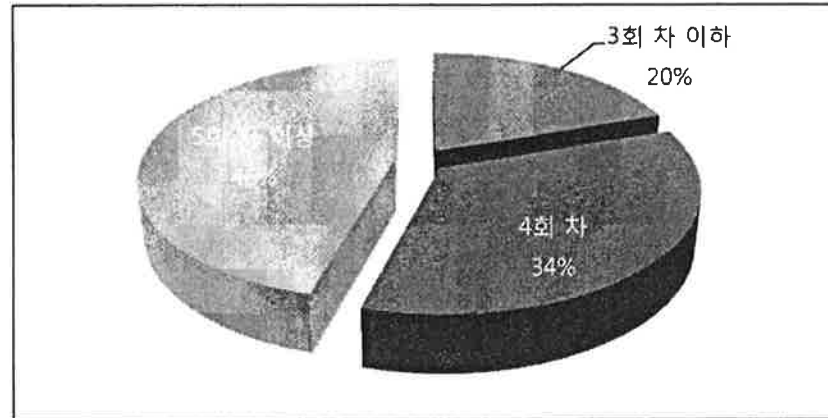
• 가장 도움이 되는 시기

구분	빈도	백분율(%)
초기단계에서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46	56.8
마을 갈등 및 문제해결 필요시	12	14.8
사업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 수립 시	17	21.0
기타	6	7.4
합계	81	100.0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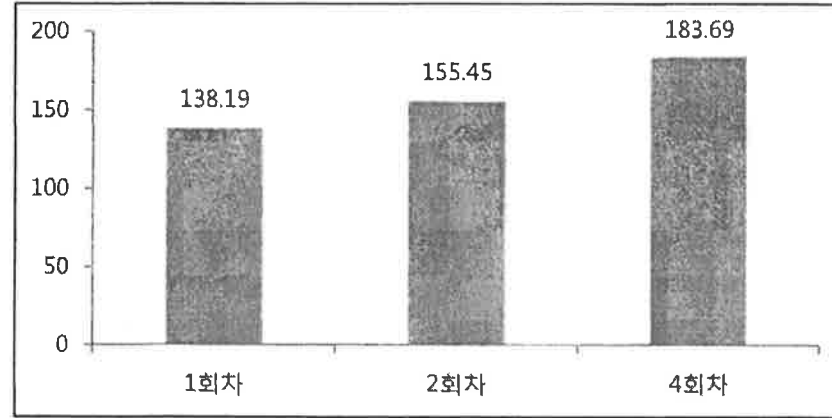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4회차	16	19.8
3회차 이하	28	34.6
5회차 이상	37	45.7
합계	81	100.0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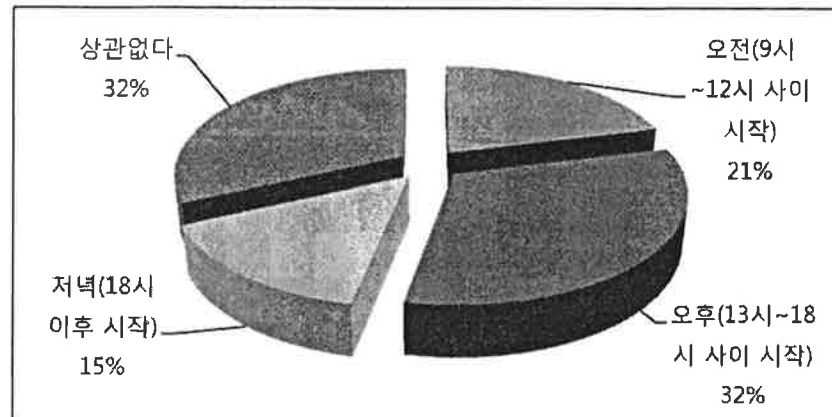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소요시간

구 분	평 균(분)
1회차	138.19(2.3시간)
2회차	155.45(2.59시간)
3회차	선진지 견학
4회차	183.69(3.06시간)



• 농촌현장포럼의 적정 시작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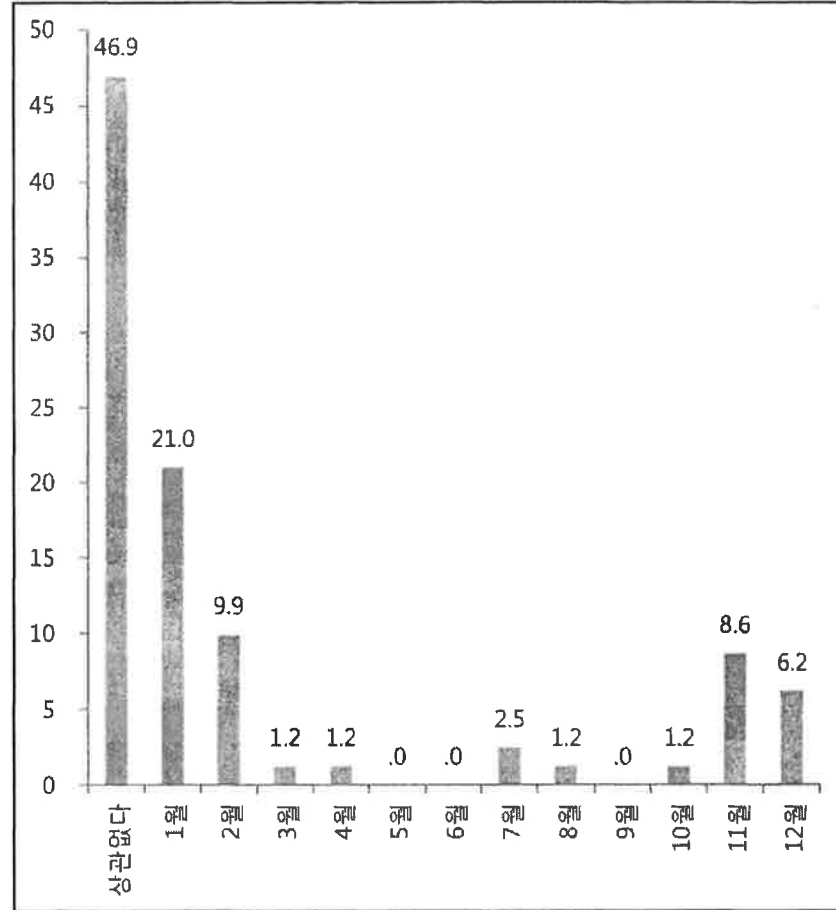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비율(%)
오전(9~12시) 시작	17	21.0
오후(13~18시) 시작	26	32.1
저녁(18시 이후) 시작	12	14.8
상관없음	26	32.1



2. 종합분석 결과 - 전문가 대상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 농촌현장포럼의 시행의 적정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상관없음	38	46.9
1월	17	21.0
2월	8	9.9
3월	1	1.2
4월	1	1.2
5월	0	.0
6월	0	.0
7월	2	2.5
8월	1	1.2
9월	0	.0
10월	1	1.2
11월	7	8.6
12월	5	6.2
합계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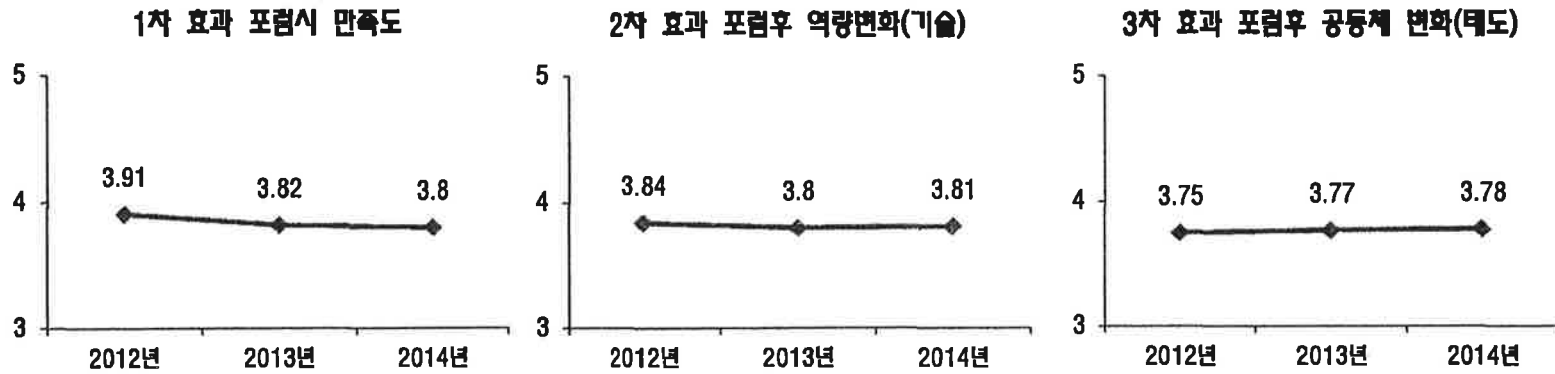


2.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요약 - 전문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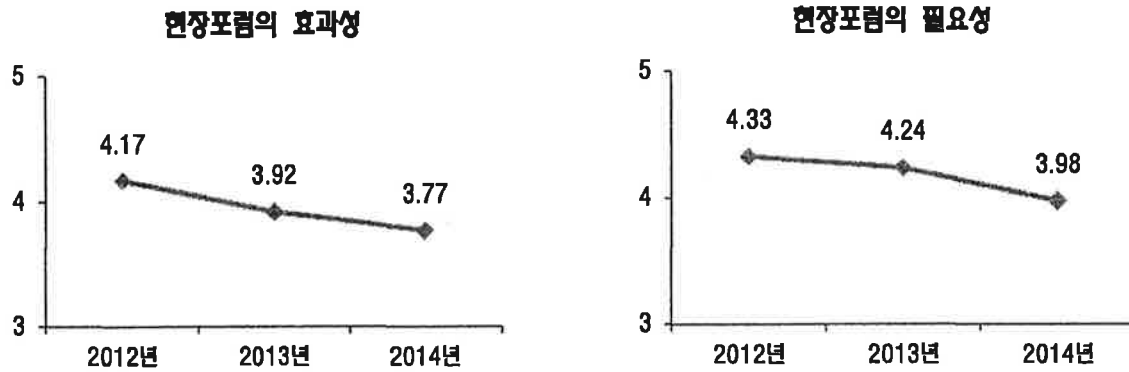
- 현장포럼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은 초기단계에서 장기마을발전계획을 수립(56.8%)시 농촌현장 포럼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전문가 집단에서는 적정 회차에 대해 5회차 이상(4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마을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음. 전문가들은 마을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들 또한 전체 회차별로 3시간 내외를 적정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4회차(183.69 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심도 있고 구체적인 토론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적정개최 시간으로는 오후(32.1%)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문가들의 이동 시간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 적정개최 시기의 경우 전문가들은 상관 없다(46.9%)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또한 마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농한기(11~3월)에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도 46.9%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3.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분석

- 3개년 현장포럼 분석결과 비교(주민)



- 3개년 현장포럼 분석결과 비교(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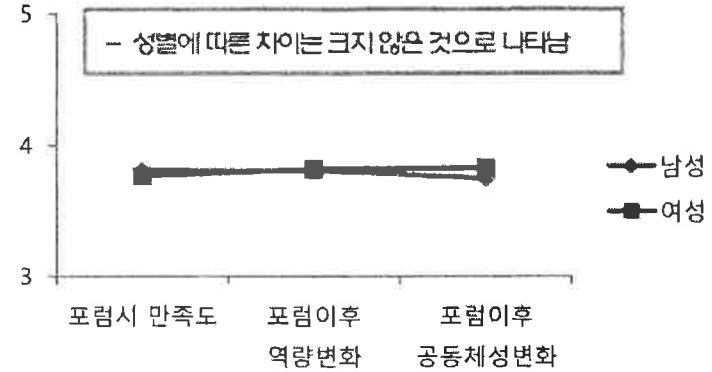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 일반주민 대상 -

여백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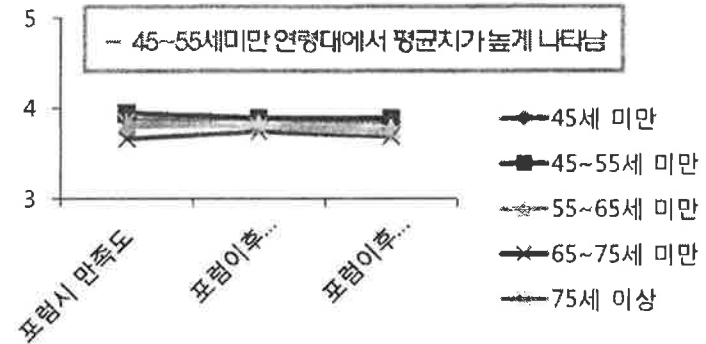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남성	251	3.81	3.81	3.75	3.79
여성	123	3.77	3.82	3.83	3.81
합계	374	3.79	3.82	3.79	3.80



• 연령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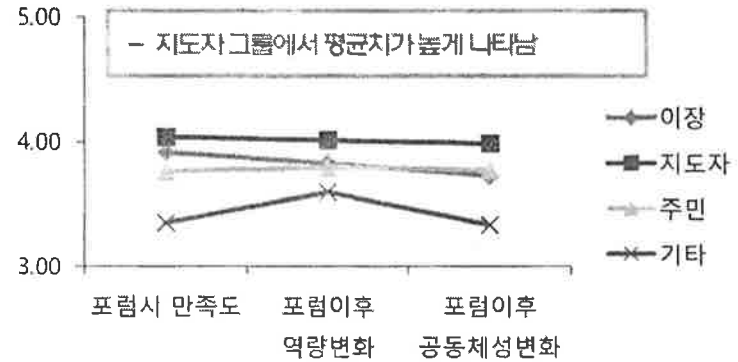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45세 미만	24	3.87	3.89	3.85	3.87
45~55세 미만	72	3.95	3.89	3.89	3.91
55~65세 미만	160	3.80	3.82	3.78	3.80
65~75세 미만	93	3.66	3.74	3.69	3.70
75세 이상	25	3.85	3.80	3.72	3.79
합계	374	3.82	3.83	3.78	3.81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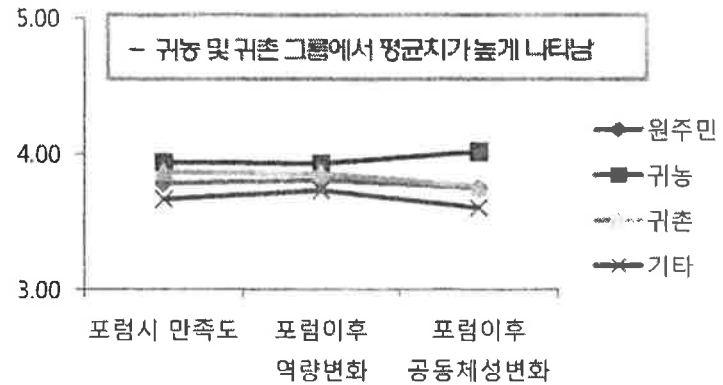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이장	52	3.92	3.83	3.73	3.83
지도자	58	4.04	4.01	3.99	4.01
주민	246	3.77	3.80	3.78	3.78
기타	18	3.35	3.60	3.34	3.43
합계	374	3.77	3.81	3.71	3.76



• 정착기간에 따른 전체 종합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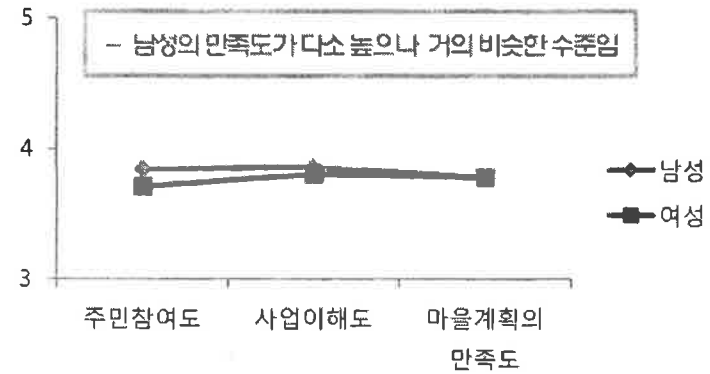
구분	N	포럼시 만족도	포럼이후 역량변화	포럼이후 공동체성변화	평균
원주민	279	3.78	3.81	3.75	3.78
귀농	46	3.94	3.93	4.02	3.96
귀촌	43	3.87	3.85	3.76	3.83
기타	6	3.67	3.73	3.60	3.67
합계	374	3.81	3.83	3.78	3.81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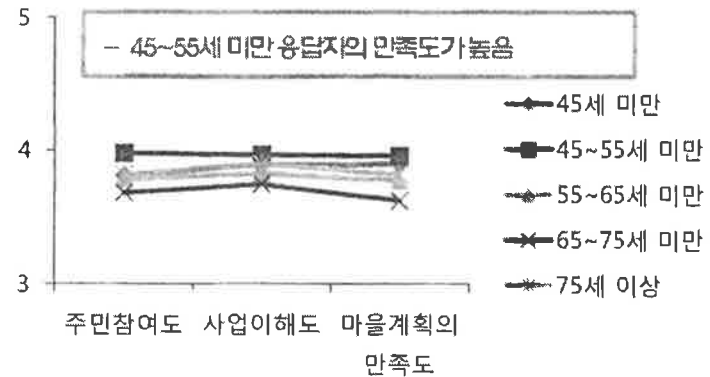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남성	251	3.84	3.86	3.78	3.83
여성	123	3.72	3.81	3.78	3.77
합계	374	3.80	3.84	3.78	3.81



•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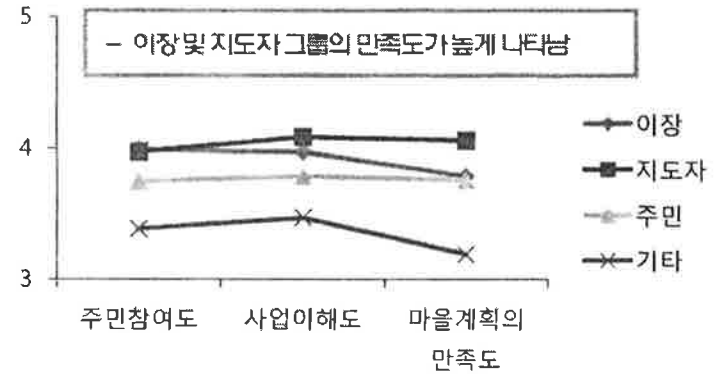
구분	N	주민참여도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45세 미만	24	3.813	3.896	3.896	3.868
45~55세 미만	72	3.979	3.965	3.958	3.968
55~65세 미만	160	3.784	3.828	3.775	3.796
65~75세 미만	93	3.683	3.747	3.624	3.685
75세 이상	25	3.820	3.900	3.820	3.847
합계	374	3.801	3.844	3.783	3.809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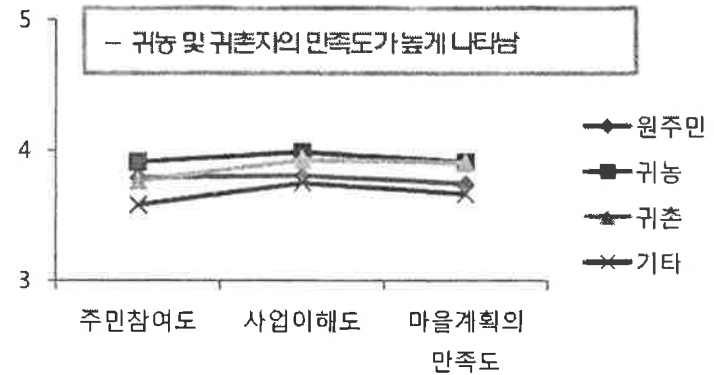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주민 참여도	사업 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이장	52	3.99	3.97	3.79	3.92
지도자	58	3.97	4.09	4.06	4.04
주민	246	3.75	3.79	3.76	3.77
기타	18	3.39	3.47	3.19	3.35
합계	374	3.80	3.84	3.78	3.81



• 정착기간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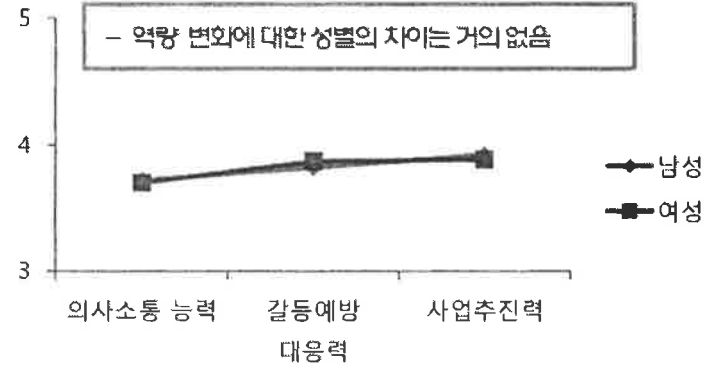
구분	N	주민 참여도	사업 이해도	마을계획의 만족도	평균
원주민	279	3.79	3.81	3.75	3.78
귀농	46	3.91	3.99	3.91	3.94
귀촌	43	3.77	3.93	3.91	3.87
기타	6	3.58	3.75	3.67	3.67
합계	374	3.58	3.75	3.67	3.67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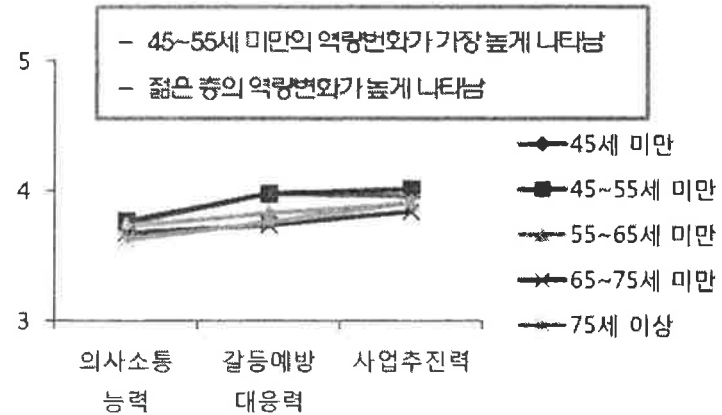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추진력	평균
남성	249	3.72	3.82	3.93	3.83
여성	123	3.70	3.87	3.89	3.82
합계	372	3.72	3.84	3.91	3.82



•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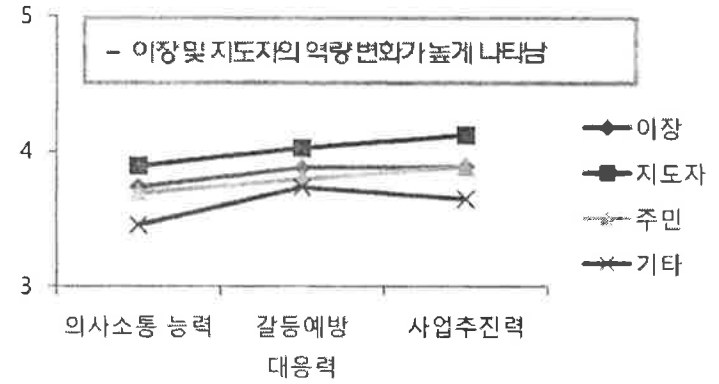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추진력	평균
45세 미만	24	3.75	3.98	3.96	3.90
45~55세 미만	72	3.77	3.98	4.01	3.92
55~65세 미만	159	3.73	3.83	3.91	3.82
65~75세 미만	93	3.68	3.74	3.84	3.75
75세 이상	24	3.63	3.76	3.91	3.77
합계	372	3.72	3.84	3.91	3.82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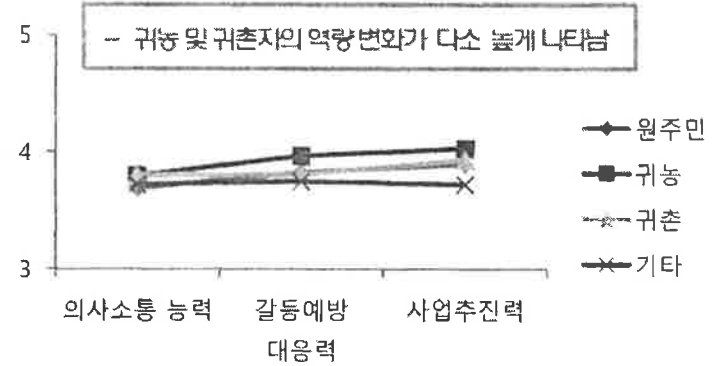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추진력	평균
이장	51	3.74	3.88	3.89	3.84
지도자	57	3.89	4.03	4.12	4.01
주민	245	3.69	3.80	3.89	3.79
기타	19	3.46	3.74	3.65	3.61
합계	372	3.72	3.84	3.91	3.82



• 정착기간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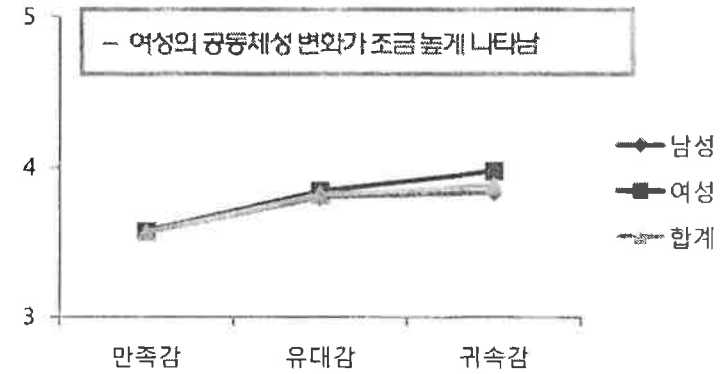
구분	N	의사소통 능력	갈등예방 대응력	사업추진력	평균
원주민	277	3.69	3.83	3.90	3.81
귀농	45	3.80	3.97	4.03	3.93
귀촌	44	3.80	3.81	3.93	3.85
기타	6	3.72	3.75	3.72	3.73
합계	372	3.72	3.84	3.91	3.82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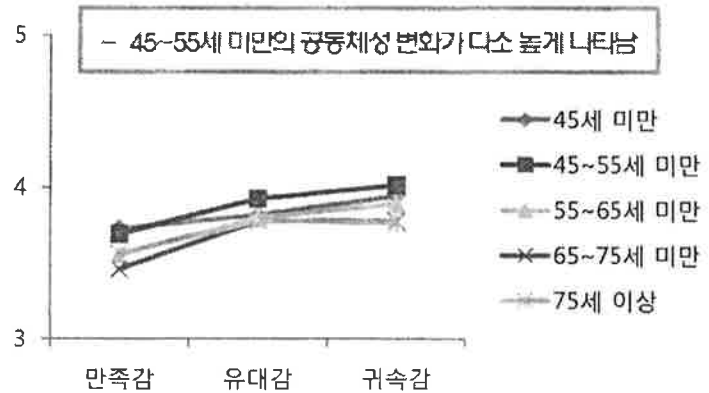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만족감	유대감	귀속감	평균
남성	247	3.57	3.81	3.84	3.74
여성	123	3.58	3.85	3.98	3.80
합계	370	3.57	3.82	3.88	3.76



•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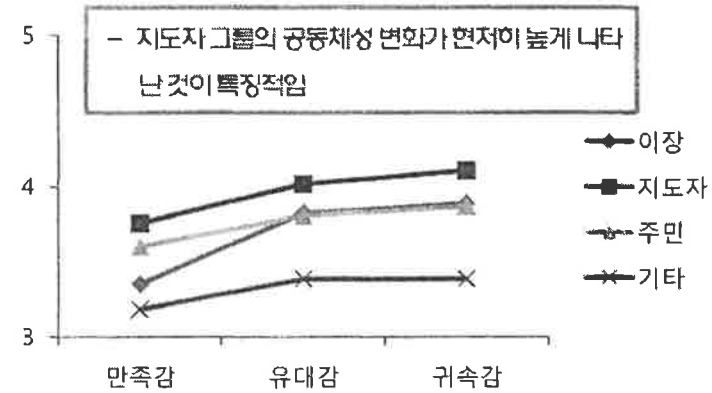
구분	N	만족감	유대감	귀속감	평균
45세 미만	24	3.73	3.82	3.94	3.83
45~55세 미만	72	3.69	3.93	4.01	3.88
55~65세 미만	158	3.56	3.80	3.89	3.75
65~75세 미만	93	3.46	3.78	3.78	3.67
75세 이상	23	3.57	3.78	3.77	3.71
합계	370	3.57	3.82	3.88	3.76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성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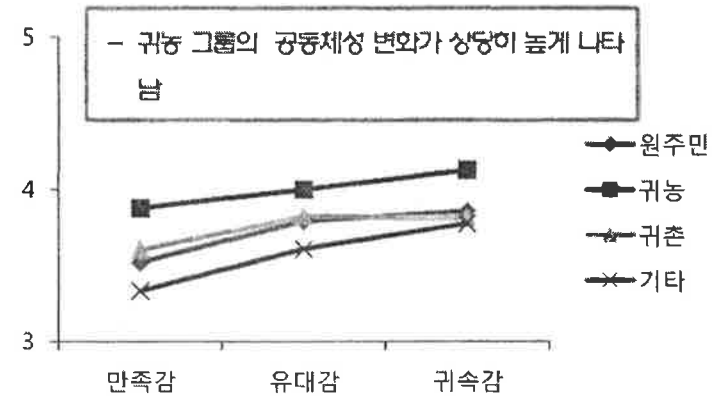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만족감	유대감	귀속감	평균
이장	51	3.35	3.82	3.89	3.69
지도자	56	3.76	4.02	4.11	3.96
주민	244	3.60	3.81	3.87	3.76
기타	19	3.18	3.39	3.39	3.32
합계	370	3.57	3.82	3.88	3.76



• 정착기간에 따른 비교분석

구분	N	만족감	유대감	귀속감	평균
원주민	275	3.52	3.79	3.86	3.72
귀농	45	3.88	4.00	4.13	4.00
귀촌	44	3.60	3.83	3.81	3.75
기타	6	3.33	3.61	3.78	3.57
합계	370	3.57	3.82	3.88	3.76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 전문가 대상 -

백 영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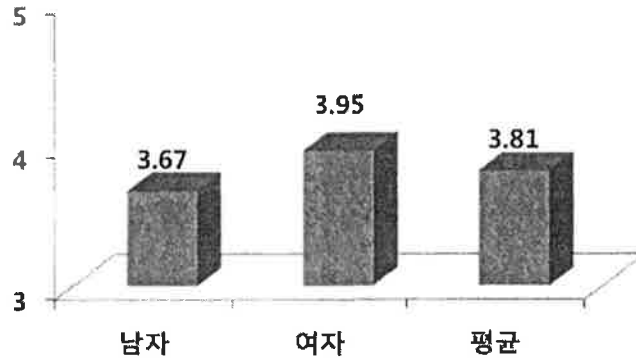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남자	3.67	3.89
여자	3.95	4.14
평균	3.81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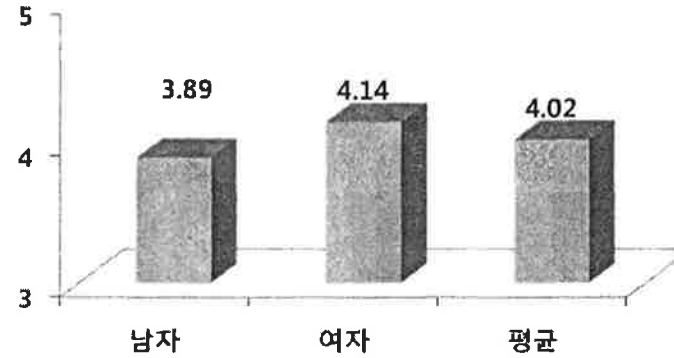


-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필요성에 있어서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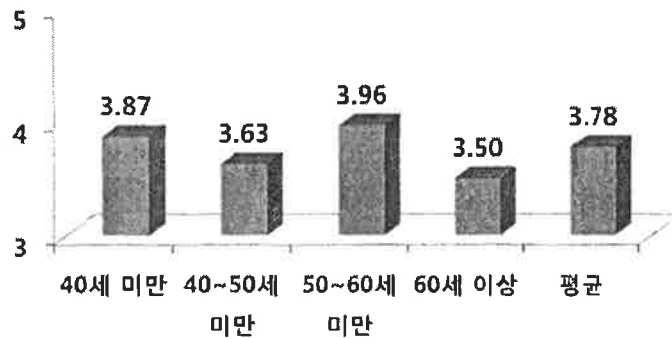
통계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 연령에 따른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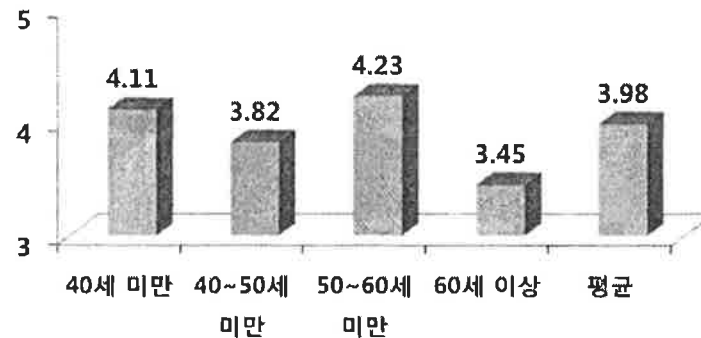
구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40세 미만	3.87	4.11
40~50세 미만	3.63	3.82
50~60세 미만	3.96	4.23
60세 이상	3.50	3.45
평균	3.78	3.98

-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40세 미만의 젊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남
- 또한, 50~60세 미만의 연령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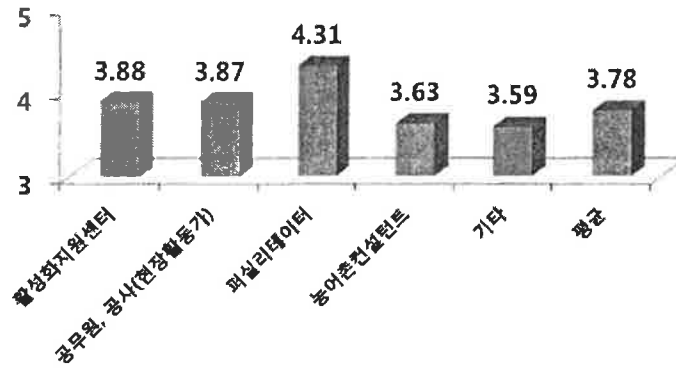
• 역할에 따른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 분석

구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활성화지원센터	3.88	4.38
공무원, 공사 (현장활동가)	3.87	4.16
퍼실리테이터	4.31	4.62
농어촌컨설턴트	3.63	4.06
기타	3.59	3.66
평균	3.78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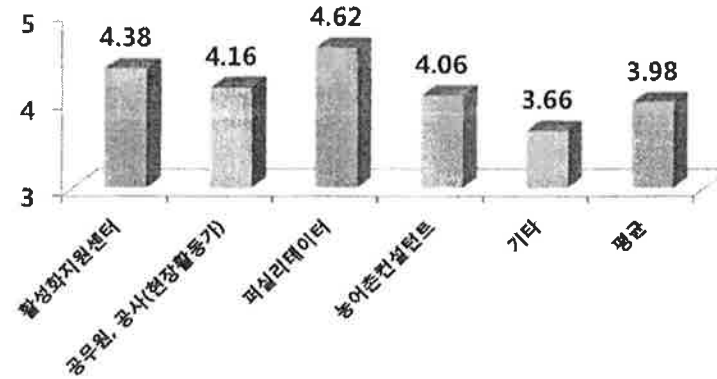


- 퍼실리테이터 그룹의 효과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나머지 그룹은 필요성을 인식하나 효과성은 필요성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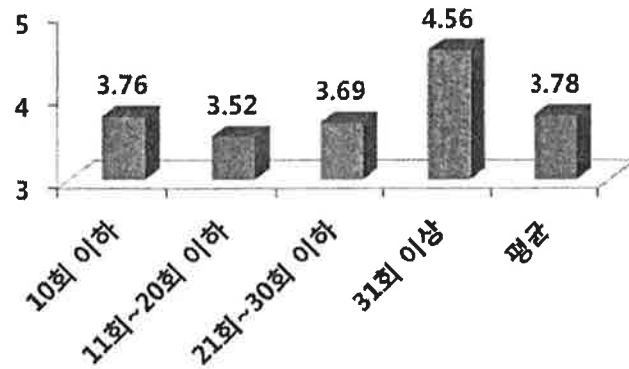
일반특성에 따른 종합비교 분석

• 참여횟수에 따른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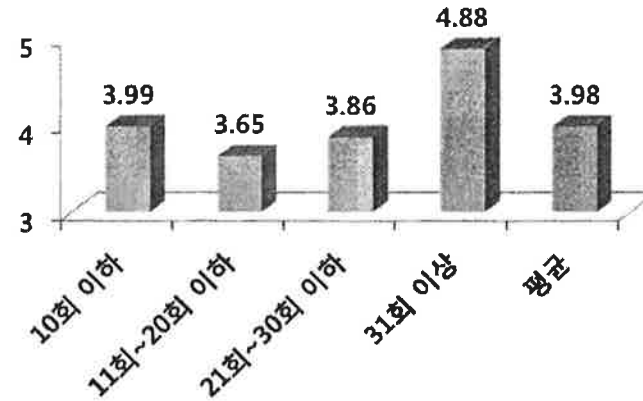
구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10회 이하	3.76	3.99
11회~20회 이하	3.52	3.65
21회~30회 이하	3.69	3.86
31회 이상	4.56	4.88
평균	3.78	3.98

▪ 현장포럼에 핵심적으로 다수 참여한 그룹이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나머지 그룹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현장포럼의 효과성



현장포럼의 필요성



4. 요약 및 총평

- 농촌현장포럼은 마을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1,2,3차 효과를 비롯한 모든 요소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남(26P).
- 단계별 효과를 종합하였을 때는 3개년 간 큰 변화가 없음. 3개년 동안 현장포럼의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포럼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음(26P).
- 현장포럼 진행 시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도와, 사업이해도, 마을계획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3개년 동안 평균적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27P).
- 현장포럼 이후 역량 변화에 있어 특히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높아졌다는 점과, 전문가와의 교류, 방문객에 대한 응대력이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적임(28P).
- 현장포럼 이후 공동체 변화에 있어서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3차 효과 부분은 3개년 동안 효과가 상승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29P).
- 전반적으로 현장포럼은 일반 주민보다는 지도자 그룹에서, 고령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원주민 보다는 귀농 및 귀촌 그룹에서 효과가 높음(43-44P). 이를 통해 교육수준이나 기본역량이 높을수록 현장포럼의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4. 요약 및 총평

- 일반주민 보다는 전문가 그룹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35-36P). 이는 설문 대상자 중 민간 컨설팅 기관의 응답자가 많았던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농촌현장포럼에 대해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효과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나 3개년도 평균은 다소 하락함. 하지만 농촌현장포럼이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35P).
- 농촌현장포럼 필요성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3개년도 평균치는 다소 하락함(35P).
- 관련 전문가들이 3년에 걸친 경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에 따른 장단점을 공감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음(35-36P).
-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현장포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경계해야 함 부분임.
- 현장포럼 실시 마을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이해당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퍼실리테이터와 농어촌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추후에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파급효과가 청년 실업계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함.

4. 요약 및 총평

-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53P). 또한 퍼실리테이터 그룹에서 인식하고 있는 긍정적 응답이 매우 높음(54P). 그리고 현장포럼에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55P).
- 현장포럼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 그러나 현장포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을여건이나 주민역량에 따라 현장포럼이 나타내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있으나 현장포럼이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역량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라 할 수 있음.
- 현장포럼 사업은 이제 양보다는 내실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시기라고 사료됨.
- 따라서 모든 관련분야 구성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백 영

Ⅲ. 농촌현장포럼 우수사례

백 영

경기도

양평군
숲속의
명품마을

**빛이 있는 마을에서 잔고있는 마을로 변하다!
새롭게 태어난 숲속의 명품마을**

마을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숲속의 명품마을)
인 구 수 : 105가구 245명(남123명, 여 122명)
마을자원 : 쌀, 수박, 동글레, 딸기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소통을 위한 신규 조직 구성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환경미화 주민 자발적 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및 운영조직 활성화(마을부채 전액 상환)

가현리는 2013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정되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체험관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리모델링한 마을회관에서는 식당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레저사업 수익금을 지원받아 2013년 7월 5일 청운오토캠핑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청운오토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주민 35명이 청운오토캠핑장 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직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캠핑장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은 점점 확대되었으며 아울러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도맡아 진행하던 사무장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어 사퇴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현리는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해 양평군의 현장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포럼 진행 초기의 경우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어려웠으나, 주민들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포럼 진행결과 지금까지의 운영조직과 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마을주민간의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자체적인 잔치 및 축제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를 전액 상환하여 새롭게 태어난 숲속의 명품마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잔3리마을

희망 꽃 피는 무병장수 고잔3리 마을”

마을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3리
인구수 : 78가구 166명
마을자원 : 쌀, 노각오이 등, 신숙주 사당

농촌현장포럼성과

마을 주민의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게 됨
쉼터, 일터, 삶터 조성 등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및 운영조직 활성화(마을부채 전액 상환)

고잔3리 마을은 신숙주사당이 있는 고령 신씨 집성촌으로 65세 이상이 62%인 고령화 마을로 주업이 농업인 마을로 소득수준이 낮고 의욕과 희망이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적으로도 매우 소외된 마을이었음. 마을 주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형성을 원하고 있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법이나 수단을 몰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음. 고잔3리 주민들은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고잔3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후손에게 물려주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한번씩 모여 회의를 하는 등 새로운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음

구체적인 마을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쉼터조성(생태환경 개선사업)사업으로 마을 꽃길 가꾸기, 마을우물복원, 산책로 조성 등을 시작하였으며, 일터조성(경제소득 창출사업)사업으로는 빈집 리모델링하기, 마을 체험장 조성, 논 쉼매장 조성 및 먹거리 개발, 체험교실 운영, 농산물 공동 판매대 설치를 하고 있음. 또한 삶터 조성(기초생활터 조성)사업으로는 노래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등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준비, 기타 선진마을 벤치마킹, 마을홍보준비, 운동 시설 설치, 마을방송시설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음. 그 무엇보다 마을 주민 스스로 먹거리와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강원도

횡성군 살구마을

등골 빠진 옛 산골 마을이 살구나무로 다시 태어나다! 살구 싶은 살구마을, 우용리!

마을위치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2리
인 구 수 : 29가구 81명(남 43명, 여 38명)
마을자원 : 양상추, 브로콜리, 감자, 옥수수, 곰취, 배추 등
※ 양상추는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

농촌현장포럼성과

등골 빠지게 힘들고 가난했던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남

살구나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살구 싶은 마을로 변신

주민 자발적으로 2년 연속 농촌현장포럼을 신청진행하여 성과 현실화

동쪽으로 웰리힐리조트 스키장(구, 현대성우리조트)과 골프장이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인 우용리는 2개 자연부락(문탄, 광탄)과 2개의 골(호뫼골, 등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글을 잘하는 선비가 많아 문탄이라고 하였고, 호랑이가 많아 개를 밧으로 놓아 호랑이를 잡았던 골이라하여 호뫼골이라고 할 만큼 산골이었습니다. 골자기 이름이 등골인 우용리는 70년대 10여호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 많아 경작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농지가 부족했던 마을주민은 화전을 일구어 생산된 곡물의 일정량을 산주에게 도지로 주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등골은 모든 농작업을 쇠스랑과 곡괭이와 호미로 경작했고, 유일한 운반수단은 지게였습니다. 대부분이 비탈길이라 한번 오르면 등골이 빠진다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등골이라 부르게 되었고, 70년대 중반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으로 골짜기 주민 모두가 화전정리 사업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었던 마을의 리더와 주민들은 그동안 현장포럼과 교육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위하여, 2013년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2013년, 2014년 두차례의 현장포럼을 통해 공동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한 고민을 해소하였으며, 주민들 스스로 살구 싶은 살구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들은 다함께, 2013년 500그루와 2014년 500그루의 살구나무를 추가로 심어, 이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살구마을을 만들어가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햇살마을

갈등과 좌절을 딛고, 하나되어 다시 날아오르다!
구상나무 숲 향기나는 햇살마을

마을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인 구 수 : 47가구 89명(남 52명, 여 37명)
마을자원 : 구상나무 가공품, 산야초 발효효소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과거 마을발전과정에서의 혼란과 분열, 농촌현장포럼 통해 갈등 해소
구상나무 가공과 산야초 효소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산촌마을로 발전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확대를 바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햇살마을은 2004~2006년까지 인제군 장묘센터 유치를 기점으로 마을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찬성 측과 환경파괴 및 혐오 시설 유치라는 반대쪽으로 마을주민 의견이 분열되어, 마을이 황폐화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던 마을이었다. 이후 장묘센터 유치쪽으로 주민의견을 모아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마을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농촌현장포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이전의 갈등을 겪었던 마음속의 앙금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었고, 다양한 마을 공동사업과 도농교류 추진을 통해서 활력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농촌현장포럼을 통해서 마을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농촌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는 고객 유형 및 기간별 농촌체험 프로그램 메뉴얼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단합된 주민 화합을 기반으로 강원도의 시책사업인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에서 15개마을 중 1위의 성적을 달성하였다. 현재는 발효효소 힐링센터, 햇살채움관, 발효효소 가공공장을 기반으로 농촌 관광을 선도하고 있으며, 구상나무 가공산업과 산야초 발효효소 사업, 산야초 효소 축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산림 특화 재배단지 등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및 지구 조성사업 유치를 통해 선진 우수 농촌마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증평군
통미마을

건강백세, 통미마을
현장포럼으로 행복을 찾다!

마을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2리
인 구 수 : 42가구 87명(남43명, 여 44명)
마을자원 : 쌀, 과수, 한우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마을 경관 개선’을 통해 통미마을이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고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행복한 통미마을이 되기 위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2회 연속 농촌현장포럼 신청진행하여 성과를 창출

통미마을은 증평군에서 추진한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통해 건강백세 통미마을이라는 테마로 마을 광장 주변에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통미마을은 증평군에서 축산업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농촌마을로 마을 주거지역 인근에 많은 축사로 인해 악취로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을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증평군에서 작년 말 농촌현장포럼 추진마을 수요조사 당시 바로 신청하여 올해 현장포럼을 1, 2단계 총 8회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포럼 이후 통미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포럼에서 도출된 즉시 추진할 과제 중 하나였던 마을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행복마을 만들기사업과 증평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과 병행하여 통미마을 주민들은 마을 환경개선 및 보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 단합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설문결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용소골분티
마을

**청주시 꼬트머리, 사과나무 가로수가 있는 마을
뭉치는 것 하나는 자신 있다! 용소골-분티 마을**

마을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종암2리
인 구 수 : 30가구 66명(남27명, 여 39명)
마을자원 : 사과, 아로니아, 블루베리, 유기농(한살림납품),
자작나무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모이는 방법을 몰랐던 주민들이 이제는 스스로 뭉쳐서 문화활동 재계
마을 대청소의 날 재정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변신
마을 부녀회와 청년회의 재창립 및 운영활성화로 활력있는 마을로 탈바꿈

용소골 분티 마을은 청주시 미원면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고 조용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지
행이 술을 담는데 쓰는 용소 같다고 하여 용소골 마을과 미원장과 증평장을 오가던 장동뱅이들의 주요통로인 분티재가 있는 분
티 마을이 함께 있는 마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원군이었던 용소골-분티 마을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부분 소외
되어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주민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며
마을을 가꾸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현장포럼의 결과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대청소의 날을 제정하여 매월 15일에 주민모두가 모여 청소를 하고
개인 집 앞 꽃가꾸기를 통해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나마 단절되었던 부녀회와 청년회가 재결성이 되어
마을의 대소사와 굿은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해맞이 합동세배 및 민속놀이 한마당 잔치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새해맞이를 함으로써 가족 같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모이는 방법과 행동하는 방법
을 몰랐던 주민들은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모여서 가족같이 지내고 하나가 되어 마을을 가꾸고자 재 다짐하여 최고의 마을로 만
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조정리
약초마을

외부 위협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화합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건강마을 조정리

마을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조정리
인구 수 : 85가구 120명
마을자원 : 약초(우슬, 황기 등), 황골저수지, 조정천, 사과밭, 공동창고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추진력 : 한 목소리 한 마음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행 동 : 우리부터 자발적으로 마을경관(환경) 가꾸다
자신감 : 우리 마을 발전 원동력은 우리 모두이다

'산과 들에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많이 서식한다'하여 조정리라 불리는 우리 마을은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에서도 약초의 원조 격인 마을로 약초 생산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정리에 위치한 화학약품을 다루는 회사의 반복되는 불산 누출 사고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산 누출 불안감에 휩싸인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한 목소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였고, 주민단결과 현장포럼 교육을 통해 "하나"의 중요성 인식하여 마을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현장포럼에는 마을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본 마을 주민의 에어컨 기증을 통해 마을의 훈훈한 정을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약초가공을 통한 마을 소득 활성화사업에 앞서 '건강한 조정리' 마을 브랜드 확립을 위한 마을 경관 가꾸기에 마을 주민들이 뜻을 함께 하였고 이에 2주에 한 번씩 주민 모두가 참여, 마을 클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스스로 마을 공동시설인 주차장 광장과 깻잎 집하장 주변에 화단을 조성, 꽃을 식재하였고, 올 추석 명절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조정천 준설 및 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 발전 원동력은 주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미래를 위해 주민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발전 추진력을 현장포럼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주민 & 마을 환경(경관)"이 건강한 조정리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으로 무장한 조정리 마을 주민들은 현재 자신감과 의욕에 차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먹방마을

꿈이 사람을 만나 숲이 되는 먹방마을

마을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4리
인 구 수 : 83가구 194명
마을자원 : 표고버섯, 취나물, 고사리, 고로쇠, 산양삼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우리 마을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하여 마을 발전의 전환점 마련
폐광산을 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
마을기업을 통한 일하는 공동체 활동 시작

2005년 석탄합리화 조치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성주4리 작목반으로 출발하여 2013년 꿈이 있는 먹방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을기업 설립하면서, 노인과 석탄광산에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함께 일하는 공동체 활동 시작하였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현황을 분석하여 마을개발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4년 희망마을 마을학교에 참여하여 마을리더와 주민들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색깔있는 마을 농촌현장포럼에 참여하여 마을의 미래모습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먹방마을은 40년간 수많은 광산들이 산재했던 곳으로 보령시 지역경제의 큰 몫을 담당해왔지만 이곳적속 불품없이 파헤쳐진 산자락에 검은 폐석들을 널려 놓은 채 역사의 한 장으로 묻혀가고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마을을 지키고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깨끗한 마을가꾸기 활동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였다. 먹방마을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도유림을 이용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표고모욕 준비, 종균집중, 수확, 판매 등 전 과정을 마을 내 자원과 역량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부분은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이처럼 작목반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마을공동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복원을 위해 마을학교 참여, 현장포럼 운영 등 역량강화를 선행하였다. 그리고 큰 소득보다는 작은 소득이지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다. 버려진 폐광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탈바꿈한 원동력은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주민들을 결집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두원마을

찬물내기로 해묵은 갈등을 씻어낸다

마을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두원마을
 인 구 수 : 30가구 40명(남18명, 여 22명)
 마을자원 : 성수산, 두원천, 태고정(정자), 노거수, 두원공소, 찬물내기(샘),
 여시골, 서낭거리. 농작물 : 사과, 배추, 고추, 사과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6.25때부터 내재되어 있던 마을 내부 갈등(원주민 간 갈등,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결하고 농악 마을축제 등의 전통을 복원하고, 2015년 창조적 마을만들기(경제 사업 분야)에 선정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모함.

진안군 백운면 두원마을은 성수산이 남으로 뻗어내린 두 줄기가 마을을 감싸안고 있는 마을이다. 백제시대에 진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진안,장수,임실 3개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삼원이라고 불리다가 두원으로 개칭된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 포마을은 1930~1970년대까지 삿갓쟁이, 양복쟁이, 대장장이, 임진왜란 때는 5만명이 피신하였으나 지나



가던 왜적이 발견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산속마을이고 6.25당시는 좌우익으로 갈라져서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심했던 마을이다. 농어촌 포럼을 계기로 해묵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을 농악단 구성, 당산제를 복원하는 축제를 실시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분야에 선정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궁지호박마을

마음의 담이 없는 “정겨움이 가득한 궁지호박마을”
노동의 슬픔을 노동요로 이어온 마을

마을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인 구 수 : 20가구 41명(남 15명, 여 26명)
마을자원 : 쌀, 호박, 대파, 고추, 매실, 싹채소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문화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공동체문화활동의 부활

궁지마을의 비전 “정겨움이 가득한 궁지호박마을”과 궁지마을만의 특색있는 색깔 도출

참여가능한 주민 100%가 참여한 우수한 현장포럼을 통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실현 기반 구축

궁지마을은 마을형태가 활을 닮고 동네 앞에 구수못이 있어서 궁지(弓池)라 불렸고,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으로 노동에 삶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을 달래고자 노동요가 발달했었던 마을입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쳐 담이 없는 마을로 칭송 받았고 지금도 늘 다른 주민들을 위해 텃밭에 싹채소를 더 많이 심어 언제 누구든 허락 없이 캐어다 먹는 정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이런 정겨움을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궁지마을만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의 가치와 공동체활성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여 다시 노동요가 부활하였고, 공동체활동인 두레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감을 실감하는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전통 노동요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여 두레민요단을 창단하고 올해 5월 9일 마을축제를 열어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출향인 및 인근 주민들과 화합을 다지는 등 노력을 꺾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환경정비 및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소득사업을 위한 민박사업, 체험교실운영 및 마을생산자원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사업을 시작하여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12월에는 체험장신축을 위한 토지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주민들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동해마을

아삭아삭 건강한 소리가 익어가는
“해남 김치마을”

마을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동해리
인 구 수 : 114명 57가구(귀농/귀촌 : 24가구)
마을자원 : 쌀, 배추

농촌현장포럼성과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더욱 높아졌으며,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고 세대 간 상호 역할 지원과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마을공동 회의가 진행되고, 동해마을이 진행해왔고,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해마을의 여건 및 자원현황

해남읍에서 25km정도 떨어진 동해마을은 대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전통 돌담길, 오염되지 않은 바다, 넓은 들판, 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공룡그림이 있는 저수지까지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런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진행중이며, 원주민과 다양한 재능을 지닌 귀농귀촌인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해마을의 우수성가 차별성

동해마을은 팜 스테이 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휴양마을, 행복마을 등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해오면서,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체험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주민들의 역량과, 마을에 대한 발전의지가 더욱 높아 졌으며,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험마을,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우메기마을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하며 협동을 통해
풍년을 기원하는 살아있는 노동요 “들소리마을”

마을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들소리마을
인 구 수 : 201명 80가구(귀농/귀촌 : 2가구)
마을자원 : 쌀, 전작분야

농촌현장포럼성과

‘들소리 문화자산 유지’를 위해 여러 노력들로 이루어져오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문화의 계승 발전에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특색있는 문화보존마을로 이어가는 밑거름으로 농촌현장포럼 진행으로 성과 극대화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통적으로 들일을 할 때면 항상 들소리가 함께했습니다. 노래로 모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들노래가 갖는 민속적 의미처럼 백중놀이의 핵심은 들소리입니다. 들소리마을에는 태어난 이래 한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전형적인 토박이 선소리꾼 홍승동(남,90세)씨를 비롯해 마을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우봉리 들소리마을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인 ‘우봉리 들소리’를 전승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민모두 주도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들소리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7월 15일 백중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 백중놀이를 연행하고 화순군 풍류 문화 큰잔치에 춘양면을 대표로 출전하여 풍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제35회 전남 민속 예술 축제[남도 문화제]에 화순군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3년 8월 5일 전라남도 무형 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는 등 현재 명실공히 전남을 대표하는 민속 예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민들은 하나같이 노래 실력도 뛰어나고 전통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복호마을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젊은이가 찾아오는 행복한
살터, 쉼터, 일터!
품앗이공동체 복호마을**

마을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복호마을
인구수 : 32 가구 57 명(남 22 명, 여 35 명)
마을자원 : 천마, 돼지감자, 찹, 고구마, 콩, 깨, 산야초, 사과,
복숭아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마을주민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포기와 낙후된 인프라로 주민이농 문제가 앞으로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우리 마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성격의 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주민교육의 일환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여 성과 극대화 함

복호마을의 지명유래는 마을 앞산의 산세가 호랑이가 누워 있는 형상과 같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으며 1890년 동학 2대교주 최시형이 마을에 칩거하며 '내척', '내수도문'을 완성한 역사적 장소이며 현재도 천도교기념관이 존립되어 있고 각종 문화유산(성황당, 연안이씨 제실)과 자연자원(소나무숲, 산약초군락지, 우물, 낚시터, 저수지)은 마을주민들의 살터, 쉼터, 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을 농지로 개간, 영농해야 하는 어려운 농사기반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품앗이문화가 남아있어 지금은 두레농장개념의 공동농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원과 문화는 농촌현장포럼과 같은 주민의식변화 과정과 함께 앞으로 마을공동체 완성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을리더와 활동가는 가장 먼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마을만들기의 핵심주체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법인에서는 주민들에게 선진지견학(제주거문오름마을, 가나체험마을)과 농산물가공체험실습(김장체험, 된장체험, 발효효소체험, 두부체험)등을 통해 마을주민의 자심감회복과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체험농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녹색사관학교(숲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행정자치부 주관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공동생산(두레농장), 공동판매(온라인소핑몰), 가공사업(건강채)등 6차산업기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에서는 해마다 대학생캠프를 열어 마을벽화 그리기, 마을잔치, 원예활동, 마을환경개선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에는 농림축산부 주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진입로 공사, 주차장확보, 마을식당, 마을방앗간, 체험시설확충, 산수유나무길 조성 등으로 살터, 쉼터, 일터 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호암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구분없이 살기좋은 마을
현장포럼으로 하나됨을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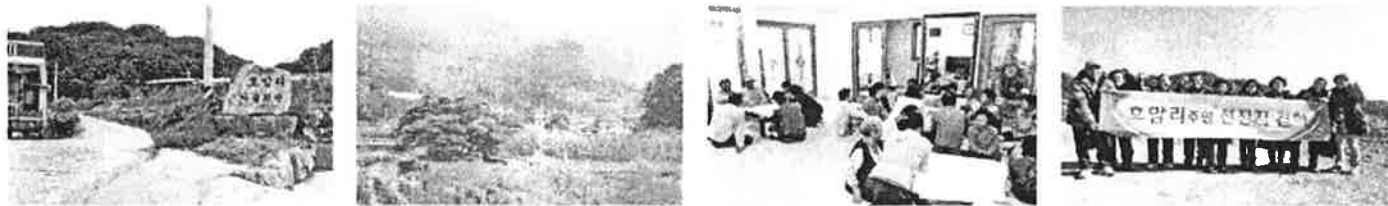
마을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인 구 수 : 35가구 64명(남 28명, 여 36명), 귀농귀촌가구 총 6가구
마을자원 : 사과, 꽃감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호암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마을발전에 대하여 주민 관심과 참여확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 중요성을 깨닫고, 주민 모두의 지속적,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마을발전
희망과 애항심 고취

호암마을은 윗호암과 아랫호암, 불당 등 자연부락 3개로 구성된 마을로 호암마을 주변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산세가 깊
은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주민수가 적고 고령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인구비율이 타 마을에 비해 높으며 마을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장포럼을 통해 윗호암과 아랫호암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을 간
연결하는 둘레길(연결도로)을 조성 하는 등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포럼에 임하였습니다.

호암마을은 타 마을에 비해 귀농귀촌으로 젊은 층이 많은 편이며 주요 특산물인 사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마을로,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인해 활기차고 인정 넘치는 마을입니다. 또한 마을에 거주하시는 두 할머니께서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에 다니시며 늦은 배움을 따뜻하게 독려하는 정다운 마을입니다. 비록 마을사업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마을의 대표자원인 사과
를 활용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우리 마을의 내일을 그리며, 주민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발적인 경비 총당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으며, 하천변 길목에 주민들이 직접 토분포설과 해바라기 식재를 실시
하여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강한 지역개발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마을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문경의 살기좋은 공동체 마을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대현마을

위기를 기회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 10개월 만에 새롭게 변화된 대현마을

마을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대현마을
인 구 수 : 77가구 150명(남67명, 여 83명)
마을자원 : 참포원, 해바라기, 양파, 고추, 폐교, 마을주민모두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주민공동체 형성 주민의지 집결
주민 자발적으로 마을만들기 경험과 자신감 습득 열기고조
마을과 주변자원을 활용 지속가능한 특색있는 체험마을 추진

대현마을은 합천댐 상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과 남상초등학교가 소재하는 등 남상면의 중심 마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1999년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2007년 일반산업단지, 현재 참포원 조성으로 마을의 주요 농경지가 편입되어 농가소득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행정에서 대체소득원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민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현마을의 유무형 자원의 발굴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현장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자원을 이해하고 참포원을 활용한 비전을 설정하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매월 환경정비를 하게 되었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대로변에 영산홍, 꽃잔디, 해바라기와 국화를 주민공동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꽃동산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거창군의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당당히 2등에 선정되어 1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상임대한 1만㎡에 해바라기를 식재, 볼거리 창출과 소득활동 연계, 주민공동작업을 통한 사업비 절감분을 경남 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 조성 재료비 활용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불과 10개월 만에 마을만들기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동체활동을 통해 조성한 마을기금을 건강체조교실 등 주민스스로를 위한 마을만들기에 재투자 하여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한 미래가 있는 대현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마산마을

**청춘포럼(청춘을 GO하다)
들꽃피는 마산마을**

마을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인 구 수 : 52가구 99명(남 40명, 여 59명)- 60대 이상 노인인구 비율 58.6%
마을자원 : 당산나무, 장승마당, 백련지, 유치원, 국화골목, 고추골목, 시설채소
낙동강, 유채축제, 개비리길

농촌현장포럼성과

마을의 노인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마을로 현장포럼을 진행함으로써 마을 내 연꽃단지 조성, 마을 꽃길 조성, 마을안길 잡초제거 등 노인들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김

마산마을은 귀농귀촌하기에 좋은 마을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지역이며 또한 마을의 노인인구 60대이상 비율이 58.6%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노인인구 및 청년세대 등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이었으나 현장포럼 후 이 마을은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와 주기적인 마을 간담회 및 마을회의로 의사결정을 하여 소통이 원활해지고 또한 노인들의 의사결정 참여 등 생기 있고 활기찬 마을로 변모

특히 안정숙 사업리더는 귀농을 한 가구로서 마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가꾸기 및 현장포럼 운영 등 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노인들의 역량강화와 참여를 주도하여 노인들이 나이를 잊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와 마을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함께 향으로써 "청춘을 GO하다" 라는 주제로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 귀농귀촌인과의 화합한마당, 노인 참여 의사결정 및 노인들의 일할 의욕고취로 복지문화 마을조성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마을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저지에술
정보화마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4호 지정 저지리 !
제주시 저지에술정보화마을

마을위치 :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75
인 구 수 : 486가구 1,110명(남 568명, 여 542명)
마을자원 : 저지곶자왓, 새신오름, 노랑굴, 조롱물, 감굴, 양배추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농촌현장포럼 통해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회복 추진
저지곶자왓, 예술인의 마을 등 마을자원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공동체마을로 변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여 포럼성과 극대화

저지마을은 전형적인 산간마을로 한경면에 있는 마을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여 한라산에 제일 가까운 곳이며 북동쪽에는 한림읍, 남쪽에는 대정읍과 안덕면에 인접해 있는 중산간 핵심 마을이고 유서 깊은 마을 중 하나이며 과수원과 밭농사가 고루 분포되어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임마을의 문화라는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지키지 않으면 문명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쉽지만 저지마을 주민들은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저지마을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가치와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함

주민들은 청정 제주만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는 마을자원 저지 곶자왓을 선조들에게 물려받아서 지금껏 가꾸어 온 것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의 이미지와 자연생태계를 살리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 및 율레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을축제 및 마을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매월1회 벼룩시장 장터 운영을 하고 있음. 이밖에도 마을 청년회, 부녀회에서는 매년 마을 내 가로수 정비, 농로 정비 등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으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정 후 마을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여 이용한 딸기체험, 농산물 쿠키만들기 체험, 비누체험, 농산물 수제비체험, 염색체험, 된장만들기, 석부작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까지 갖춘 마을 공동체문화 마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마을

현장포럼으로 변화되는 이야기 영실의 기운을 얻어가는 오백장군 마을

마을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마을
인 구 수 : 597가구 1,504명(남771명, 여 733명)
마을자원 : 영실, 법화사, 공동목장, 점마청, 마을신당, 감굴 등

농촌현장포럼성과

주민들의 참여도 제고와 자연 및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마을 자원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발굴
마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작

하원마을은 한라산부터 바다까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보존 가치와 문화적 의의가 높은 역사문화 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마을입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도 바쁘던 마을 주민들은 현장포럼을 통해 이것들은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던 하원마을에 현장포럼은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변화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훼손되고 없어져 가는 마을의 문화자원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의 영실, 머내바당, 마을쉼터, 수로길 등 정기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4회 탐라문화제에서 '하원마을 옥거리 집짓는 소리'로 참여하여 우수상의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마을의 문화를 지키려는 일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포럼을 통하여 주민들이 만든 발전과제들은 마을발전추진위원회와 전문가들의 고민하고 구체화 하여 다양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마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거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IV. 부록

1. 주민 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 분석
2. 전문가 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 분석
3. 기타 의견(문제점 및 개선방안)

백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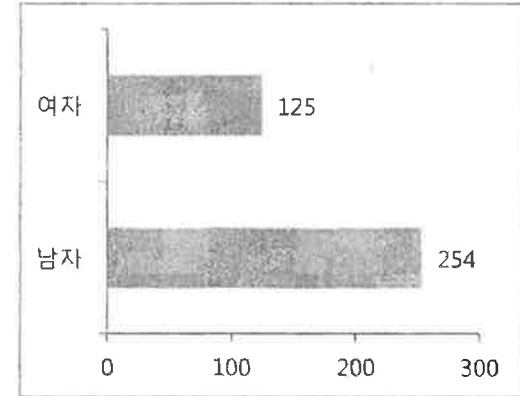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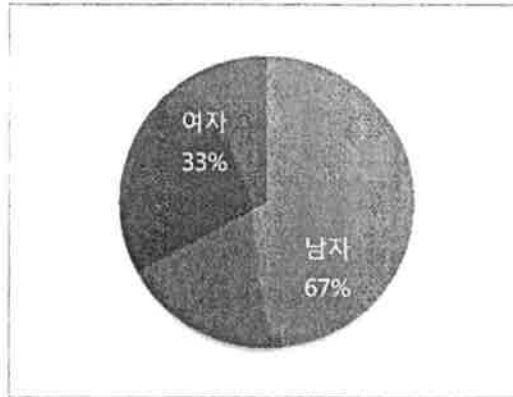
1. 주민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분석

백 영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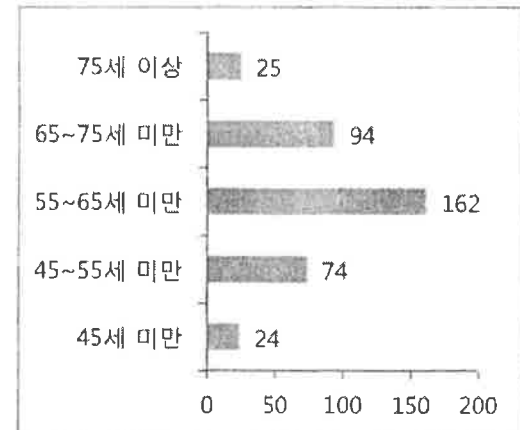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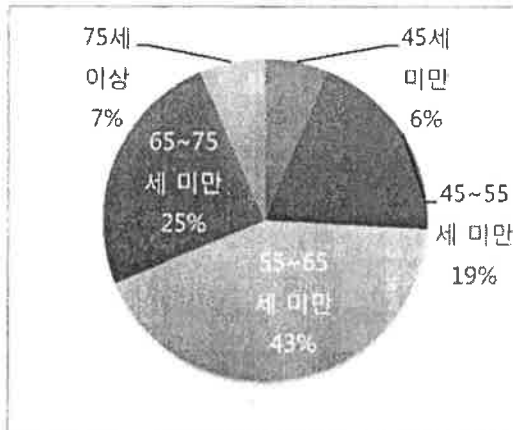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 분	빈도	백분율(%)
남자	254	67.0
여자	125	33.0
합계	379	100.0



•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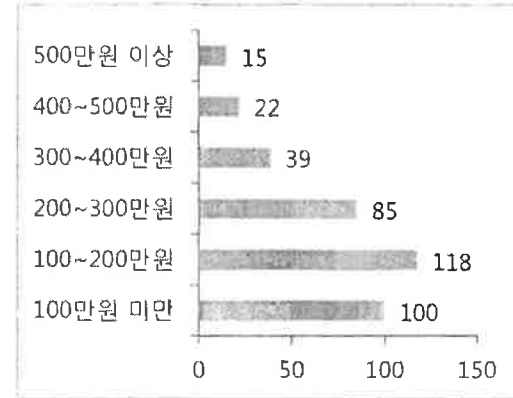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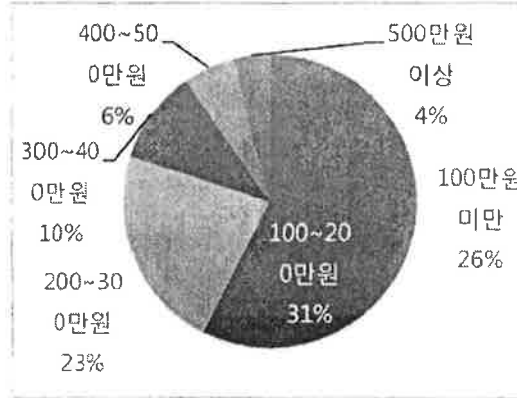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백분율(%)
45세 미만	24	6.3
45~55세 미만	74	19.5
55~65세 미만	162	42.7
65~75세 미만	94	24.8
75세 이상	25	6.6
합계	379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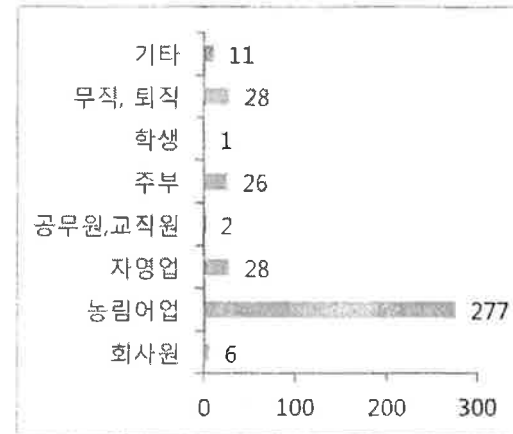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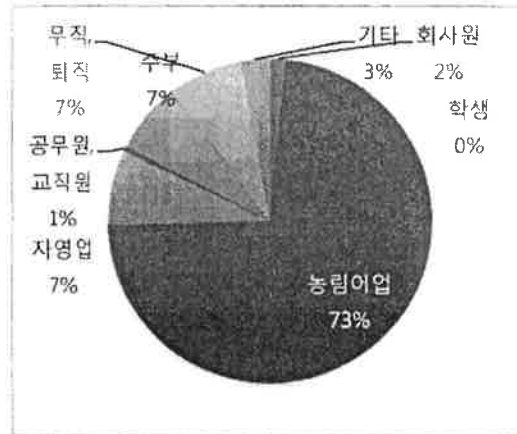
-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였습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100만원 미만	100	26.4
100~200만원	118	31.1
200~300만원	85	22.4
300~400만원	39	10.3
400~500만원	22	5.8
500만원 이상	15	4.0
합계	379	100.0



-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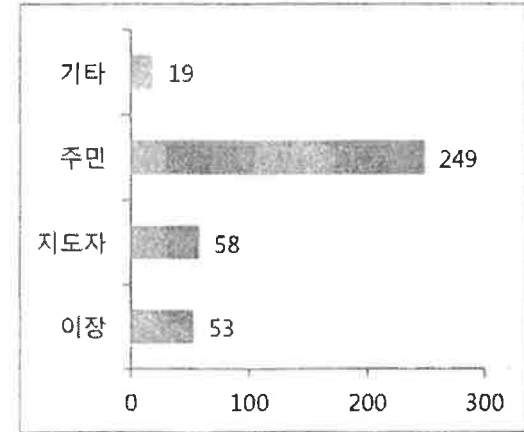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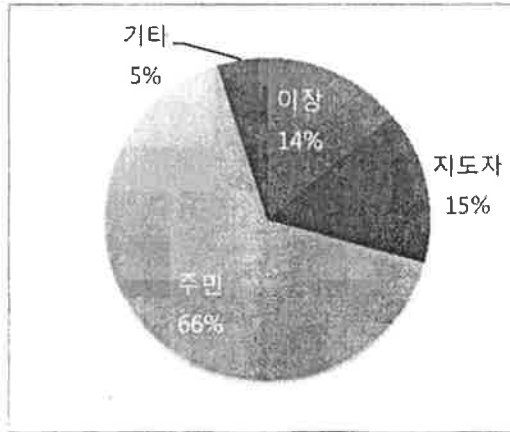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회사원	6	1.6
농림어업	277	73.1
자영업	28	7.4
공무원,교직원	2	.5
주부	26	6.9
학생	1	.3
무직, 퇴직	28	7.4
기타	11	2.9
합계	379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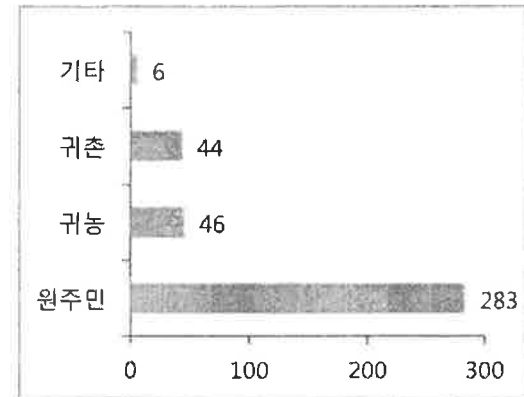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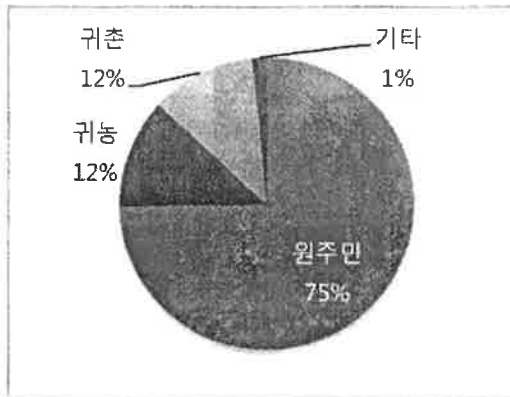
- 귀하가 마을 또는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이장	53	14.0
지도자	58	15.3
주민	249	65.7
기타	19	5.0
합계	379	100.0



- 귀하의 농촌 정착유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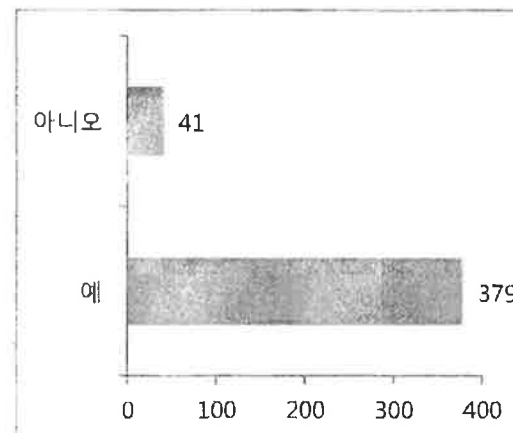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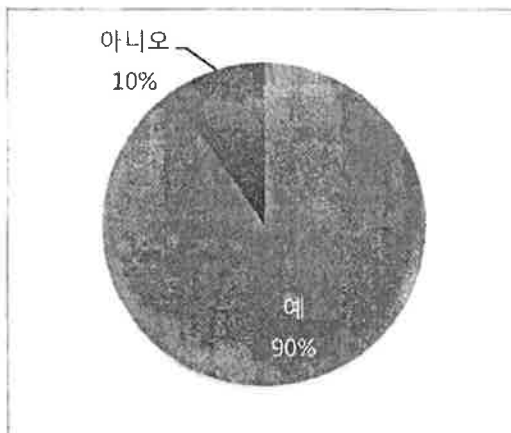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원주민	283	74.7
귀농	46	12.1
귀촌	44	11.6
기타	6	1.6
합계	379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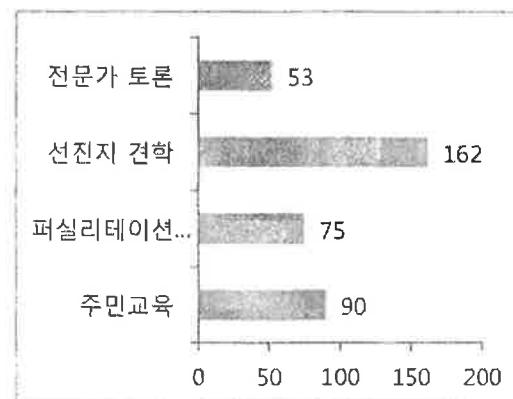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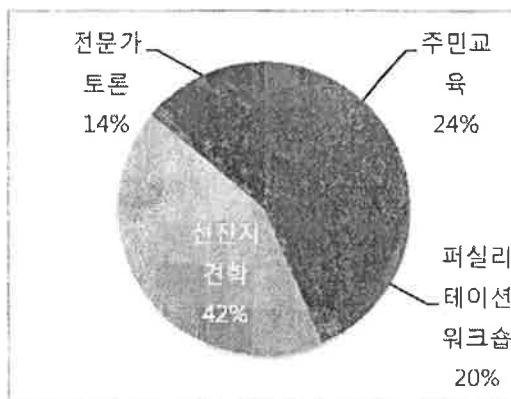
- 귀하는 '2014년 농촌현장포럼'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예	379	90.2
아니오	41	9.8
합계	420	100.0



- '2014년 농촌현장포럼' 중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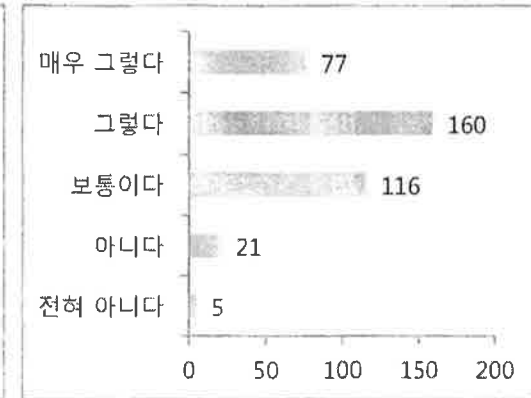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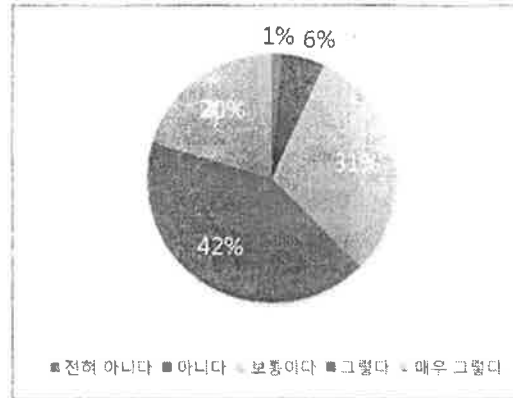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주민교육	90	23.7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75	19.7
선진지 견학	161	42.6
전문가 토론	53	13.9
합계	379	100.0



1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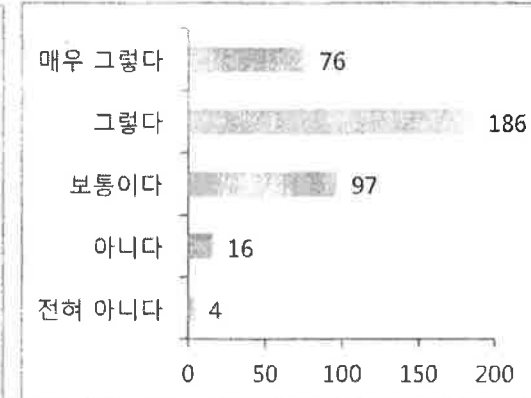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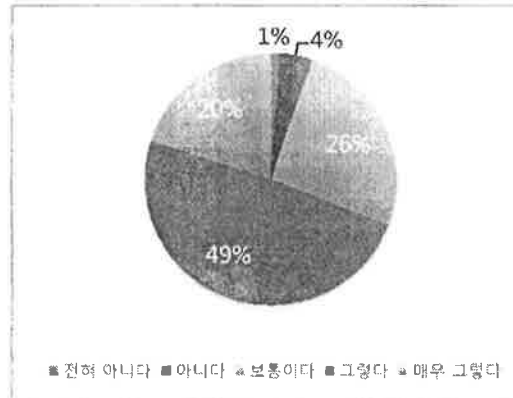
- 현장포럼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	1.3
아니다	21	5.5
보통이다	116	30.6
그렇다	160	42.2
매우 그렇다	77	20.3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37	63



-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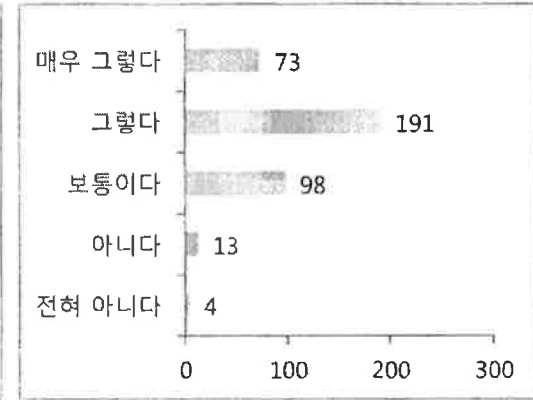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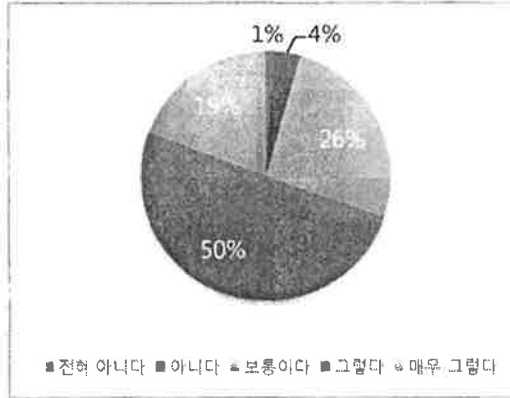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	1.1
아니다	16	4.2
보통이다	97	25.6
그렇다	186	49.1
매우 그렇다	76	20.1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62	69



1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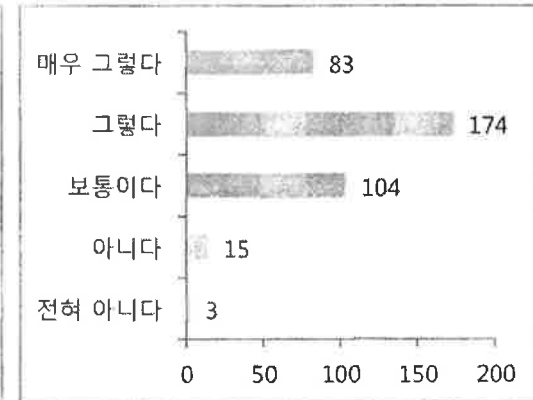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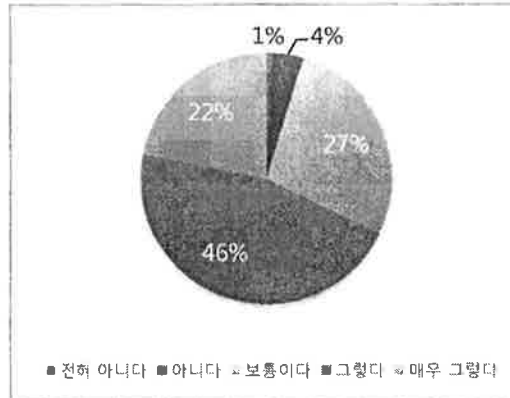
- 현장포럼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를 위한 의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	1.1
아니다	13	3.4
보통이다	98	25.9
그렇다	191	50.4
매우 그렇다	73	19.3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64	70



-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잘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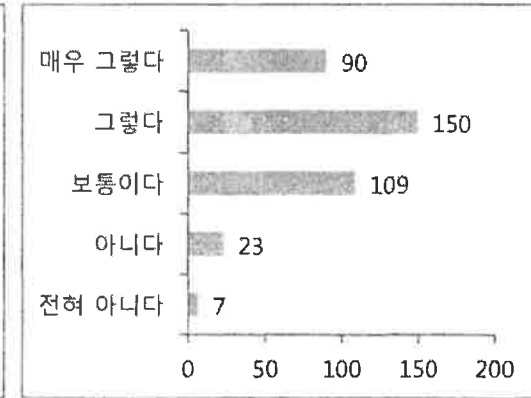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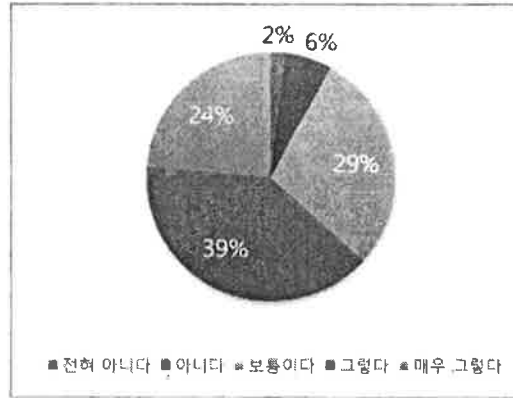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3	.8
아니다	15	4.0
보통이다	104	27.4
그렇다	174	45.9
매우 그렇다	83	21.9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57	68



1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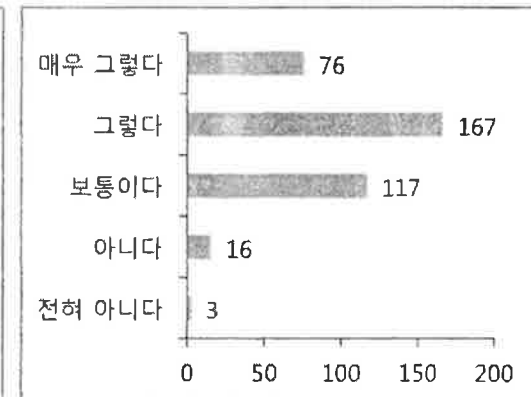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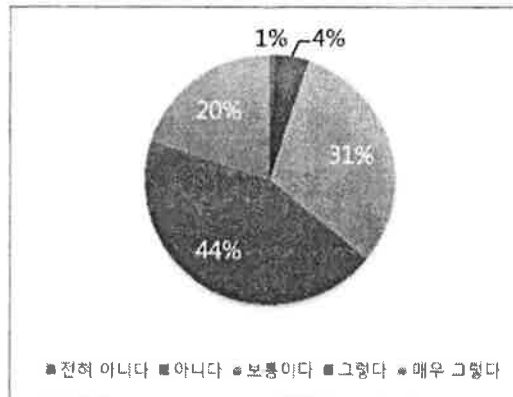
-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만의 색깔과 발전방향을 찾았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7	1.8
아니다	23	6.1
보통이다	109	28.8
그렇다	150	39.6
매우 그렇다	90	23.7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40	63



-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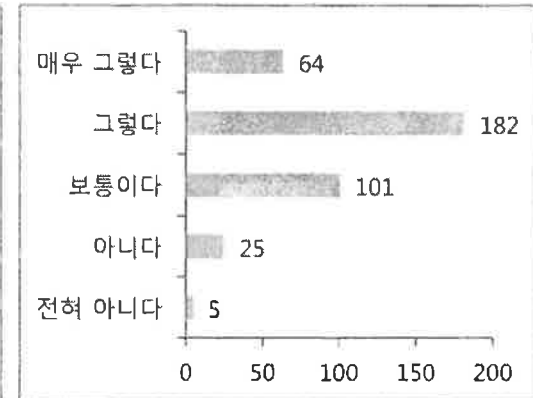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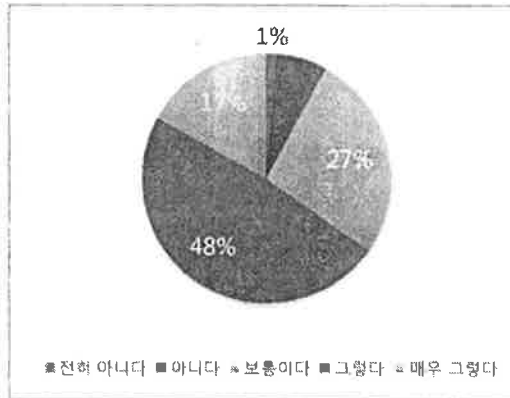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3	.8
아니다	16	4.2
보통이다	117	30.9
그렇다	167	44.1
매우 그렇다	76	20.1
합계	379	100.0
긍정적 응답	243	64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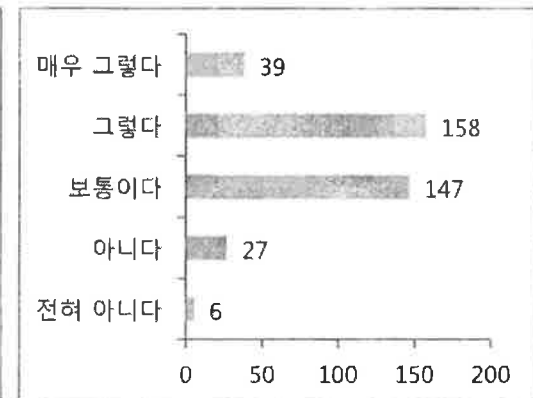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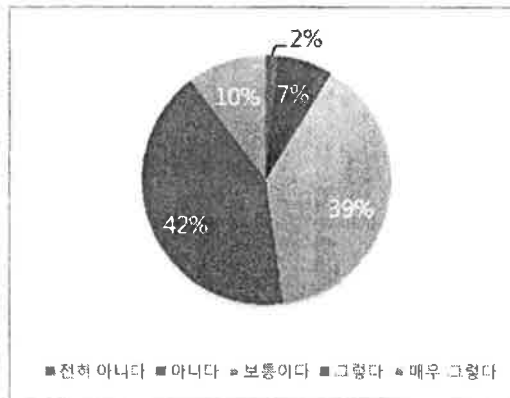
- 현장포럼 이후 마을회의를 할 때는 규칙을 정하여 진행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	1.3
아니다	25	6.6
보통이다	101	26.8
그렇다	182	48.3
매우 그렇다	64	17.0
합계	377	100.0
긍정적 응답	246	65



- 마을회의를 할 때는 포스트잇 활용 등 현장포럼에서 배운 기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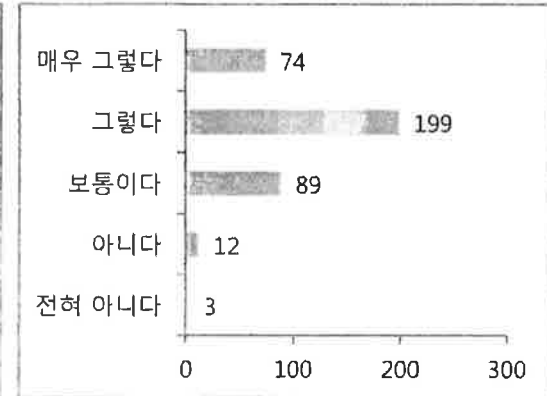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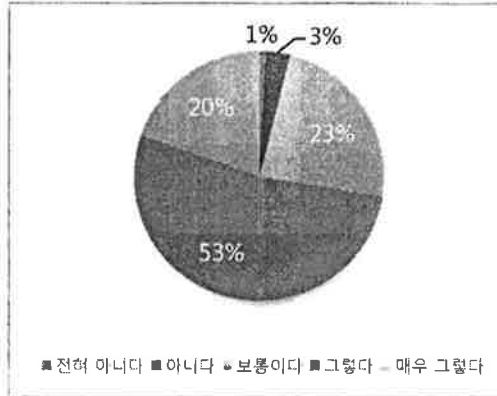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6	1.6
아니다	27	7.2
보통이다	147	39.0
그렇다	158	41.9
매우 그렇다	39	10.3
합계	377	100.0
긍정적 응답	197	52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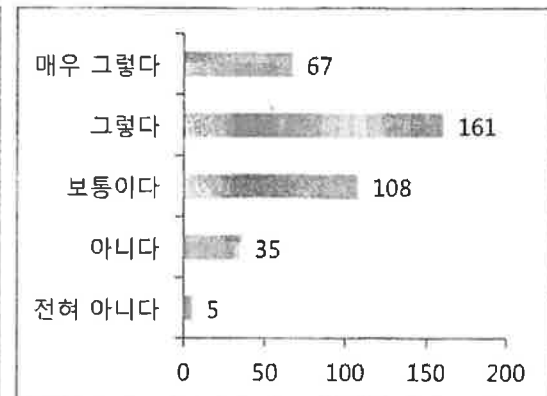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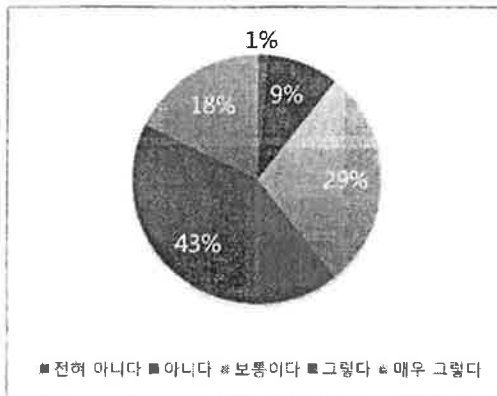
- 현장포럼 이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되 서로를 존중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3	.8
아니다	12	3.2
보통이다	89	23.6
그렇다	199	52.8
매우 그렇다	74	19.6
합계	377	100.0
긍정적 응답	273	72



- 현장포럼 이후 회의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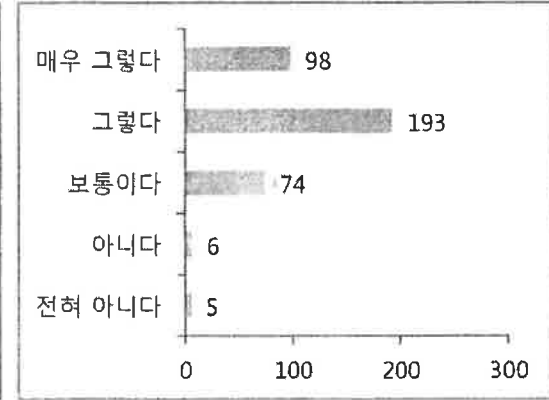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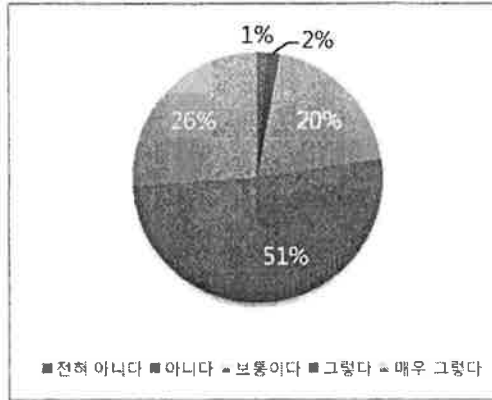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	1.3
아니다	35	9.3
보통이다	108	28.7
그렇다	161	42.8
매우 그렇다	67	17.8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228	61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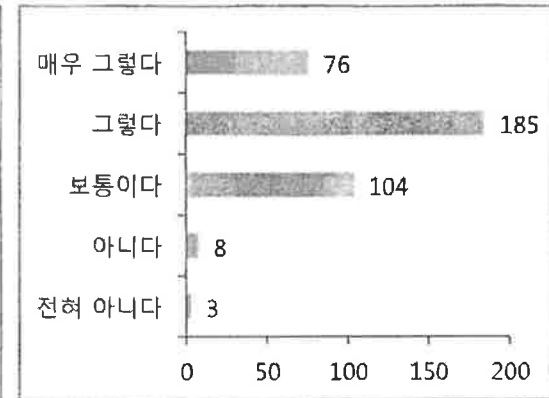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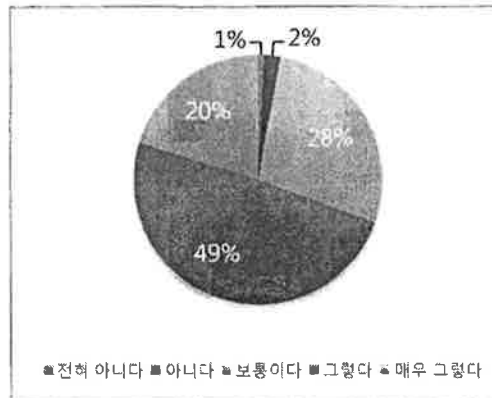
- 현장포럼 이후 회의안건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	1.3
아니다	6	1.6
보통이다	74	19.7
그렇다	193	51.3
매우 그렇다	98	26.1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291	77



- 주민들은 마을 사업을 위한 포럼이나 교육이 있을 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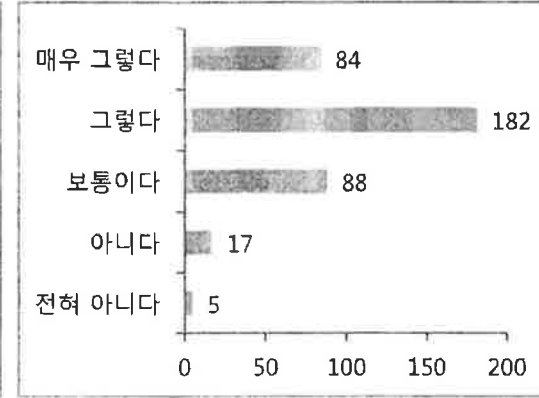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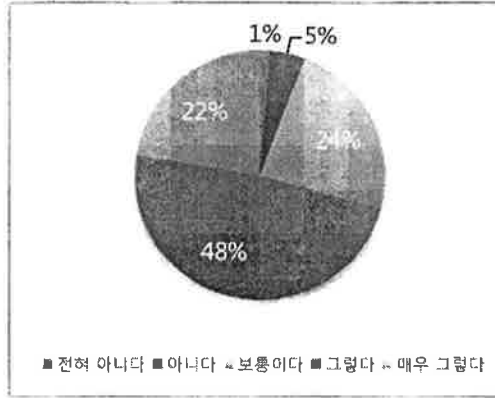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3	.8
아니다	8	2.1
보통이다	104	27.7
그렇다	185	49.2
매우 그렇다	76	20.2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261	69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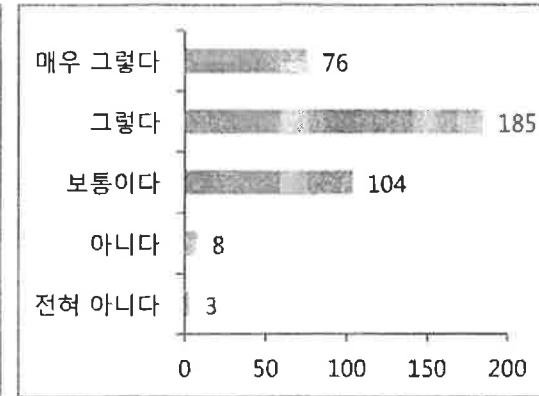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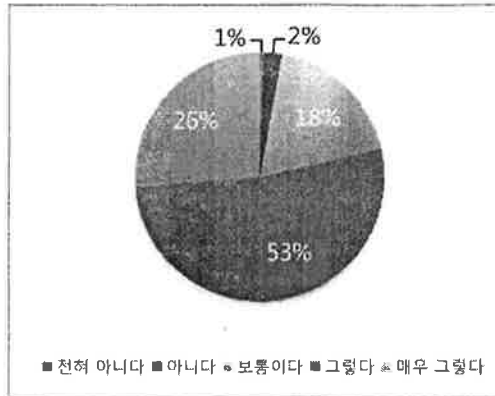
- 마을리더는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5	1.3
아니다	17	4.5
보통이다	88	23.4
그렇다	182	48.4
매우 그렇다	84	22.3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266	71



-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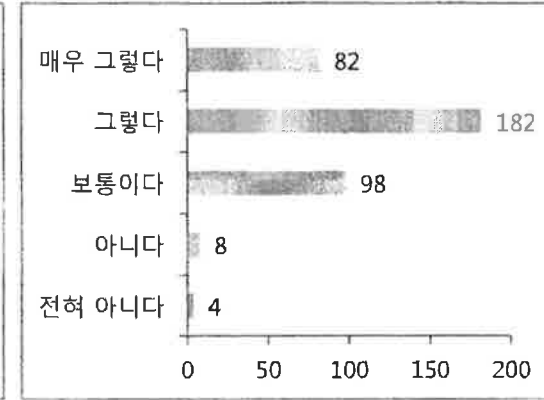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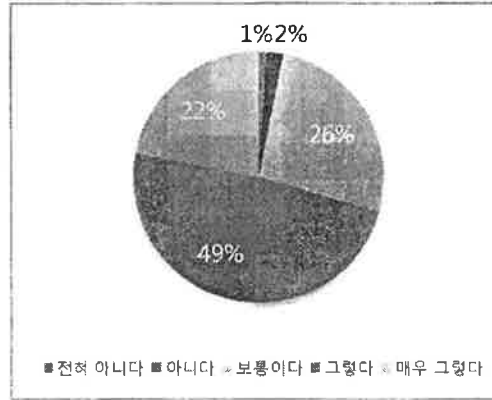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5
아니다	9	2.4
보통이다	69	18.4
그렇다	197	52.4
매우 그렇다	99	26.3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296	79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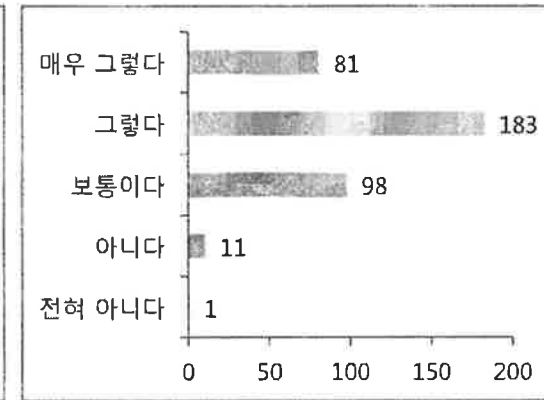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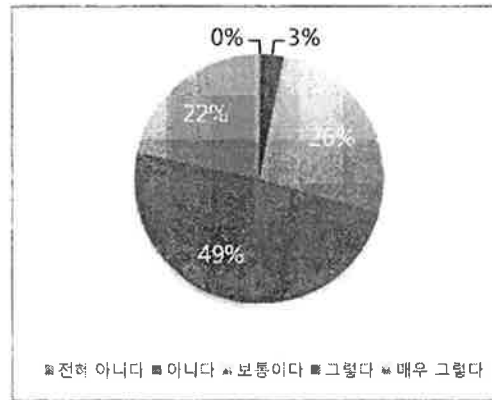
- 현장포럼 이후 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	1.1
아니다	8	2.1
보통이다	98	26.2
그렇다	182	48.7
매우 그렇다	82	21.9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264	71



- 현장포럼 이후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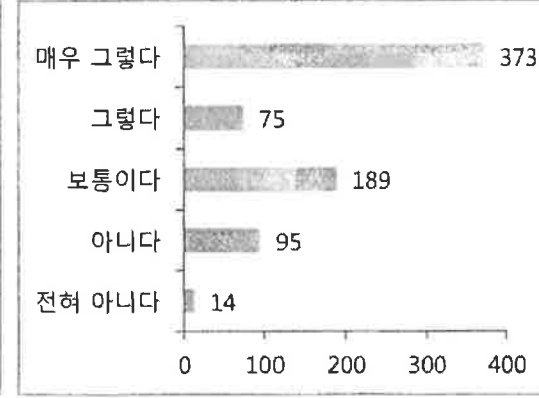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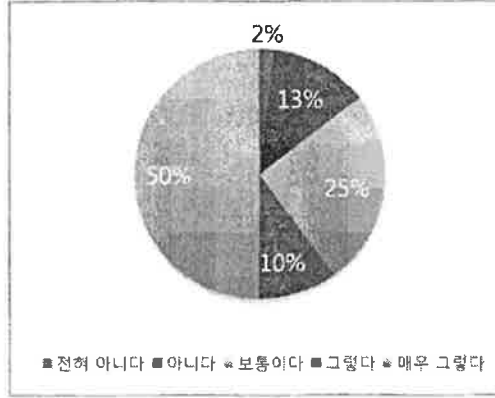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3
아니다	11	2.9
보통이다	98	26.2
그렇다	183	48.9
매우 그렇다	81	21.7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264	71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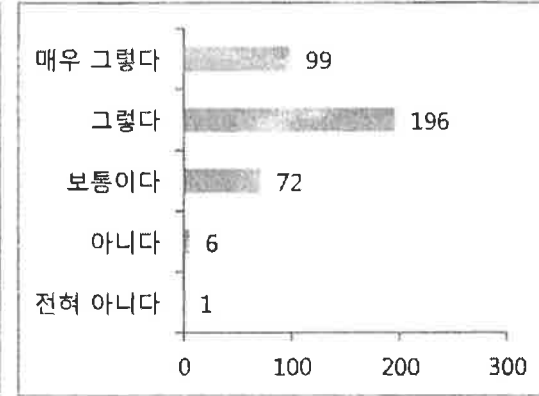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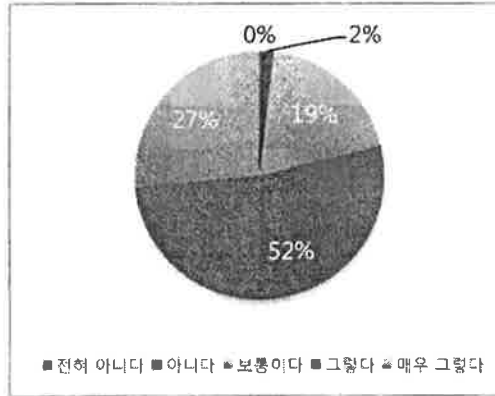
- 마을발전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4	3.8
아니다	95	25.5
보통이다	189	50.7
그렇다	75	20.1
매우 그렇다	373	100.0
합계	377	100.0
긍정적 응답	448	120



-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 마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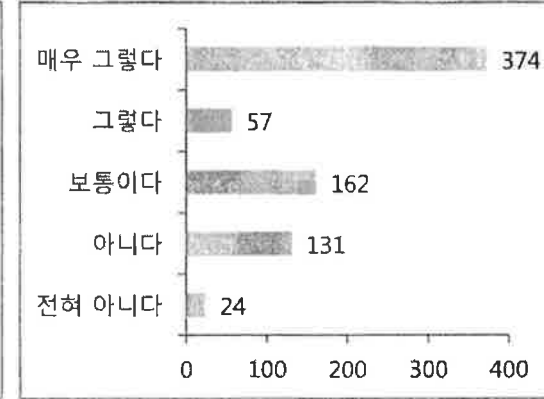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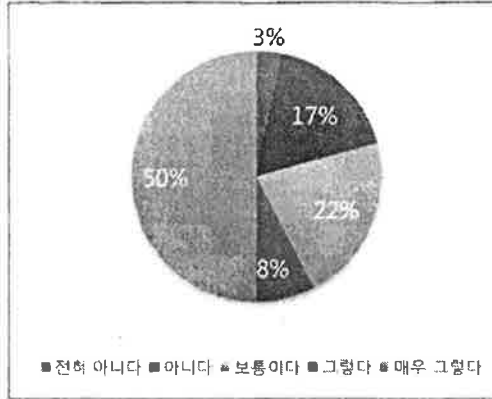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3
아니다	6	1.6
보통이다	72	19.3
그렇다	196	52.4
매우 그렇다	99	26.5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295	79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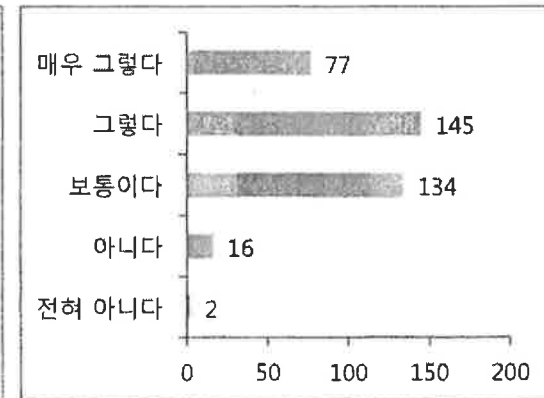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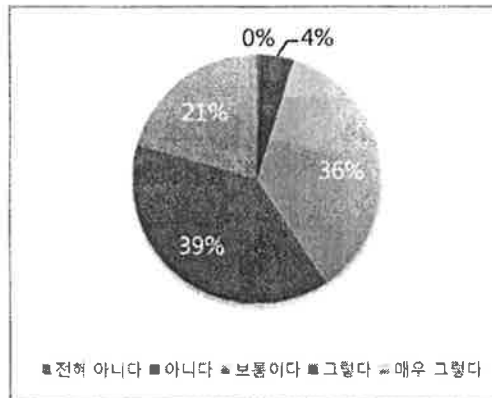
- 현장포럼 이후 이웃 간 교류가 증대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4	6.4
아니다	131	35.0
보통이다	162	43.3
그렇다	57	15.2
매우 그렇다	374	100.0
합계	376	100.0
긍정적 응답	431	115



- 주민들은 마을공동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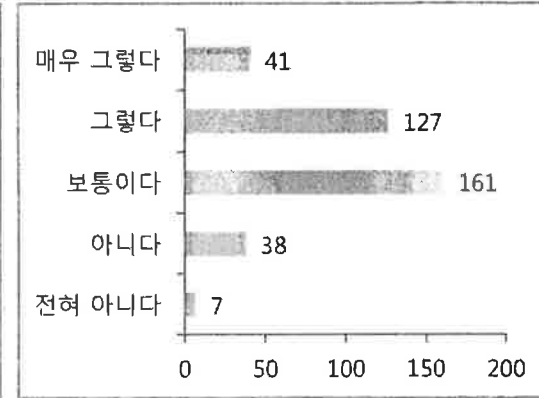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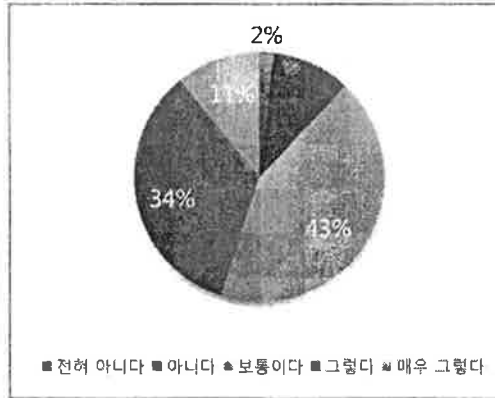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5
아니다	16	4.3
보통이다	134	35.8
그렇다	145	38.8
매우 그렇다	77	20.6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222	59



2차 효과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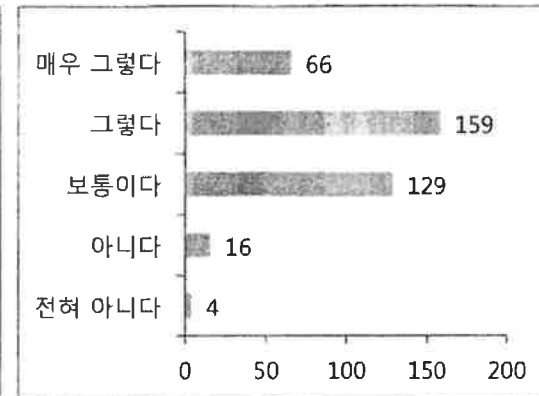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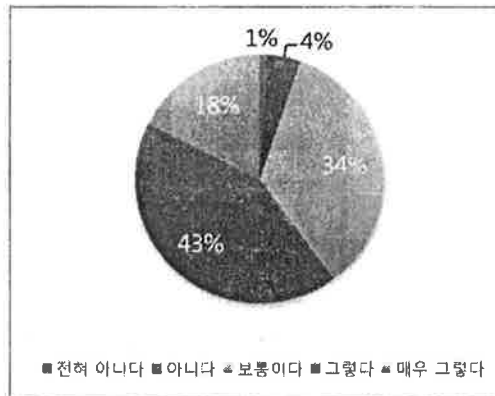
- 주민들이 재산이나 재능을 마을 사업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7	1.9
아니다	38	10.2
보통이다	161	43.0
그렇다	127	34.0
매우 그렇다	41	11.0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168	45



- 현장포럼 이후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수시로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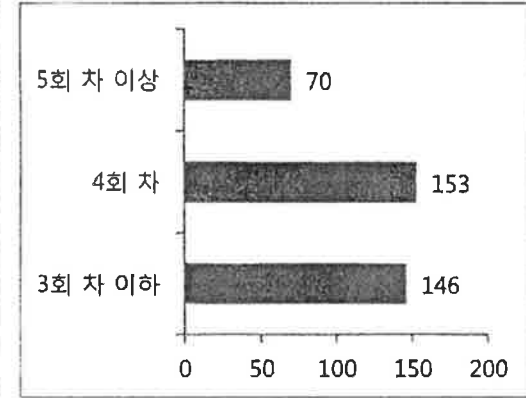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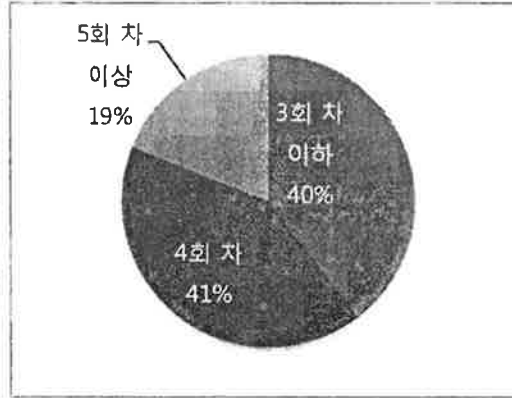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4	1.1
아니다	16	4.3
보통이다	129	34.5
그렇다	159	42.5
매우 그렇다	66	17.6
합계	374	100.0
긍정적 응답	225	6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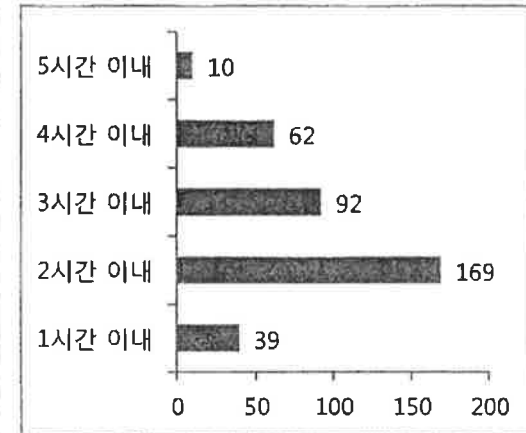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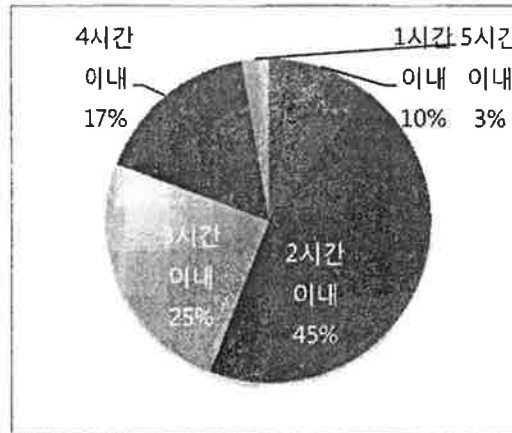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몇 회로 운영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3회 차 이하	146	39.6
4회 차	153	41.5
5회 차 이상	70	19.0
합계	369	100.0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1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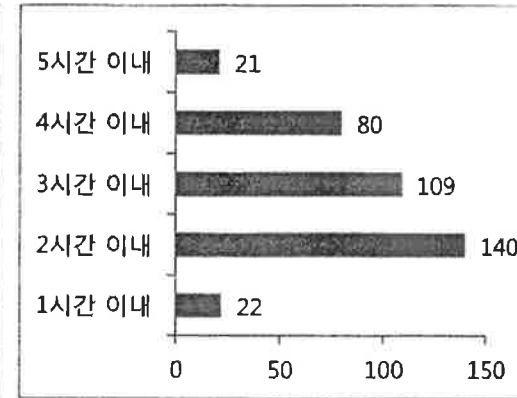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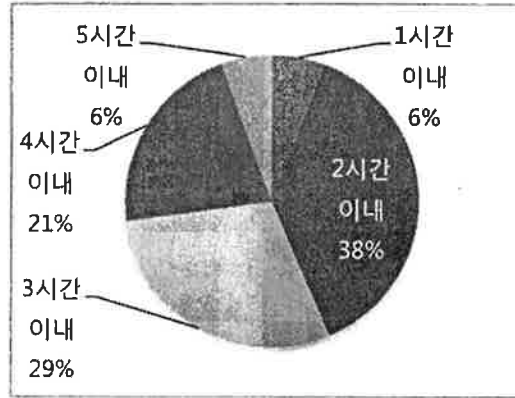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39	10.5
2시간 이내	169	45.4
3시간 이내	92	24.7
4시간 이내	62	16.7
5시간 이내	10	2.7
합계	372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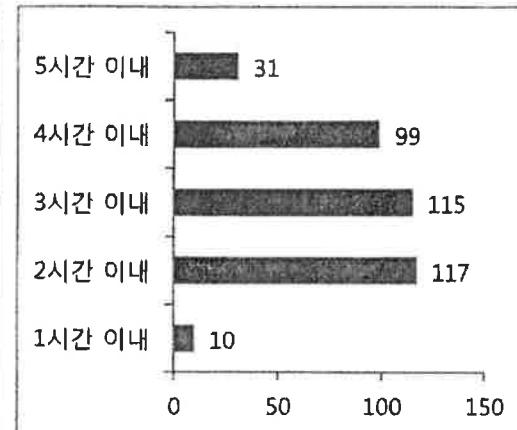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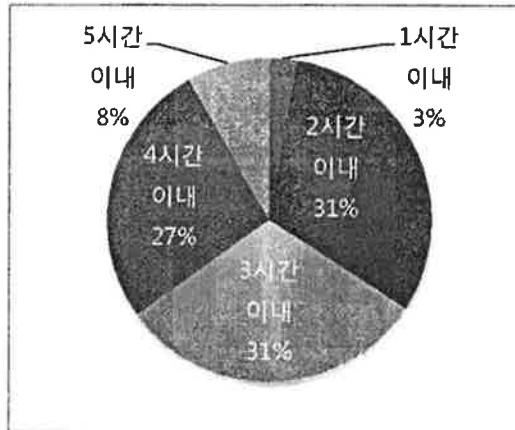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2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22	5.9
2시간 이내	140	37.6
3시간 이내	109	29.3
4시간 이내	80	21.5
5시간 이내	21	5.6
합계	372	100.0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4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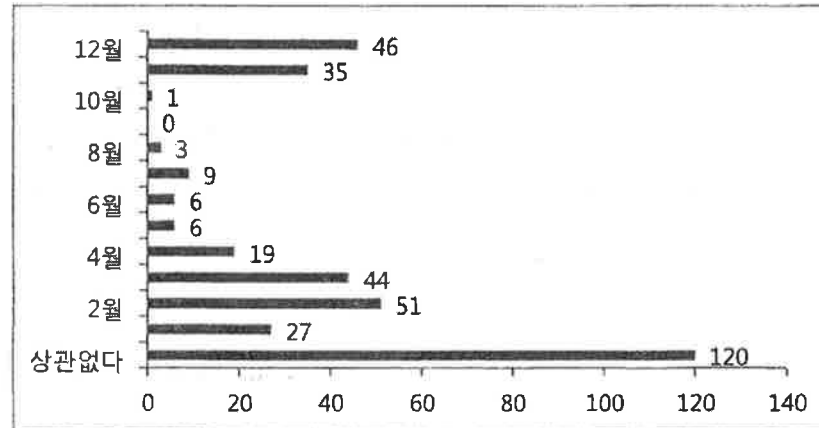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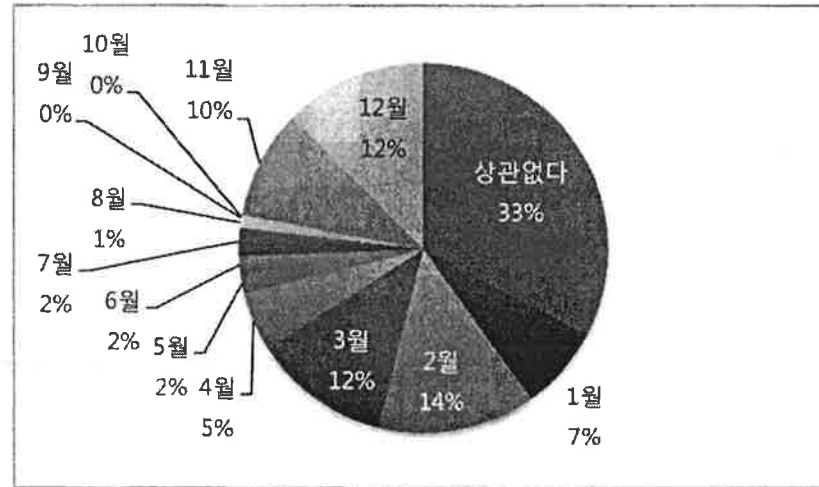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10	2.7
2시간 이내	117	31.5
3시간 이내	115	30.9
4시간 이내	99	26.6
5시간 이내	31	8.3
합계	372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언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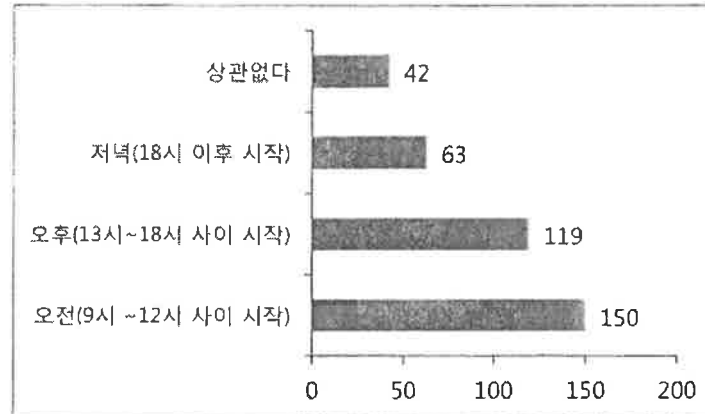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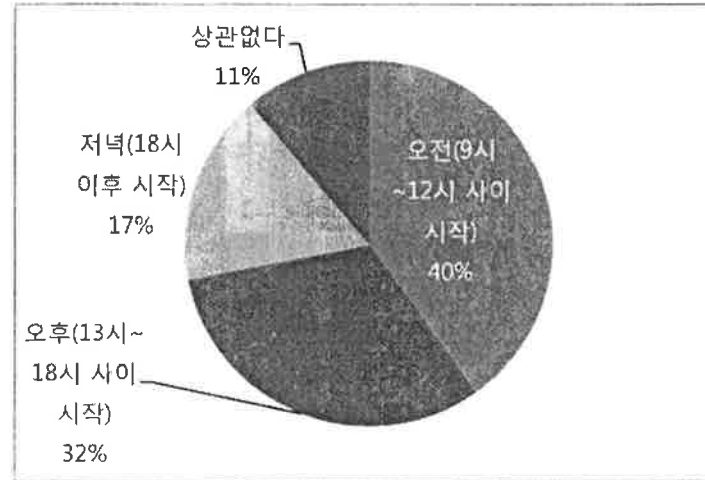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상관없다	120	32.7
1월	27	7.4
2월	51	13.9
3월	44	12.0
4월	19	5.2
5월	6	1.6
6월	6	1.6
7월	9	2.5
8월	3	.8
9월	0	.0
10월	1	.3
11월	35	9.5
12월	46	12.5
합계	367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몇 시에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오전(9시 ~12시 사이 시작)	150	40.1
오후(13시~18시 사이 시작)	119	31.8
저녁(18시 이후 시작)	63	16.8
상관없다	42	11.2
합계	374	100.0



의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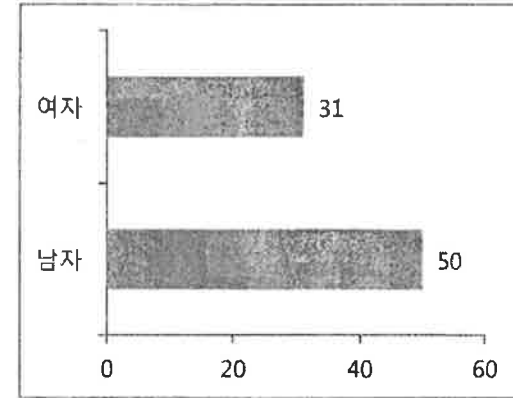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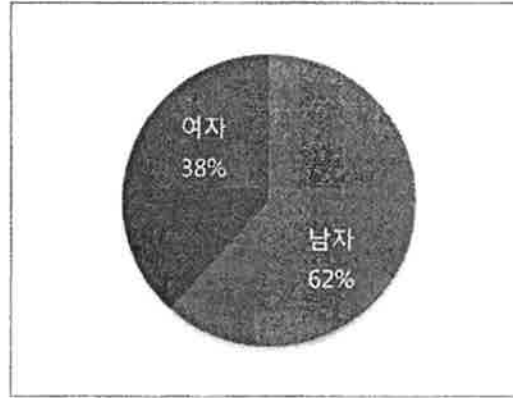
2. 전문가대상 설문 항목별 결과분석

백 영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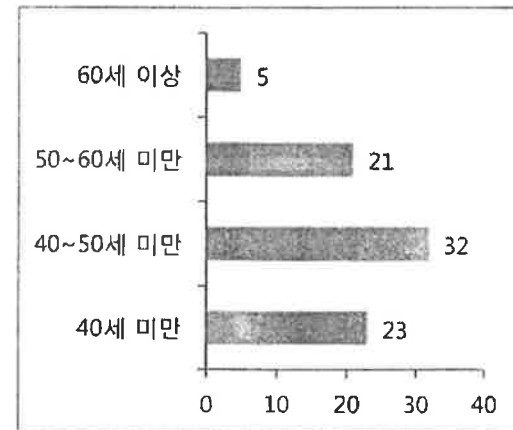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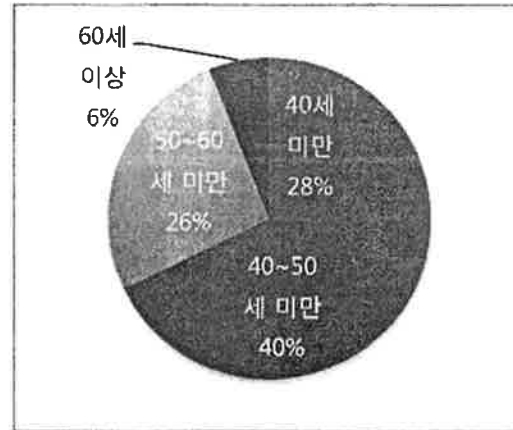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 분	빈도	백분율(%)
남자	50	61.7
여자	31	38.3
합계	81	100.0



• 귀하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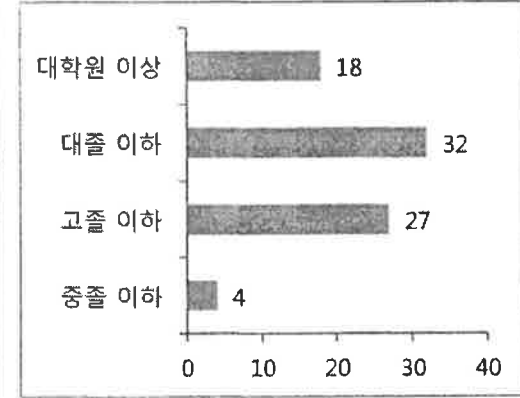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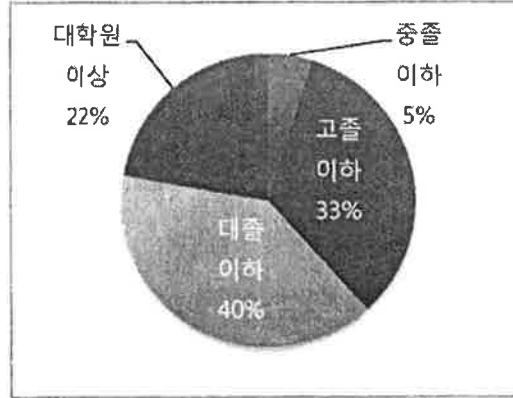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백분율(%)
40세 미만	23	28.4
40~50세 미만	32	39.5
50~60세 미만	21	25.9
60세 이상	5	6.2
합계	81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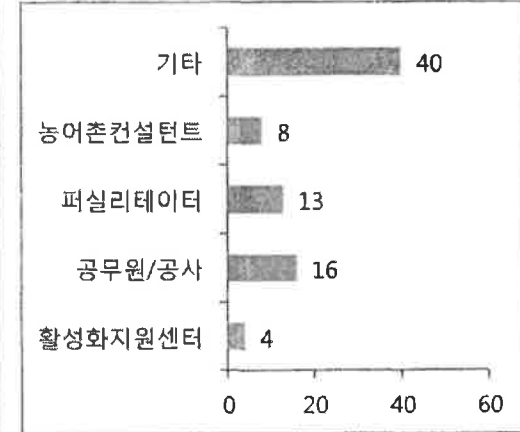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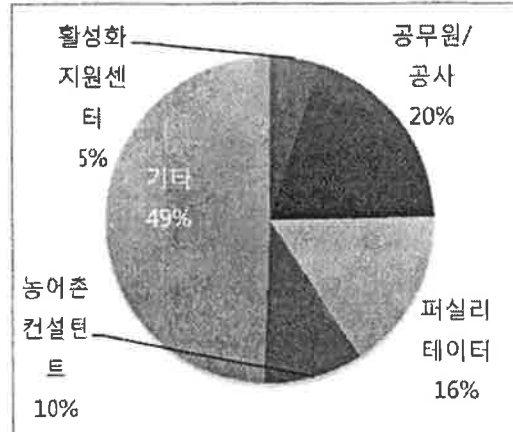
•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중졸 이하	4	4.9
고졸 이하	27	33.3
대졸 이하	32	39.5
대학원 이상	18	22.2
합계	81	100.0



• 귀하가 함께하는 우리 농촌운동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와 관련하여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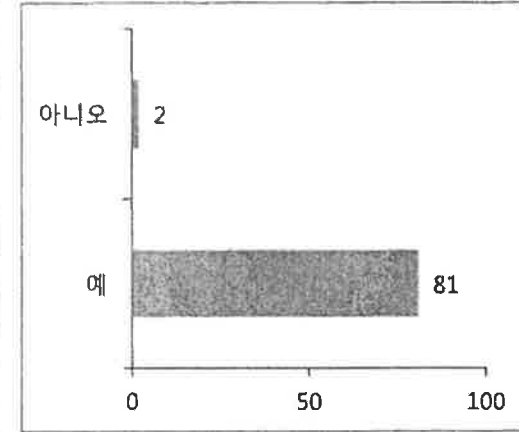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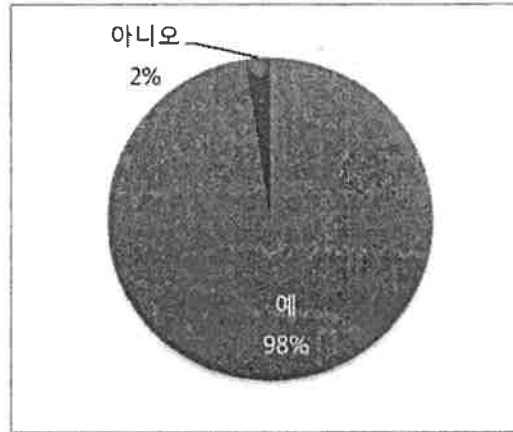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활성화지원센터	4	4.9
공무원/공사	16	19.8
퍼실리테이터	13	16.0
농어촌컨설턴트	8	9.9
기타	40	49.4
합계	81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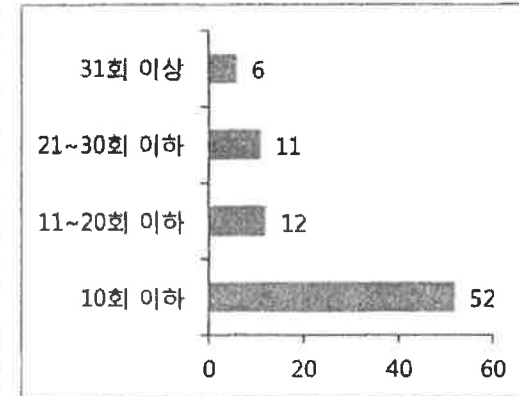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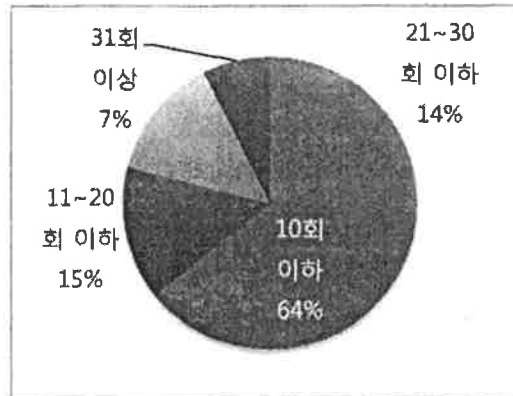
- 귀하는 ‘2014년 농촌 현장포럼’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예	81	96.4
아니오	2	3.6
합계	83	100.0



- ‘2014년 농촌 현장포럼’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는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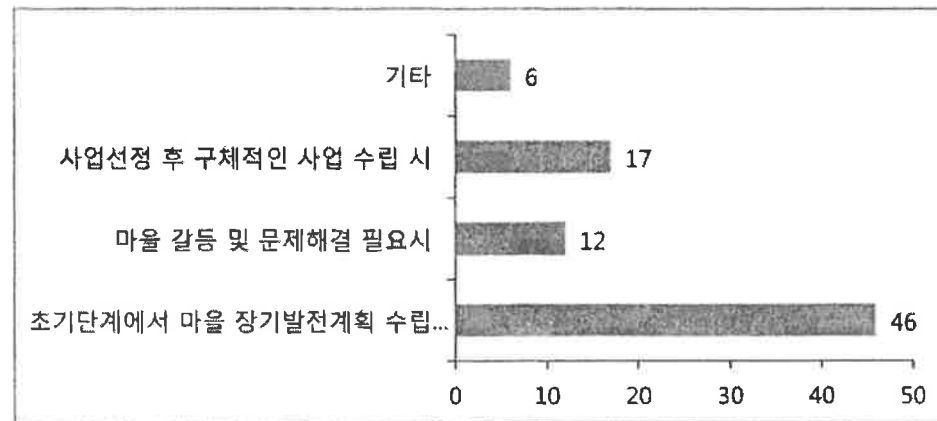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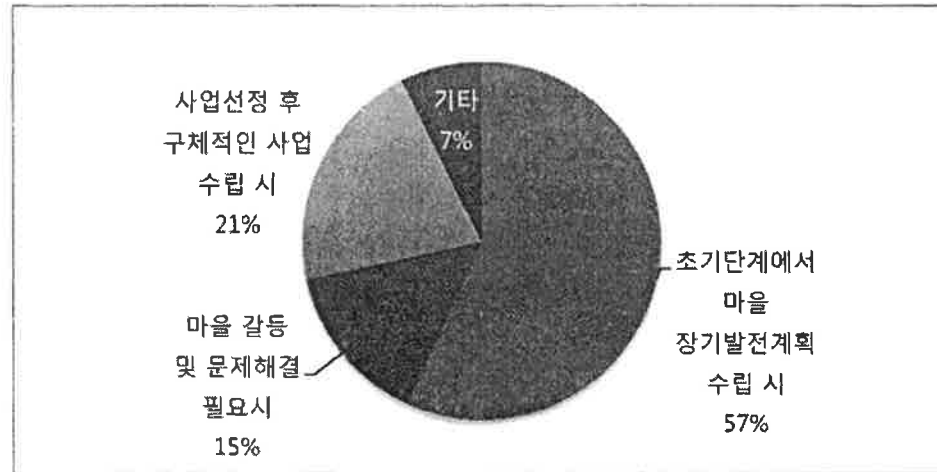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10회 이하	52	64.2
11~20회 이하	12	14.8
21~30회 이하	11	13.6
31회 이상	6	7.4
합계	81	100.0



응답자의 일반특성 _ 전문가

- '2014년 농촌 현장포럼' 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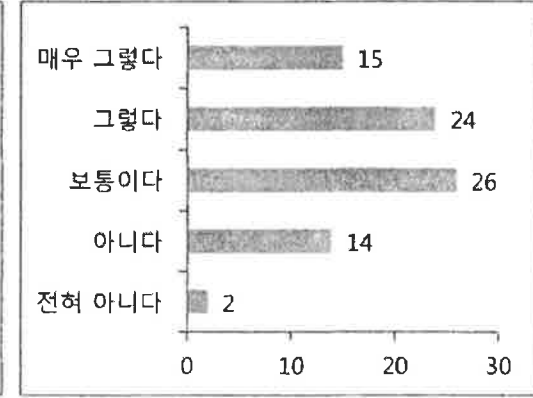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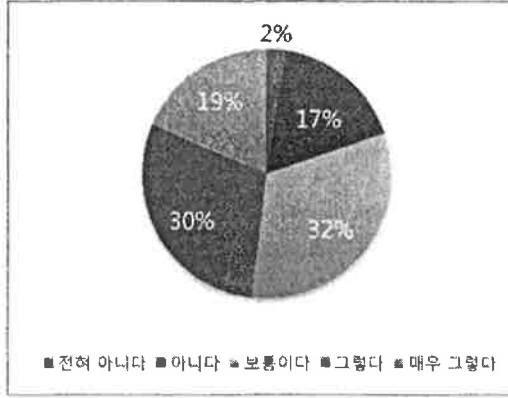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백분율(%)
초기단계에서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46	56.8
마을 갈등 및 문제해결 필요시	12	14.8
사업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 수립 시	17	21.0
기타	6	7.4
합계	81	100.0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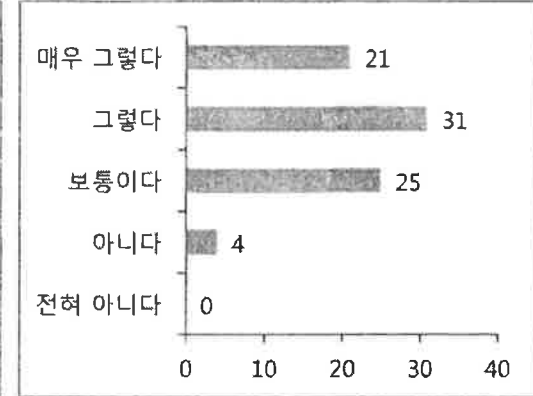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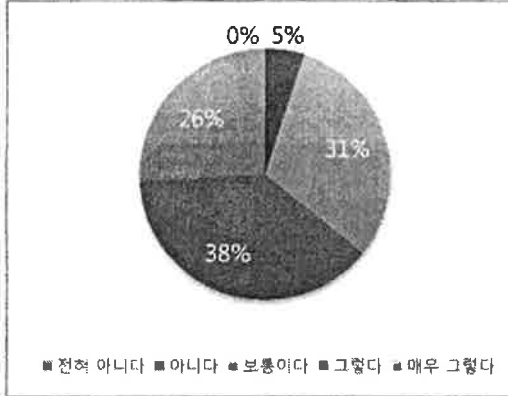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2.5
아니다	14	17.3
보통이다	26	32.1
그렇다	24	29.6
매우 그렇다	15	18.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39	48



- 현장포럼은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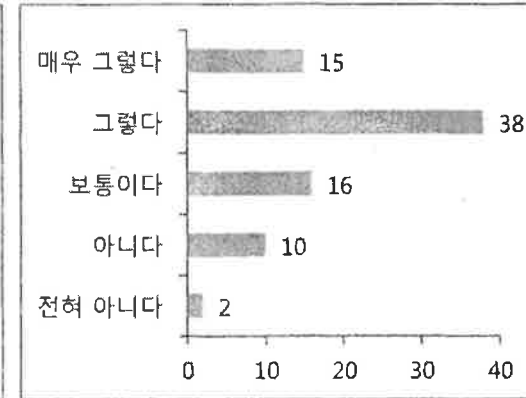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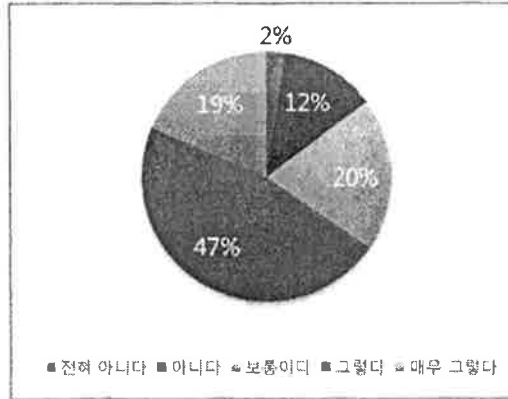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4	4.9
보통이다	25	30.9
그렇다	31	38.3
매우 그렇다	21	25.9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2	64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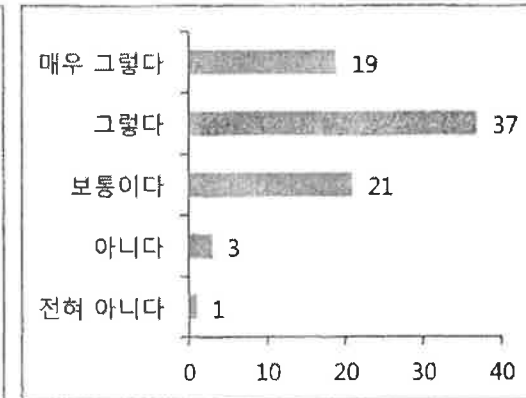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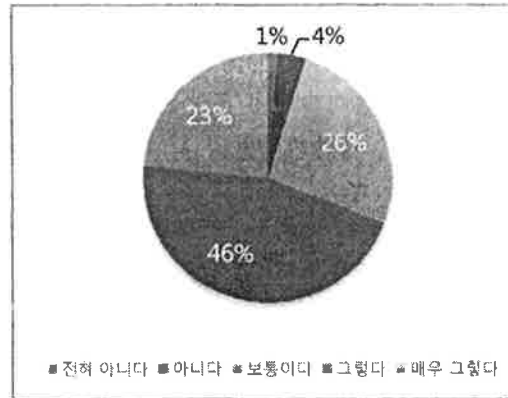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주민 간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2	2.5
아니다	10	12.3
보통이다	16	19.8
그렇다	38	46.9
매우 그렇다	15	18.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3	65



- 현장포럼은 마을에 대한 소속감, 애착심을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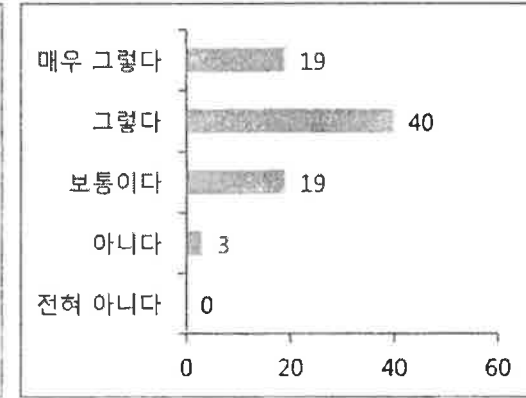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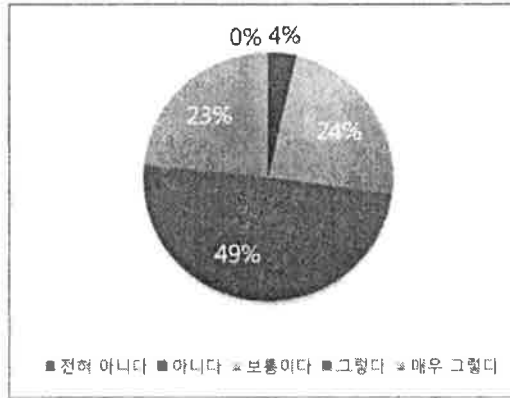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1.2
아니다	3	3.7
보통이다	21	25.9
그렇다	37	45.7
매우 그렇다	19	23.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6	69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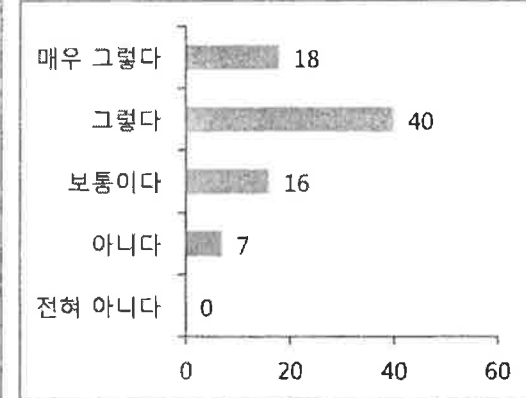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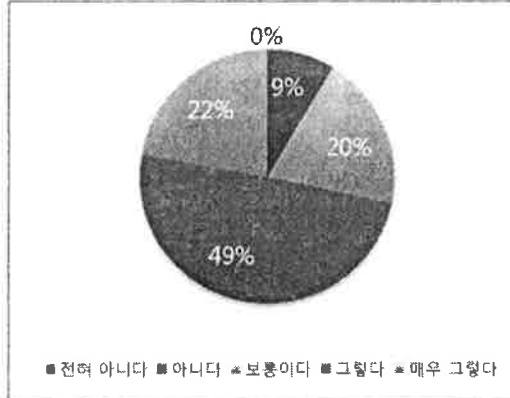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3	3.7
보통이다	19	23.5
그렇다	40	49.4
매우 그렇다	19	23.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9	73



- 현장포럼은 마을 사업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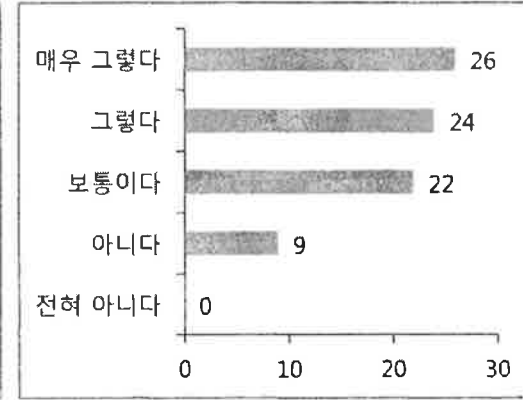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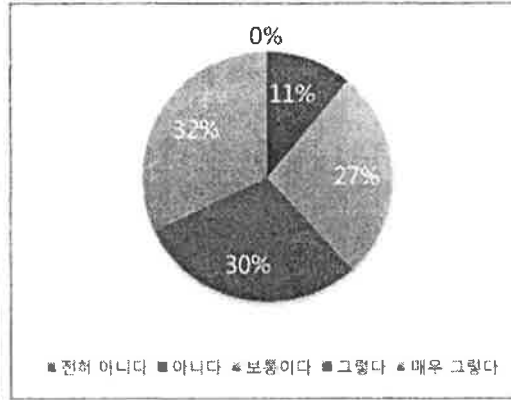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7	8.6
보통이다	16	19.8
그렇다	40	49.4
매우 그렇다	18	22.2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8	72



현장포럼 효과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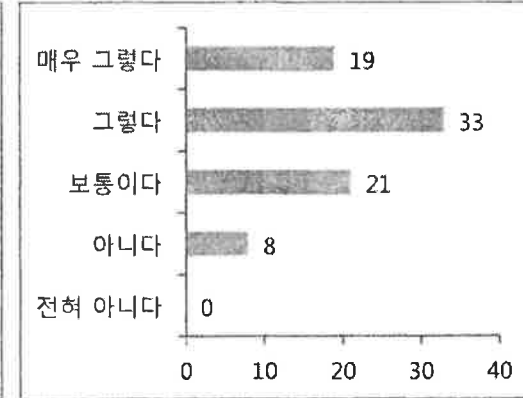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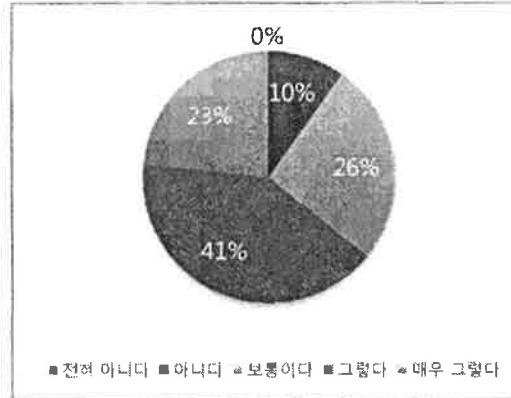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우리 마을의 차별화된 색깔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9	11.1
보통이다	22	27.2
그렇다	24	29.6
매우 그렇다	26	32.1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0	62



- 현장포럼은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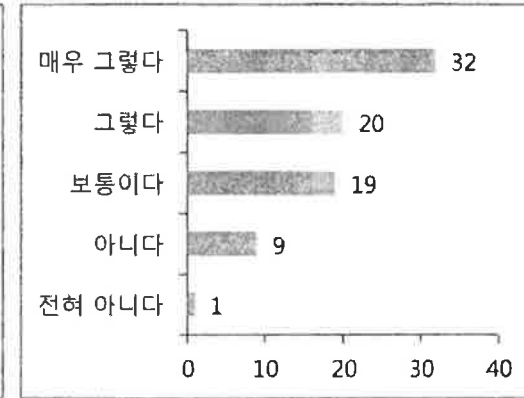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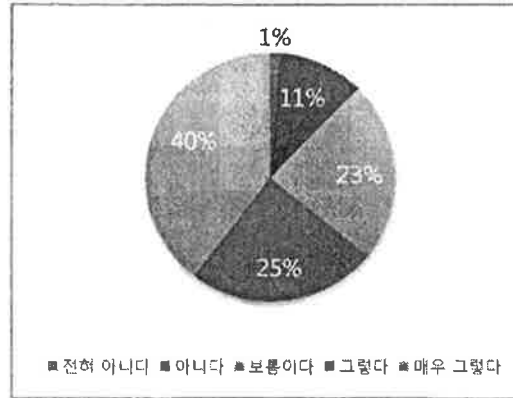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8	9.9
보통이다	21	25.9
그렇다	33	40.7
매우 그렇다	19	23.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2	64



현장포럼 필요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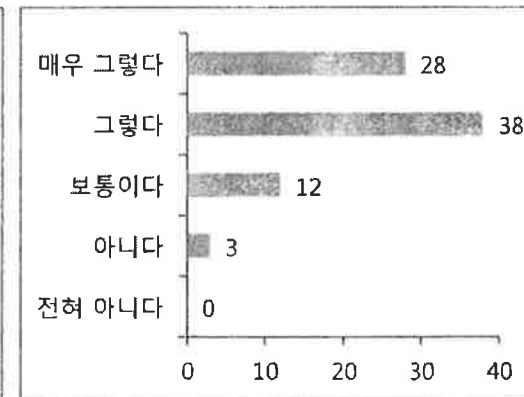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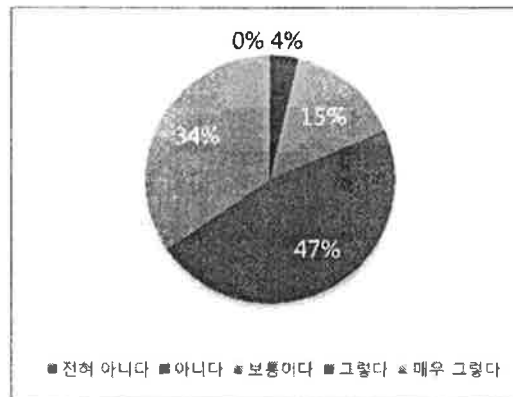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1.2
아니다	9	11.1
보통이다	19	23.5
그렇다	20	24.7
매우 그렇다	32	39.5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2	64



- 현장포럼은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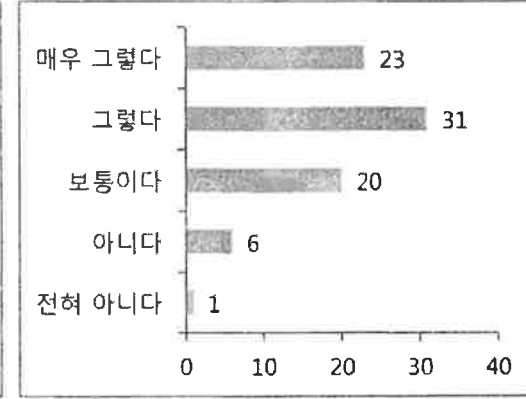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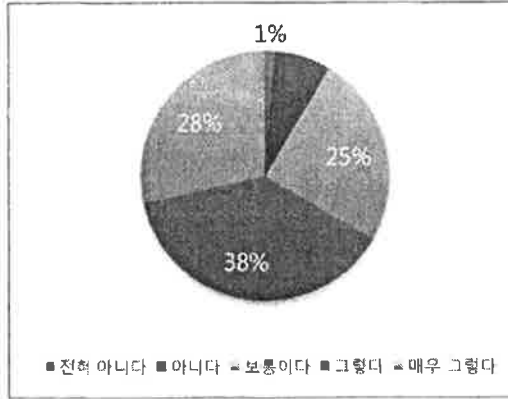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3	3.7
보통이다	12	14.8
그렇다	38	46.9
매우 그렇다	28	34.6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66	81



현장포럼 필요성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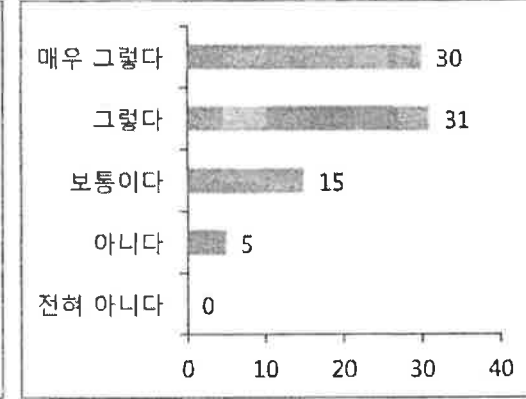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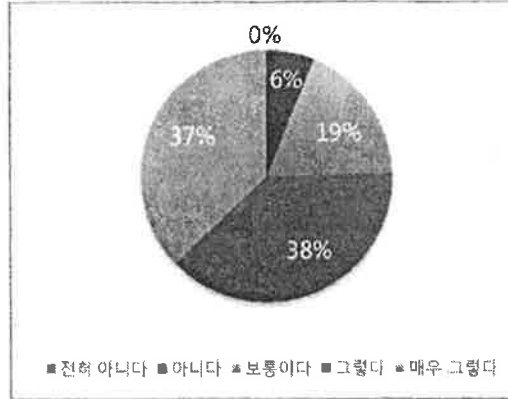
-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1.2
아니다	6	7.4
보통이다	20	24.7
그렇다	31	38.3
매우 그렇다	23	28.4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54	67



- 현장포럼은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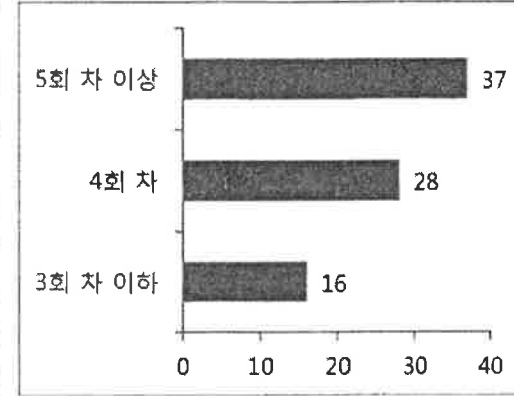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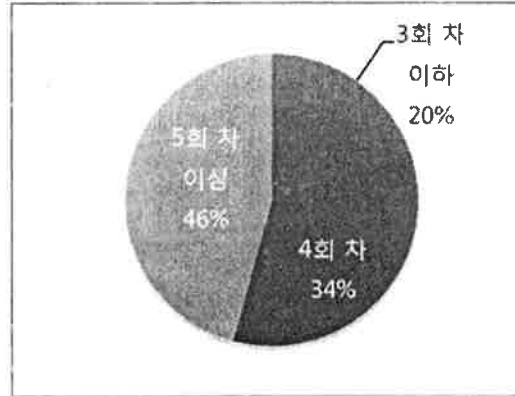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전혀 아니다	0	.0
아니다	5	6.2
보통이다	15	18.5
그렇다	31	38.3
매우 그렇다	30	37.0
합계	81	100.0
긍정적 응답	61	75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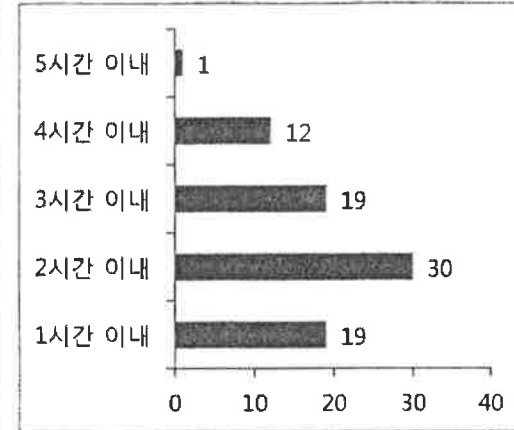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몇 회로 운영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3회 차 이하	16	19.8
4회 차	28	34.6
5회 차 이상	37	45.7
합계	81	100.0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1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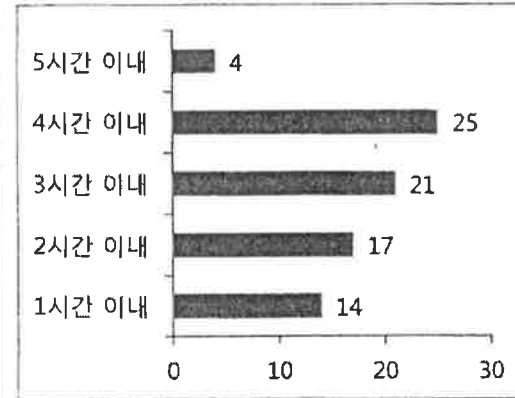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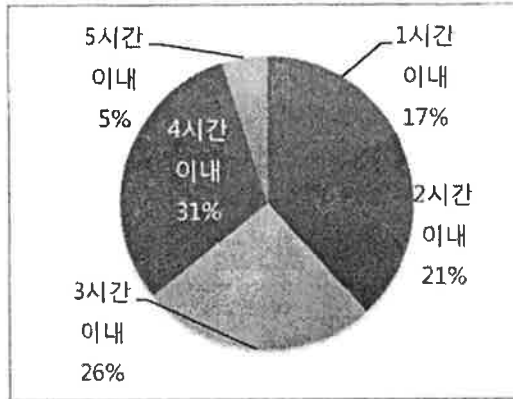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19	23.5
2시간 이내	30	37.0
3시간 이내	19	23.5
4시간 이내	12	14.8
5시간 이내	1	1.2
합계	81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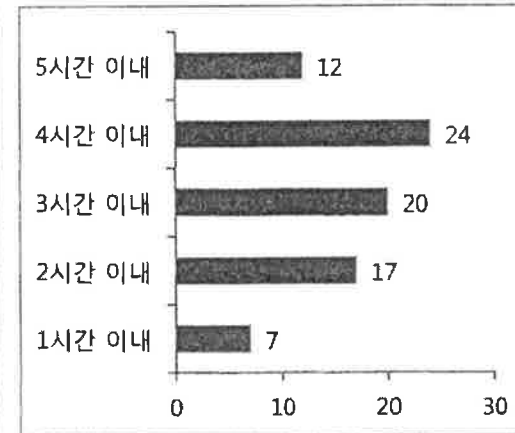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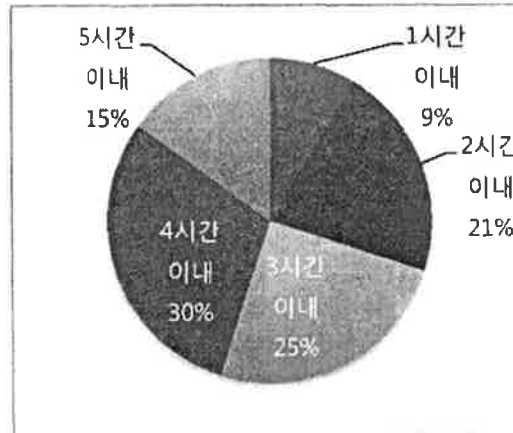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2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14	17.3
2시간 이내	17	21.0
3시간 이내	21	25.9
4시간 이내	25	30.9
5시간 이내	4	4.9
합계	81	100.0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의 4회 차의 적절한 소요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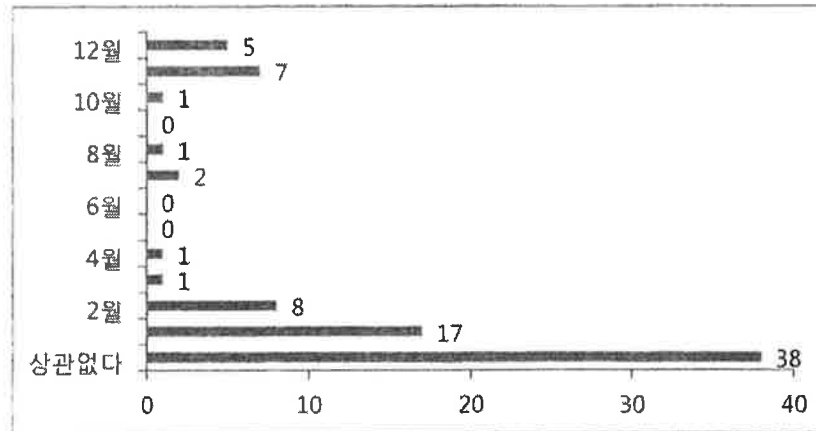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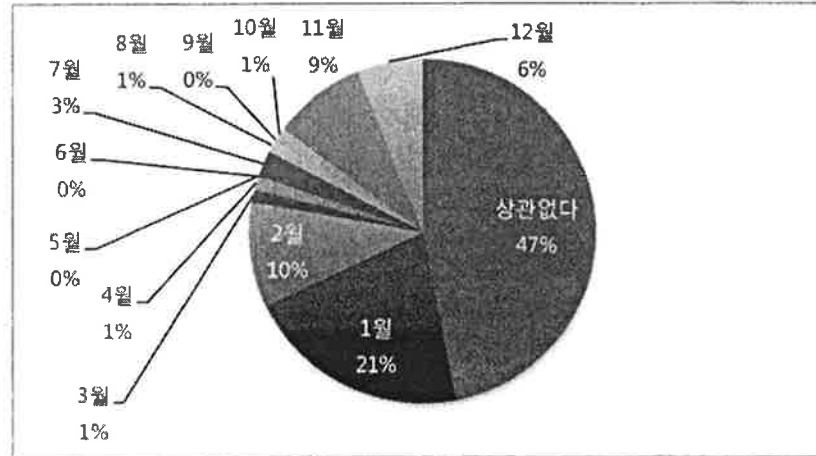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이내	7	8.8
2시간 이내	17	21.3
3시간 이내	20	25.0
4시간 이내	24	30.0
5시간 이내	12	15.0
합계	80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이 언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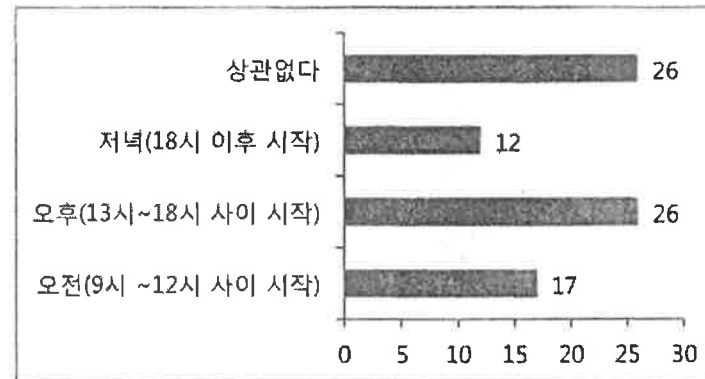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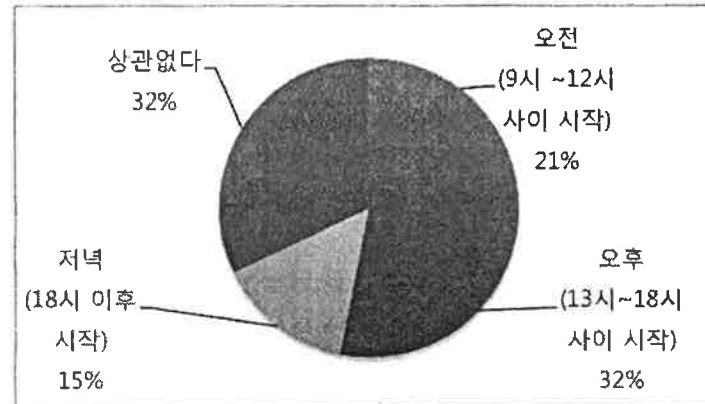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상관없다	38	46.9
1월	17	21.0
2월	8	9.9
3월	1	1.2
4월	1	1.2
5월	0	.0
6월	0	.0
7월	2	2.5
8월	1	1.2
9월	0	.0
10월	1	1.2
11월	7	8.6
12월	5	6.2
합계	81	100.0



현장포럼 운영에 관한 문항

- 귀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몇 시에 개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백분율(%)
오전(9시 ~12시 사이 시작)	17	21.0
오후(13시~18시 사이 시작)	26	32.1
저녁(18시 이후 시작)	12	14.8
상관없다	26	32.1
합계	81	100.0



3. 기타의견(문제점 및 개선방안)

백 영

3. 기타 의견(문제점 및 개선방안) _ 주민 대상

구분	의견	비고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 저조 ▪ 농촌지역 고령화, 세대간의 갈등 ▪ 교육 수준의 차이 ▪ 주민들의 피로감 가중(중도이탈자 과다) ▪ 향후 사업과 연계 가능성 ▪ 과도한 외래어 사용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을 줄여야 함 ▪ 농한기를 최대한 활용(겨울철) ▪ 현장활동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확대(활성화지원센터의 업무과중) ▪ 가시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해주어 동기 부여를 하여야 함 	
기 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규모, 참여율 등에 따라 현장포럼 사업비를 차등지급 ▪ 무조건 참석자 인원수를 늘리려는 것을 지양해야 함 ▪ 무조건 퍼실리테이션에 의존하려 하지 않아야 함 	

3. 기타 의견(문제점 및 개선방안) _ 전문가 대상

구분	의견	비고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차이 ▪ 주민들의 피로도 가중 ▪ 주민 참여율 저조 ▪ 다소 형식적, 포럼이후 사업개시는 속출할 것이나 교육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사업실패 속출이 예상 ▪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민 역량이 매우 떨어짐 ▪ 흥미가 떨어지고 지겨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현장활동가 관심도 저조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민 교육이 필요 • 마을 특징에 맞는 맞춤형 현장포럼 필요 • 교육시간 단축이 필요 • 농한기를 이용 • 추가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 포럼 횟수가 늘어야 함 • 주민토론 횟수를 늘여야 함 	
기 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포럼 구성원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 • 젊은 층 및 농업이외의 직군의 주민참여가 필요 	

농촌현장포럼 효과분석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발 행 일 : 2015. 12

총 관 : 양주필

기 획 : 이진, 박성근

연 구 수 행 :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경북대학교)

문 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62

이 책은 농촌현장포럼의 효과분석을 실시한 자료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 합니다.
